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3월 8일(음력 2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568 호

한암스님 가르침 신행 거울로

월정사-현대불교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3월 17일부터 6회
선사상 강좌 · 화엄산림 · 실참 프로그램 등 매회 2박 3일 진행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선 수행에 몰두했던 한암 스님.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1876~1951)을 배우는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다.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수행학림은 3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3일씩 모두 6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학림은 수행에 목말라하면서도 올바른 수행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암 스님이 펼쳤던 실천적 수행법인 '승가오칙(僧家五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승가오칙은 선 · 간경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를 말한다.

근대에 이름있는 스님치고 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스님이 없을 정도로 한암 스님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승이자, 계(戒) · 정(定) · 혜(慧) 삼학(三學)을 겸비한 수행법을 몸소 실천한 진정한 수행자였다.

선 · 간경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의 승가오칙(僧家五則)에 입각해 선수행 풍토를 진작시키고, 지계(持戒 · 계율을 지키는 것)로써 무애(無碍 · 막힘이 없는 것)의 삶을 살았으며, 한국전쟁 때 온 몸으로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한암 스님의 삶은 현 시대에 더더욱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말만 앞세우는 사회 풍조,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 한암 스님의 가르침은 '바른 인간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림 첫날인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관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현해(동국대 이사장) · 정념(월정사 주지) · 현각(원주 성불원 원장) · 무여(축서사 선원장) 스님 등 6인의 강사가 한암 스님의 종단관 · 생사관 · 선사상 등 각기 다른 주제로 강의한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이번 학림의 주요 테마인 화엄산림이 진행된다.

화엄산림은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 각성(전 통도사 강주) · 지운(동화사 강주) · 지안(은해사 승가대학원장) · 통광(쌍계사 강주) · 혜남(통도사 금강계단장) 스님이 차례로 나서 화엄경 각 품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강의한다.

이 두 강좌 전후로는 실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날 강의에 이어 2일째(토요일)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염불정진, 경행, 운력, 108배 및 참선, 오대 참배 등이 이어지며, 화엄산림 후에는 좌선법 강의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정진(좌선)이 계속된다. 3일째는 참법 및 포살과 삼보일배가 진행된다.

이번 수행학림은 재가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 6차 학림 뒷날인 4월 24일 낮 12시부터는 대법륜전에서 '한암대종사의 사상과 그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범 스님과 김호성 · 고영섭(이상 동국대) · 김광식(부천대) 교수, 윤창화(민족사 대표)씨가 한암 스님의 선사상, 수행론, 조계종의 성립과 초대종정 한암대종사, 한암 스님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一生敗闕)>을 주제로 발제하며, 혜거(금강선원장) · 성본(동국대 교수) 스님과 신규탁(연세대) · 고영섭(동국대) 교수가 논평자로 나선다. (033)332-6661~5, 홈페이지 woljeongsa.org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해 스님


무여 스님


각성 스님


지안 스님


혜남 스님


종범 스님


통광 스님


현각 스님


지운 스님


정념 스님


김광식 교수


김호성 교수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일정

날짜	강 사	내 용
3. 17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	한암대종사의 종단관과 애종심
3. 24	김광식(부천대 교수)	조계종단에서의 한암대종사의 위상
3. 31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용무생사의 관점에서 본 한암대종사 생사관
4. 7	현각 스님(성불원 원장)	한암대종사와 금강경
4. 14	김호성(동국대 교수)	한암대종사의 수행관
4. 21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한암대종사의 선사상

●화엄산림 일정

날짜	강 사	내 용
3. 18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화엄경 1품~6품
3. 25	각성 스님(前 통도사 강주)	화엄경 7품~14품
4. 1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화엄경 15품~22품
4. 8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화엄경 23품~30품
4. 15	통광 스님(쌍계사 강주)	화엄경 31품~38품
4. 22	혜남 스님(통도사 금강계단장)	화엄경 39품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사퇴

'삼광사 노조'가 발단…부원장 춘광 스님 代行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3월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천태종은 당분간 종헌종법에 따라 부원장 춘광 스님(서울 관문사 주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운덕 스님의 사퇴는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부산 삼광사 주지의 해임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따른 인사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무원장 사퇴란 파국으로까지 치닫게 한 부산 삼광사 문제는 노조 설립에서부터 비롯됐다.

부산 삼광사에서 일하던 종무원 30여명은 사찰내 전기업무를 담당하던 종무원 해임을 문제삼아 지난해 8월 26일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들은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인정' '인권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며 스님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삼광사측은 사찰에서 노조란 있을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급기야 민주노총이 관여하면서 노조가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농성을 벌이겠다고 하자 종단 대중스님들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 삼광사 주지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총무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운덕 스님은 삼광사 주지의 책임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명확치 않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며 대중스님들의 주지 경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스님들이 삼광사 주지의 문책을 재차 요구하자 2월 23일 운덕 스님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종정 스님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즉각 반려됐다.

이 결과를 지켜본 대중스님들이 이번에는 노조 문제와 함께 불투명한 재정운영에 불만을 품은 삼광사 일부 신도의 투서와 2월에 열린 삼광사 감사에서 지적된 재정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자 운덕 스님은 2월 27일 또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3월 1일 종회와 총무원, 감사원 등의 부장급 이상 스님 33명으로 구성된 산중공사에서 운덕 스님의 사임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발단에 중심이 된 삼광사 주지스님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운덕 스님의 사퇴에 따라 앞으로 쏠려질 관심은 차기 총무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이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종회의원 30인이 선출하는데 단일 후보를 결정해 종정스님의 인준을 밟는 절차로 정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종정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천태종 내부에서는 현재 C스님과 D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에 사임한 운덕 스님은 제7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1981년 이후 13대인 현재까지 26년동안 재직해 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가행정진도량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 6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백련사 조실 담월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온가족 군포교 이기성씨 가족
삼국유사 특별전 23면
동국대 불교대 새터 9면
현각 스님의 前生은? 14면
삼소회 성지순례기 16면
오행으로 푸는 茶 26면







새 문광부장관에 김명곤씨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일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명곤 前 국립중앙극장장(사진)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1952년 전주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독어교육학과를 나왔다. <뿌리깊은 나무>의 기자, 배화여고 교사, 연극배우 등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종교는 무교.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면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고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지 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이메일 : mw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펴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 간 : 3. 17 ~ 4. 24. (매주 금 ~ 일)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 17 ~ 4. 23 매주 금 · 토 · 일)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매주	금	19:00	저녁예불	월 정 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토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동·서·남·북대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석	월 정 사
		19:00	저녁예불	상 원 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일	05:00-06:00	경행(한암 · 탄허대종사 부도탑)	
			아침공양	
		09:00-10:30	참법 및 포살	중대사자암
		11: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적멸보궁
		12:00	서원 및 회향	적멸보궁
4. 24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대법륜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재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0시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向' 학술세미나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 033)332-6664,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 현대불교신문사

호법부에도 비구니스님

조계종, 정현 스님 상임감찰에 임명



"호법부 업무도 종무 서비스의 일환이며, 바른 생각 바른 잣대로 사실을 잘 살펴 업무에 임하겠다." 2월 27일 이례적으로 비구니 상임감찰로 임명된 정현 스님(사진)은 호법부의 업무를 대 종도 행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호법부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되기는 지난 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이다. 현재 종단 승려의 비구·비구니 비율이 대등해 졌지만 그에 따른 호법기능의 질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현 스님은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게 종단의 종무행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비구니 상임감찰 임명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일단 하심하면서 비구니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크게는 종단의 호법기능에 충실한 소임자가 되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정현 스님은 1974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운문사강원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청도 죽림사 주지, 운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동부경찰서 경승실장,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중앙위원, 대구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불교생명윤리 정립한다

조계종 상설위원회로 격상, 위원 10명 위촉

조계종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생명과학·윤리 문제에 대해 불교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치했다.

조계종은 3월 2일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04년 7월부터 진행해 온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이를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단행본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를 발간하고,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조계종은 불교학 분야 4명, 전문 분야 4명, 실천 분야 2명 등 총 10명의 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교학 분야 연구위원으로는 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 고영섭,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은 전문 분야 연구위원, 이향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과 강남석 생명나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실천 분야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자락으로…"

환수위원회 출범, 日 대사관에 반환요청서 전달

조불련 지지 서한 공개

"일본정부는 강탈해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민족의 품안으로 즉시 반환하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 철안·이하 환수위원회)가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환수위원회 공동의장 철안 봉선사 주지 스님은 "조선왕조실록은 꼭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이며 반환운동을 계기로 많은 문화재들이 되돌아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3월 1일 조선불교도연맹이 보내온 서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서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죄악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며 빼앗아간 문화유산을 무조건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고 함께 힘을 모아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 이후 환수위원회 공동의장 정념(평창 월정사 주지), 철안 스님과 김원웅 환수자문위원장, 노회찬 자문위원은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야마모토 정무참사에게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3일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촉구하며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오른쪽부터 철안·정념 스님, 김원웅·노회찬 의원, 손안식 부회장

사진=고영배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데라우찌 총독과 동경대 교수 시라토리에 의해 강탈되어 현재 동경대 종합도서관에 <성종실록> 9책, <중종대왕실록> 29책, <선조소경대왕실록> 8책 등 46책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식 기자

종단협 정기이사회 올 사업계획 세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은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개최(4월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개최(5월) △제 6회 6.15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6월) △제 7회 8.15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개최(8월) △중국불교수행체험 한국수행단 파견(9월) △ 제 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10월) △북한동포 요소비료 5천톤 지원(연중) △한국문화해외소개사업(연중) △회원종단 소개책자 제작(연중) △혼전교육 및 장묘제도 개선 사업 시행(연중)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매사 최선을 다하세요"

지관 스님, 정동영·이종석·현정은 예방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 정동영 의원과 국회 정각회 회장 이용희 의원,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김혁규 김두관 강창일 이영호 의원 등 여당 당직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지관 스님은 국정운영과 관련한 가르침을 청하는 정 의장 일행에게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다만 최선을 다 하라. 마음을 놓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바른 뜻이다. 오직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3월 2일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국민적 여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계사 복원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3월 3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예방을 받은 지관 스님은 "현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격려 했다.

조용수 기자

북관대첩비 황해도 개성 제자리로 돌아가



남과 북은 3월 1일 오전 10시 황해도 개성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 스님과 환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원웅 의원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남측 인사 150여명과 북관대첩비 되찾기 대책위 김석환 위원장, 조불련 심상진 부위원장 등 북측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을 가졌다. 사진은 2월 28일 의정부 정부부 장군 묘역에서 거행된 북관대첩비 고유제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주지 인사에 개인인연 작용" 31.8%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스님 노후복지 90% 찬성…10일 종책토론회

조계종 스님들과 재가자 상당수가 종단의 주지 인사는 인사권자와의 개인 인연(31.8%), 문중배경(25.6%)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합력(21.8%), 포교 능력(13.9%), 불사 능력(4.5%)과 같은 개인적 자질은 주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실시한 종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스님들은 노후복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4명(90%)가 찬성입장을 보여 설문을 진행한 화엄회 관계들을 놀라게 했다. 화엄회 운영위원장 광조 스님은 "스님들을 비롯한 종도들은 복지와 포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종책 개발이 집중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바라는 목소리도 두드러졌다.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종단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61.3%)이 적절하다는 의견(11.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78.1%)이 불필요하다는 의견(13.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선원수좌 중에서도 69.4%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종단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78.5%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화엄회 회장 성직 스님은 "종단 현안 전반에 대한 객관적 종도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화엄회가 유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종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 한 만큼, 종도들이 원하는 종책의 방향에 맞춰 화엄회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강원 및 교육기관 학인, 선원수좌, 조계종 산하단체 임직원, 교계단체 종사자, 등 불교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539부가 회수 됐다. 출가자는 378명(70.1%), 재가자는 161명(29.9%)이었고, 응답자는 30~40대가 373명(69.2%)으로 주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학인과 선원 수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조계종의 조직관리, 재무행정, 인사관리를 전반적으로 다뤘으며, 그동안 민감하면서도 쉽게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하던 종단 내부의 현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한편, 화엄회는 3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화엄회 종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의 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일반 종도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02)515-9351

조용수 기자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
화엄회 종책 공청회

• 일 시 : 불기 2550(2006)년 3월 10일 (금) 오후 2시 ~ 4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문 의 : 02)515-9351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본 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는 취지하에 '종책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발표와 함께 종단의 여러 종책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제방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0(2006)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회장 성직 합장

식 순

1부 개회식
• 사 회 : 성효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 개 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 사 말 : 성직 스님(화엄회 회장)
• 경과보고 : 덕문 스님(화엄회 간사)
• 치 사 : 법등 스님(중앙종회의장)
• 격 려 사 : 향적 스님(일승회 회장)
원택 스님(금강회 고문)

2부 발표 및 토론회
• 사 회 : 성효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 발 제 : 광조 스님(화엄회운영위원장)
• 토 론 : 토진 스님(일승회 대외섭외부장)
도각 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남북교류 위원장)
법진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일법 스님(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황 찬 익(총무원 기획차장) 김 응 철(중앙승가대 교수)
• 사홍서원
• 공지사항

경불련 '2세대 시민운동' 첫발

내부 진통 딛고 3년만에 정기총회 개최
상임대표에 도영 스님…조직혁신 나서

최근 3년여간 조직 내부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

우선 희망은 밝다. 내홍으로 중단됐던 정기총회를 3년만에 재개, 새출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월 25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경불련은 불교시민운동의 선구적 역할에 맞는 활동을 펼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하고 '제2세대 시민운동'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직의 민주성, 사업의 공개성, 재정의 투명성을 조직혁신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정한 경불련은 흐트러진 조직 · 후원체계를 다시 세우고 창립취지를 살린 자비실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회칙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상임대표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선출했다.

또 자비의집 대표 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연기영 동국대 교수, 이인자 경기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 공동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창립멤버인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상임고문을 맡아 '제2세대 시민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다.

새 상임대표 도영 스님은 "경불련이 창립 15주년을 맞는 2006년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방향성과 비전을 찾아 나가는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경불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사)이웃을돕는사람들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새 이사장에는 지현 스님이 선출됐으며, 운영위원장과 기획단장에 임효정 前 시민연대위원장과 오용승 봉은사 교육팀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사 청년회 정기법회 3000회

29년동안 주2회 꾸준히 이어져

조계사 청년회 정기법회가 어느덧 3000회를 맞았다. 1977년 2월 15일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 지 29년여만의 일이다. 29년이라는 세월동안 매주 두 차례의 정기법회를 이어오면서, 청년불교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한 것이다.

이같은 뜻깊은 날을 기념해 조계사 청년회는 2월 28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성 스님은 조계사 청년회 발족에 산파역할을 하는 등, 조계사 청년회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법회에는 지성 스님(동화사 주지)을 비롯해 도문 스님(조계사 부주지), 범성 스님(조계사 사회국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성 스님의 법문 외에도 박희정 조계사 청년회 회장의 기념사와 내 · 외빈들의 축사, 격려사, 공로상 수상식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지성 스님은 "도를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라며 "선도 버리고 악도 버려 간택심을 떠나면 그냥 그대로 자유인이요, 대장부"라고 설했다.

이어 청년회에 소속된 찬불가 동아리 '소리마루'와 풍물원 등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박희정 회장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한주에 두 번의 법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3000회 법회라는 금자탑을 이뤄냈다"며 "법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조직해 효율적인 법회 운영과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1977년 6월 4일 창립된 이래 1993년에는 대불청 직할 청년회로 단체지위가 격상되었으며 2002년에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최우수지구상을 수상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은희 기자

"습지-지하수 상관관계 있다"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2월 지율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합의했던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측과 천성산대책위원회측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하수, 구조지질, 암석역학, 지구물리, 생태계 등 5개 분야에 걸쳐 조사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생태계를 제외한 4개 분야는 합의를 이뤘으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조사에서 1994년과 2003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와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무제치늪과 대성늪 등 천성산 고산습지가 지하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터널을 굴착할 때 단층대를 지날 경우 지하수 유출이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도롱뇽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지하수 유출이 있더라도 습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던 고속철도시설공단측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터널의 공법이 애초부터 배수터널 공법이며, 지하수 유출량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습지와 지하수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계류중인 '도롱뇽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고속철도시설공단측은 "무제치늪 등 고산습지는 지하수 용출 보다는 강수에 따른 지표수로 유지되기 때문에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이 습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반해 천성산대책위측은 "지하수와 계곡수에 변화가 발생할 때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와 관련 종교 · 환경 ·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성산연석회의는 "공동조사 결과보고서가 도롱뇽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유의미한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박봉영 기자

나눔의 집 요양원 언제쯤 세워질런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요. 위안부 요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2006년 3월 1일 '3 · 1절'을 맞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3)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 요양원 부지에 '마음을 담은 나무(유심수)'를 심기위해 찾아온 후원자와 일본 도쿄대학생 40여명이 함께 했다.

김 할머니는 이들이 찾아온 것에 기뻐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전문 요양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어 얼굴이 밝지 못했다. 이 지역에 환경부 고시, 건축법, 사회복지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타개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할머니들의 마음도 김 할머니와 같다. 특히 올 2월 19일, 박두리 할머니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는 더욱 조급해졌다.

나눔의 집 안신권 국장은 "할머니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 아쉽다"면서 "하루빨리 요양원이 건립돼 할머니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강진 기자



황우석 연구재개 기원 촛불집회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단체와 회원 4000여명은 3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연구 재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를 열었다(사진). 불교계에서도 동학사, 청암사, 봉영사 등 비구니강원의 학인들과 황우석지지 불자모임 등이 참석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집결한 참가자들은 무대 중앙에 대형 태극기를 내걸고 이날을 '세계 과학 수호의 날'로 선포했다. 이들은 또 '미즈메디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반환하라' '서울대 조작보고서 철회'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토종기술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30여 참가자들은 조계사에서 집회장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집회에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종평위, 신년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2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평화위는 정례회의와 전체회의, 집행위원회 수련회,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워크숍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제로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또 5월에는 이웃 종교와의 친선 축구대회인 '희망 월드컵'을, 9월에는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진료하고 공양하니 보람 두배

신행단체 6곳 손잡고 남양주서 봉사

나눔의 손정기 우리이웃 불교신문 · buddhanews.com

"눈이 많이 침침해. 글씨가 잘 안보여." "할머니, 아무래도 노안이 오신 것 같네요. 여기 드리는 약 꼬박꼬박 넣으세요."

3월 1일 남양주시 남양주지체장애인협회 회관에서는 경찰병원불자회 회원들이 부지런히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기도 지역내 보건소 불자들이 채혈봉사를 도맡고 있다. 진료가 끝난 어르신에게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이 다가와 환히 웃으며 무료 점심공양을 대접한다. 노인회관 3층에서는 삼의한의원장 성덕 스님의 침술봉사도 한창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6곳이다. 경찰병원불자회와 경찰청불자회, 남양주 · 파주 · 고양 · 김포 보건소 불자들, 남양주 무량사, 삼의한의원,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등 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날 6개 단체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양 · 한방 의료봉사와 무료점심공양을 펼쳤다.

이들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청불자회 경승 홍선 스님(무량사 주지)의 덕택이 컸다. 홍선 스님은 의술봉사활동을 펼치는 경찰병원불자회와 남양주시 공무원불자회와 연결해 장소를 물색하고 천수천안자원봉사단에게도 뜻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은 이날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끝났다. 총 150여 명의 지역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이명애 단장은 "여러 신행단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펼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남양주=이은비 기자

평불협, 北에 비누공장 설립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상임대표 법타, 이하 평불협)는 3월 3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올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불협은 올해 생필품 지원, 세탁비누공장 설립, 비료 100톤 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비롯해 통일환경백일장 개최, 통일교육원 개원, 지역본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죽음준비 프로그램 진행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3월부터 10월까지 죽음준비프로그램 '사(死)는 기쁨'을 진행한다.

3월 2~30일 총5회에 걸쳐 죽음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동아리별로 죽음 토론 및 장묘상담봉사활동, 영정사진촬영, 호스피스시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9-9503

이은비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대불 복원불사 발원

불자 여러분!
만나기 어려운 법주사 대웅보전 복원과 삼존대불 복원불사의 인연을 만났으니 신심을 일으켜서 불사에 동참, 복전(福田)을 일구어 나갑시다. 삼존대불에 금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改金佛事)와 복장(伏藏:다라니경, 불경, 법주사 소장된 경판인경본, 성물, 금 등의 수백점)을 봉안하여 법광(法光)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는 원만 구족한 부처님의 성상(聖像)을 복원하여 모시고져 합니다.



1. 개금불사 (改金佛事)
- 부처님 1분 복원시주 : 인연단월자
- 동참시주 (노임포함)
  금박1속(100장) …… 20만원 / 금분1통 …… 10만원

2. 복장봉안
1) 경전사경
- 금강경 1권당 …… 10만원
- 법화경 1권당 …… 10만원
- 대비주 3판(신묘장구대다리니경) 2장 …… 5만원
- 두루마리 천수경 1권당 …… 100만원

2) 성물 : 금, 기타성물
※ 동참자 시주록에 등재하여 봉안합니다.

3. 불사안내 (개금불사 / 복장 봉안불사)
1)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대불 개금불사에 동참하여 복(福)을 지읍시다.
2) 삼존대불에 사경, 다라니 등 복장물을 봉안하시고자 하는 분은
① 사경책을 가져가신 분은 사경이 끝나는 대로 가져오세요.
② 새로 사경하시고자 하는 분은 원주실에서 사경책을 가져가세요.

◈ 계좌번호 : 농협 403020-51-027336 (예금주 : 법주사)
◈ 문의전화 : 원주실 043)543-4755, 1574 사무실 043)543-3615, 8655
◈ 접수기간 : 佛紀 2550(2006)年 (음) 윤 7月 15日까지 예정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道空合掌**

종단 – 대학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시급

동국대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 의미와 과제

동국대 불교대에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이 신설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21일 제216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대 내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과의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동국대 불교대에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이 신설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실천불교분야 교육 필요성 꾸준히 제기
사회복지 · 문화콘텐츠 · 종무행정 등 구성
단순 이론교육 탈피, 실용적인 교과과정 마련해야

 # 공청회 · 워크숍 거쳐 최종 확정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은 지난해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 이하 불교대 발전위)가 주최한 5차례의 공청회와 1차례의 워크숍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미 공청회와 워크숍에서 '불교대학의 교육목표', '불교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 '불교대학 졸업생의 진로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실천불교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상황이어서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은 기정사실화돼 왔었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은 '실용불교'를 지향하며 불교사회복지와 불교문화콘텐츠, 종무행정 등으로 구성된다. 시대변화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학'에서는 현장 실습은 물론 각종 정책과 이론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교문화콘텐츠학'은 불교문화와 IT기술의 접목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재의 복원 및 관리 등으로 교과목이 편성된다.

'종무행정'에서는 중앙종무기관은 물론 본말사에 이르기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종무행정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교대 발전위 위원장 영담 스님은 "단순 이론 교육에서 탈피해 종단은 물론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종단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교대 침체 돌파구 될 수 있나?

그렇다면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의 신설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은 불교대의 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불교대는 지난 100년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다. 불교대 초기에는 동국대 총장을 지낸 권상로 박사를 비롯해 만해 한용운, 김법린 선생 등이 졸업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도 불교대 출신이다. 이외에도 불교계와 정관계에서도 수많은 불교대 동문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교대는 동국대 내에서조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입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로 옮겨가기 위한 정거장"이라는 말을 불교대생 스스로 하고 다닐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전과를 금지한 선학 전공을 제외한 불교학 전공과 인도철학 전공에서 각각 9명이 다른 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정원 68명중 18명이 진로를 바꾼 것이다.

동국대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동국대 전체 평균 전과율이 10%정도인데 비해 불교대는 매년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과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까지만 해도 60학점 이상을 획득하고 평균 평점 2.5 이상에 지도교수 동의서가 있어야 전과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학기 이상 등록만하면 전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대생들의 전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불교대학의 현실적 교육 목표가 부정확해 학생들이 쉽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불교대 침체의 한 원인이다. 재가 학생들의 경우 진로와 관련한 교육 부재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으며, 스님들의 경우 이론 교육에만 치우친 나머지 포교나 수행과 관련한 심화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3월 불교대 발전위가 서울 · 경주캠퍼스의 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재학생, 졸업생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이미 확인됐다.

이 설문에서 교수 · 강사의 92.6%, 재학생 83.9%가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현실적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교과과정 개편의 이유로 교수 · 강사의 70.5%, 재학생 45.6%가 '현대 불교계의 필요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대중성 있는 불교교양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수 · 강사 95.5%, 재학생 90.1%가 찬성했다. 불교체험강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수 · 강사 91.1%, 재학생 86.6%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줄기차게 지적돼왔던 문제점들이 공청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해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불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계종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동국대 따로, 종단 따로'여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동국대와 종단이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단의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는 물론 500여개에 이르는 복지시설에서 학생들이 실습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김영일 총무차장은 "아직까지 종무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을 신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동국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단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불교대의 한 관계자도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 해당 지역 사찰과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은 물론 각 사찰과 시설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교대 내부 역량 결집 필요

불교대 내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은 불교대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전공 이기주의가 불거져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교대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 기간 내내 불교대 일부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 신설 작업이 계속될 경우 잠재돼 있던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편이후에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기존 전공 교수들의 걱정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동국대 불교대는 올해 안에 기존 3개과의 교과과정 개편과 함께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의 교과과정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불교대 내부 역량을 모으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 전공은 다르지만 유사한 과목들을 통합 조정하는 작업은 담당 교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정원 확보도 선결돼야 하는 문제다. 동국대는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정원을 20~30명 내외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원의 단순 증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원 내에서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정원을 확보하느냐이다. 현 상태로라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축소해 20~30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에 포함된 3개 분야의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도 놓칠 수 없다. '불교사회복지', '불교문화콘텐츠', '종무행정' 등을 맛보는 수준의 교육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 3개 세부분야는 애초에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고려될 만큼 비중이 있는 분야여서 현행 불교대 졸업학점인 120학점 이내에서 적절하게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대 발전위 한 관계자는 "졸업학점을 130~140학점 정도로 확대해 3개 분야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교대 학장 조용길 교수는 "앞으로는 수행실습, 포교실습과 같은 종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팔리어, 티벳어 등의 외국어 강좌를 통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을 계기로 종립대학의 불교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문화학 전공 신설을 계기로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한 동국대 불교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대진스님초청 "書狀" 대강좌

상도동 보문사에서는 "대진스님"을 초청하여
간화선 지침서 "書狀" 대강좌를 봉행하오니 동참바랍니다

입 재 : 3월 28일 화요일(음 2. 29) 오후 2시
회 향 : 4월 20일 목요일(음 3. 23) 오후 2시
강의시간 :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2시간)
강의대상 : 일반불자 및 비구 비구니스님(가사동참)
동 참 금 : 5만원(교재비포함), 필기도구지참
연 락 처 : ☎ 02)823-7443(종무소)
02)814-8793(주지실)
휴대폰 011-9969-3601

※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오니 미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간화선 근본도량 상도동 보문사

3년과정
불교한문학과 신입생 모 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교과목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대장경과 역경사
지 도	· 심경호교수(고려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 무진장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후7시
※특전:3년과정 수료후 연합포교사 응시

2006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신입생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 불교바라작법(2년과정)



1. 교과목

교과목	바라춤... 바라춤은(銅)으로 만든 악기를 양손에 들고 춤을 추는데 ①천수바라, ②사다라니바라 등 나비춤... ①향화게작법, ②도량게작법, ③다게작법, ④삼귀의작법 등
지 도	· 인각스님(태고종 봉원사)

2. 개강일시
2006년 3월 10일(금) 오후3시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의식교육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올해는 어린이 포교의 해”

(사)동련 창립 20주년 선언 …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이 ‘2006년을 어린이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조직 개편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월 25일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단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동련이 제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 분화로 인한 역할 분담이다. 동련 산하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 동련동화구연회(회장 덕진)를 두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했다.

지현·정여·심산·덕진 스님 등 경험있는 스님들 역량 결집
업무 세분화·전문화 시도
20년사 발간 계획도 세워

이는 부산, 경남에서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스님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함으로써, 전국의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장 정여 스님은 대불어 회장과 대한불교사대학 학장 등을 지냈고, 불교교육연구소의 심산 스님 역시 어린이 법회 자모회 등을 구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어린이 법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덕진 스님 역시 대불어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어린이 포교의 현장 경험과 포교 의지는 이미 검증받는 스님들이라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님들의 역량 결집 외에도 조직개편이 가져올 효과는 또 있다. 그동안 대불어가 맡아오던 업무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집중력과 지속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불어는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전반 업무를 맡아 총괄하고, 대한불교교사대학은 교사 양성에 주력하며, 불교교육연구소는 주5일수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어린이 법회 지침서 발간 등 교리 및 교재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창립 20주년인 사단법인 동련은 10월 15일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한편, 20년사 발간 계획도 갖고 있다. 어린이들과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힘써온 지도자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20주년 기념행사로 성년을 축하하게 되는 것이다.

전래놀이한마당, 연꽃문화제, 지도자연수회 등 기존 사업 외에도 올해는 애니메이션 제작, 법회지침서 제작, 불교동화구연대회, 주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예년보다 2배로 확대했고, 어린이 포교지인 ‘연꽃’을 웹진화하고 애니메이션과 찬불가 CD를 보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들은 이미 시작됐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아이들의 심성을 일깨우는 것은 불교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라며 “어린이 포교의 후원자로서 포교의 씨앗을 함께 심고 가꾸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마주 앉으니 이웃의 情 ‘새록 새록’

부산 범어사 ‘사하촌 주민 위한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108배 등 진행, ‘대화의 장’ 정례화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어둑해진 범어사 휴휴정사에 범어사 부주지 계전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과 사하촌 주민들이 함께 자리했다(사진).

오랫동안 등을 보이던 이웃사촌의 따뜻한 해후였다. 범어사가 상하마부락, 청룡동 등 인근 주민들을 초청, 공식적으로 사하촌 주민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하촌 주민을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상마부락, 하마부락 주민 20명이 사찰 안내, 발우공양, 저녁예불, 108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가장 기다려온 시간이 바로 스님들과의 대화시간.

“이웃에 놀러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듯 살면서 힘든 일, 기쁜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인사말과 함께 부주지 계전 스님이 떡과 차를 권하자 상가번영회 김광화 회장을 비롯 사하촌 주민들은 그동안의 궁금증이나 생각들을 털어 내놓기 시작했다.

“올 9월에 범어사 소유 토지에서 영업하는 집을 철거한다는 게 사실이냐?” “세계선문화타운이 조성되면 상하마부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직접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그동안 이런 저런 소문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간다면 두루 두루 원만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소임자 스님들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때론 종무소의 소임자들까지 보충설명을 해주자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려나갔다.

범어사는 앞으로 이 같은 대화의 장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민들도 범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대화를 마친 최환근 청룡노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대화를 통해 범어사가 잘 되는 것이 곧 사하촌이 잘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화로 마음을 풀어낸 사하촌 주민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법문, 원효암 순례, 불무도, 108 염주 만들기 등 전통문화의 멋을 체험하는 등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 일정을 마쳤다.

천미희 기자

‘주5일 수업제’ 부산 종교계 관심

부산시교육청 관련 세미나에 프로그램 발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 주최로 2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5일 수업제 관련 세미나에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유관기관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운영사례 발표회가 열린 롯데호텔 대공연장에는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참석해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불어의 정일훈 팀장은 “15개 사찰에서 다도, 뮤지컬, 숲속체험, 명상과 어린이 선체조, 메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찰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포교원 차원에서 체험학습 지침서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참선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토요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우곡선원 심성개발원의 김혜경 교장은 “참선을 통해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고3 수험생,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는 2월 28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62기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석암장학회 회장 정련 스님, 대한불교석암장학회 차현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은 초하루 법회와 겸해 열려 1000명의 사부대중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함께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정련 스님은 “장학사업 또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므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에게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감로사, 3천배 참회기도법회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55회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으로 전국에서 기도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감로사 3천배 기도는 전국 유명 법사 스님들의 법문으로 그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올해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인환·정관·대성·각성·법희·흥교·지안·성우 스님 등 원로·중진스님들이 법석에 올라 참회의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 바른 정진을 일깨우게 된다. (051)809-0926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안성이

부산불교보현회 회장

혼자서만 행복할 순 없다 … 30년간 봉사 전념

가족 형제 든든한 후원자, 수행기도 일상화

행(行)과 지혜(智慧)를 구비하는 것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고 자리이타(自利利他)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했다. 한바퀴만으로 수레는 굴러갈 수 없고, 날개가 한쪽뿐인 새는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서른한 살 때다. 세 살 난 아들을 여섯 살과 여덟 살짜리 두 딸에게 맡겨 놓고 천마재활원 목욕봉사를 나섰던 안성이(55·자비행) 부산불교보현회 회장. 안 회장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행복은 완성된 행복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새처럼 안 회장은 늘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두고는 행복할 수 없었기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봉사에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봉사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25년이 넘도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엄마’이자 독거노인들의 ‘딸’로 살아온 안 회장이지만 처음엔 가족의 반대도 극심했다.

그러나 38세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나 원없이 하고 죽자며 더욱 봉사에 매달리자 가족들도 따라나섰다. 그 길로 남편 김일호(58) 거사도 부산불교보현회의 ‘대장’으로 불릴 만큼 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늘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큰 딸 미희는 복지를 전공하고 작은 딸 경희, 아들 기범이도 엄마가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해 일을 거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불교보현회에는 안 회장의 형제자매 8명이 모두 둘도 없는 후원자와 봉사자다. 자식들의 밥까지 나눠 거지에게 주고, 환갑을 양로원, 고아원에서 잔치로 대신할 만큼 보시행에 철저했던 어머니 故 유대련화 보살의 영향이다. 나이가 들수록 안 회장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가족은 물론 300여명이나 되는 회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나올까?

안 회장은 망설임 없이 ‘수행과 기도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안 회장은 물론 부산불교보현회 회원의 수행과 기도는 봉사의 기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삼천배, 참선 등의 정진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도 수행이 없이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철저한 수행과 봉사의 두 바퀴를 조화롭게 굴리고 있는 부산불교보현회는 군부대, 교도소, 장애인, 청년 포교 등 어려운 이가 있는 곳이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성우원, 평화재활원에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 재활을 도왔고 장애인체육대회를 11회째 열고 있다.

또한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학 상담도 해주고 밑반찬도 챙겨주는 일도 빼놓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108배 참회와 다라니 108독을 마치고 길을 나서 온종일 봉사활동을 하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은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보살핌으로 자란 아이들이 다시 부산불교보현회의 회원이 돼 후원금도 내고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안 회장의 보살행은 더 넓은 원을 그리며 세상으로 번지고 있다.

“다른 욕심 다 버려도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 힘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나눔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018-579-4531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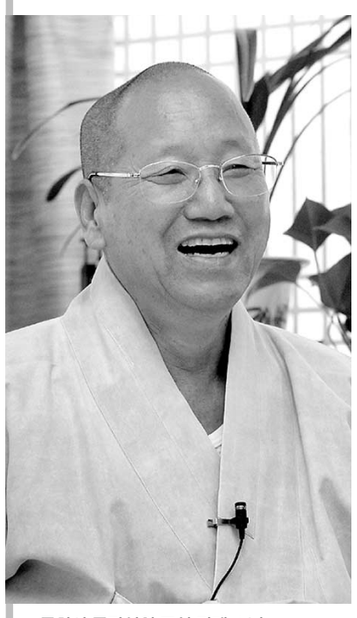


조실 진제 스님

대담=위영란 편집국장

동화사 금당선원 가행정진도량으로

"참된 안목의 선지식 나오도록 지도할 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

여여부동 마음 증득해 생사 초탈토록 정진 지성스님 원력이 큰 힘

30여명 사시사철 정진 동화사 총림사격 충분

대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이 사시사철 해제 없는 가행정진도량으로 거듭난다. 결제와 해제의 틀마저 벗어나고자 하는 운수납자들의 용맹정진 지도는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이 맡는다. 진제 스님은 하루의 쉼도 없이 각고정진을 이어갈 선객들에게 생사를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게 된다. 스님은 지난 동안거 결제부터 동화사 조실채에 머물며 운수납자를 제접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가행정진이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천하에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제 막 동안거 결제가 끝났습니다. 이번 을유년 동안거 방함록에 종정 스님의 법어와 함께 스님의 결제법어가 실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을 요약하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법신의 경지가 있고 여래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의 경지가 있어요. 법신 견성과 여래선을 안다는 것은 쉽지만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비밀히 전하는 향상일구(向上一句)를 통과해야 견성이고 사람의 눈을 안 흐립니다. 그런데 보살이나 처사나 스님이나 그 향상일구를 모르고 견성했다는 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향상일구 안목자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동안거 방함록 결제법어에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라고 공안을 내렸습니다.

백천 공안 가운데 가장 알기 어려운 법문인데 이걸 알아야 대오견성을 인정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앞으로 향상일구를 아는 이가 있으면 인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전국 99개 선방에 못을 박아놨으니 이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동화사 금당선원을 가행정진도량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큰 가르침이 담겨 있을 텐데요.

-금당은 한국에서 제일가는 참선도량입니다. 이 도량에는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내려오는 법맥이 있습니다. 바른 눈을 갖춘 지도자가 자리에 앉아 후학을 지도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이 좋은 도량에 얼마나 머물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한 가닥 한국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천추만대에 면밀히 이어야겠습니다. 특히 대덕스님들이 다 가고 없으니 후학지도에 저절로 사명감이 듭니다. 마침 주지 지성 스님이 조실채를 짓자고 큰 뜻을 내어 이뤄진 것이니 여생을 인재양성하는 데 정열을 쏟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동화사에 종단 기본선원이 설치된 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실이 기거 한지도 12년째가 됩니다. 한국 불법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심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껍데기 종단이 됩니다. 내실을 기해서 아주 피나는 정진에 몰두해서 그 습기가 다 녹아빠지고 여여부동한 그 마음자리를 증득할 때 생사에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은 3개월 틀고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10년을 잡고 씨름하듯 일념삼매에 들어야 견성하거든요. 옛날에는 도를 얻기 위해 여기에서 두문불출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정신무장과 바른 수행으로 오도송이 터져 나와야 한국불교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동화사에 기본선원이 설치된 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은 해제 때 후학을 위한 교육장으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선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바른 중노릇 바른 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견성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기본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기본 교육이 없어서 승이 돼도 무엇이 승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원장스님이 역량을 충분히 갖춰, 질서를 정확히 잡고 교육안거를 잡아 바르게 참선해 바르게 증명하는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게다가 주지 지성 스님이 기본선원을 위해 별도의 건축불사 원력을 세웠으니 일이 잘 추진될 것입니다. 3개월 틀고 앉았다고 견성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화사는 사격으로나 역사로 보나 총림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선종의 맥을 잇는 조계종단에서의 총림은 어떤 형식적인 요건보다도 참된 안목을 가진 선지식이 후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화사는 한국의 주류 경허 선사의 선맥을 이으며, 일등 발심한 스님 30여명이 항상 모여 사시사철 수행하는 가행정진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떨어져 있다지만 율원이 있고, 강원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총림을 능가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총림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대구봉축위원회 결성…4월15일 봉축탑 점등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가 결성됐다.

동화사 주지 지성,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정산, 천태종 대성사 총무 보광 스님 등 불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봉축위원회 결성회의가 3월2일 대구불교대학에서 열렸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봉축위원장으로 하는 봉축위원회는 불교계 원로와 각 기관단체장들이 증명법사와 고문으로 참여하고, 대구 사원주지 연합회장 법혜,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천태종 종의회 의장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진산 정사 등 범 불교계 각 단체 대표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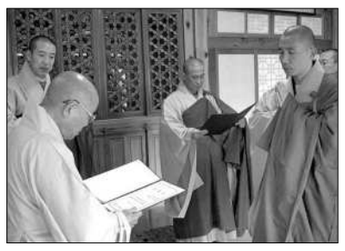
회의에서는 올해의 봉축행사를 1억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민과 함께 문화축제의 전형을 창출하며 자비의 실천이 되는 봉축행사를 봉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봉축탑 점등식을 4월 15일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에서 봉행하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봉축법요식, 거리제등행진으로 이어지는 연등축제는 4월 30일 두류야구장에서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두류공원에서 반월당까지의 제등행진이 끝난 후 반월당에서 남문시장 사이의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회향축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층 기대된다.

그 외 지역 사찰별로 계획된 다양한 봉축행사들이 소개됐다. 선덕여왕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선덕여왕숭모재가 4월 12일 오전 10시 부인사에서 열리고, 4월 16일에는 대광맹인불자회의 주관으로 맹인불자들의 전국산행대회가 갓바위에서 개최된다.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는 4월 17일 동구문예회관에서 찬불가 합창의 밤을 개최하며, 천태종 대성사가 5월 4일 봉축전야제를 갖고, 서구청, 동구청, 서부경찰서 등 각 기관단체들이 봉축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보존·전승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해인사, 경암 스님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



법전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있는 경암 스님(오른쪽).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은 3월 2일 퇴설당에서 2월 7일 비로자나불 복장의식을 전통원형대로 재현한 경암(鏡岩) 스님에게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은 조계종단 내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로 한국불교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불복장봉안의식이 연구 복원 계승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법전 스님은 복장전문위원 위촉과 관련 "비로자나불복장물 봉안은 근래 50년사에 가장 여법히 재현된 복장의식이었다"고 치하하면서 "해인사가 중심이 되어 종단내 여타 사찰들에도 복장의식이 전통원형대로 복원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암 스님은 "불복장의식은 금속공예, 직물, 염색을 비롯해 인경문화까지 담고 있는 종합불교문화예술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전통불교문화지만 소수의 특정 스님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전승되어오면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복장의식을 연구 전승 발전시킬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암 스님은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출가 이후 '제불보살복장단의궤' '조상경' '관상의궤' 등의 관련 서적을 통해 불상의 복장의식을 연구하고, 해인사율원장 무관 스님을 통해 묵담 스님(1896~1981)이 전승해 온 조선 후기시대의 복장의식을 배워 제방의 여러 사찰의 불보살 복장의식을 행해왔다.

또 지난해 6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복장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복장유물이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대거 출현함에 따라 경암 스님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지도로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조선 초기의 복장물과 관련 의궤를 복원 두 분의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의식 때 9시간에 걸쳐 재현한 바 있다.

배지선 기자

포항 불교·가톨릭 지도자 부정선거 감시운동 전개

포항 불교계와 가톨릭계 성직자들이 5·31 지방선거 감시자로 나섰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과 오천성당 문봉환 신부를 비롯한 포항 불교·가톨릭 성직자모임 스님과 신부 10여명은 2월 27일 포항 천주교대구대교구 제4대리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파워풀 & 클린 포항을 위한 우리의 선언'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자발적 희생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포항불교가톨릭 성직자 모임은 5·31 지방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종교 편향적 지원을 금하며, 종교 편향적 정치 신념으로 지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후보자 거부 운동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공천하는 정당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진각불교문화대학 개원

대한불교진각종 의밀심인당(주교 의현) 부설 진각불교문화대학이 위덕대 불교학부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으로 3월 20일 대구 건들바위 네거리 진각문화회관 7층에 문을 연다.

진각불교문화대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교리를 교육하고 진각종지를 알려 포교에 도움을 주기위해 진각종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불교대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교리, 가요교실, 명상·요가, 명리학, 단소, 서예등의 강좌가 개설되며, 1년간 1, 2학기로 나눠 총3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053)424-2693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고승초청법회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옥불보전 낙성식을 기념해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고승초청법회를 갖는다. 대법당 부처님(준제관세음보살) 점안식이 봉행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는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법문이 있고, 낙성식이 봉행되는 8일 오전 10시에는 성우 스님(불교TV사장)이 오후 8시에는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법을 설할 예정이다. 또, 성파 스님(서운암 회주)은 13일(월) 오전 11시에,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은 신입생입학식이 열리는 3월 16일 저녁 8시에 법문한다.

영남불교대학은 또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이 있는 3월 한달간 '수행과 포교는 하나다'는 주제로 정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053)474-8228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3-634-3429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바예토 최승미묘 정토원행의 거룩한 인연이셔라!
'아미타정토 청정법음' 무상보리 대승의 서원 무량수광명 서방정토 무생법인 이름이셔라!
-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정토 불교대학』강좌안내

정토강좌	교수진 소개	시 간
●정토경론「무량수경종요」 ●장엄정토 '불화로 보는 정토세계' ●정토원행「의심끊고 염불하세」 ●정토신행「왕생록」·「왕생불퇴」 ●정토행원 '정토행자의 길	박종린 연구원(동국역경원) 강소연 교수(홍익대 미대) 김지수 교수(전남대 법대) 스님, 박병규 변호사 전병룡 한의사(위강한의원)	매주 금요일 19:00 – 20:30 ※ 매월 게재순 강의진행 계획

제1기 6개월과정 - 원서접수 : 2. 27(월) - 3. 8(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1매, 입학금(10만)
- 강좌개시 : 불기2550('06). 3. 10(금) 19:00

※건봉사 만오(晩悟) 큰스님 초청 개강법회

※ 아미타사 요일별 저녁 주요신행 소개 (24시간 개방 정토행자 정토염불수행도량)
월·토 중국어회화 수 고성염불 목 불화그리기 강습 금 아미타정토불교대학 일 일요법회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⑦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151,162,171,172,272,1012,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변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옆 **아미타사**(☎ 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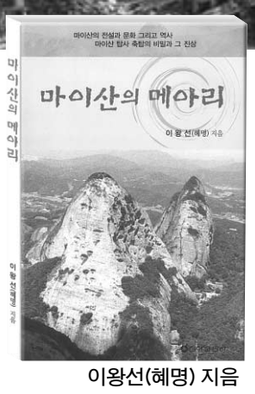


마이산의 전설과 문화 그리고 역사
마이산 탑사 축탑의 비밀과 그진상

마이산의 메아리

이 책은 저자의 수행담과 탑사와 탑군에 얽힌 전설과 역사, 축탑의 비밀을 책으로 역은 것이다. 저자는 마이산의 아름다움, 신비스러움 불가사의 함을 이책에 담았다. 마이산 탑군의 지킴이로서 그간 소송 전말과 분쟁,소유권등 탑사에서 그간 일어났던 무수한 법정에서의 소송을 책속에 진솔하게 담았다. 또한 저자는 마이산탑사에서 태어나 조부인 이갑룡처사와 함께 지내며 조부가 탑을 쌓거나 수도하는 모습은 보아왔고 신비의 영산 마이산에 돌탑조성 과정도 그림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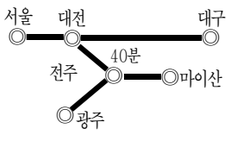
‖ 신아출판사 ‖ 값9,000원 ‖ 전화 063)275-4000, 252-5633



이왕선(혜명) 지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나주에 불교 중학교 탄생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장동학원 이사장 취임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나주에 불교사학이 탄생했다.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학교법인 장동학원을 인수하고 지난 3월 3일 세지중학교에서 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입학식을 겸해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광주 동구사암련회장 지각, 나주불교사암련 회장 효공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지역기관장, 세지중학교 동문, 장동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이사장 원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바르게 자라야한다"며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 세지중학교가 지역을 선도하는 사학명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또한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문화발전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을 대표해 축사를 한 김봉인 세지면장은 "새 이사장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학교뿐 아니라 세지면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취임식에 이은 간담회에서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일제치하의 설움과 전쟁 속에서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교육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이다"며 "장동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불자들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학원 세지중학교는 1956년 고등공민학교로 출범해 1969년 세지중학교를 개교했다. 현재 교직원 22명, 학생 12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동안 졸업생 6368명을 배출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광주지역 스님들과 세지중학교 재학생, 지역기관장을 포함한 200여명의 대중 앞에서 장동학원 이사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원일 스님.

interview 원일 스님

"신바람나는 학교 만들겠다"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생 후학양성에 힘써온 은사 벽상 큰 스님의 유지를 이제야 이루게 됐습니다."

3월 3일 장동학원 이사장에 취임한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4년전 입적한 은사 스님의 뜻을 뒤늦게 잇게 되어 부끄럽다"며 취임 첫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장동학원을 인수한 뒤 취임식을 미룬 채 곧장 문경 봉암사로 동안거에 들어간 원일 스님은 "안거기간 내내 '교육'을 화두로 정진에 임했다"며 "교육사업이 아닌 더불어 공부하는 수행으로 삼아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원일 스님은 "세지중학교는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의 명문이다"며 "공부하는 학생과 지도하는 교직원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책걸상 전면교체, 도서실 및 학사보수, 원어민 교사 확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사업에 힘써온 은사스님의 뜻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힌 원일 스님은 10여년 전 미륵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세지중학교를 비롯해 관내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장동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은 1978년 벽상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로 입산했다. 84년 해인승가대와 94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86년부터 3년간 교학연수차 일본을 다녀왔다. 백양사 재정, 호법 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획국장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나주 미륵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역민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있는 지본한의원 노정은 원장.

"산골에 주치의 두고 삽니다"

보성 봉갑사, 폐교 매입해 한의원 운영

산골 오지에 있는 사찰이 한의원을 개설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암호 수몰지구에 자리한 보성 봉갑사(주지 각원)가 화제의 사찰. 관내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 '불교문화원'을 준비중인 봉갑사는 지난해 10월 지본한의원(원장 노정은)을 개원했다.

빈 교실 3칸을 초현대식 의료원으로 개조한 지본한의원은 지난겨울 농한기를 맞은 지역민들에게 '약사여래 도량'으로 거듭났다. 이곳 주민들은 80%이상이 노인들로, 의료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보성군이나 광주시로 나가야 한다

지본한의원은 한의사 2명, 약사,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의료시설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산골 오지라는 지역특성상 모든 방문객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또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진료비는 간호사 책상에 놓인 저금통에 알아서 넣도록 한다. 또한 약도 인근 산야에서 채취한 자연산과 직접 재배한 약재를 최대한 활용해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개원 5개월이 지난 요즈음 지본한의원을 찾는 이가 매일 60-70여명에 이른다. '잘 낫는다'는 입소문으로 인근에 있는 문덕, 송광 등 4개면은 물론 광주, 화순 등 도심지에 사는 지역민들의 자녀들도 이곳 지본한의원을 찾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잘나가는 한의사였던 노정은 원장은 "어려서부터 농촌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며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이어서 정기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충분히 듣고, 자상하게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리, 다리 통증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침을 맞는다"는 법화마을 이후남(73)씨는 "살다보니 주치의를 가까이에 두고 사는 세상도 본다"며 봉갑사와 병원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천봉산 봉갑사는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창건한 불갑사, 도갑사와 함께 호남 3갑(甲)의 하나로 복원불사를 펼치고 있다. 봉갑사 주지 각원 스님은 "한의원에 이어 오는 4월 봉갑사 불교문화원이 정식으로 개원되면 지역민의 건강은 물론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사랑방이 될것이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수행과 실천' 화두로 하나되는 동문

화엄사 산사체험 참가자 모임 결성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산사체험 참가자들이 수련동문회를 결성했다.

화엄사 수련회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동문 40여명은 지난 2월 25~26일 양일간 화엄사 광학장에서 제1회 수련동문회 법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를 겸한 이번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모임을 정례화(봄,가을 정기모임, 년 2회 유동모임) 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도법사 대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본래 마음자리인 '참 나'를 찾는 이들이 모였으니 모범적인 수행공동체가 되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회장대행으로 선임된 아일선씨는 "인터넷(cafe.daum.net/hwaeomsa)을 통한 온라인 활동은 물론 화엄 선우회와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전개하는 등 실천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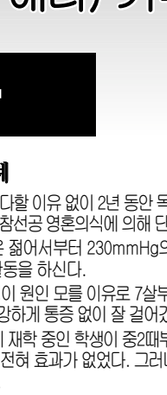


수행공동체 화엄사 '수련동문회' 회원들.

수련회 다음날 참가자들은 곡성 태안사를 참배하고 숲길포행, 섬진강 문화학교 방문 등으로 창립법회를 회향했다.

화엄사는 올해 여름, 겨울 수련회와 주말을 이용한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061)782-7600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전북불교문학회 '다르마' 발간



전북불교문학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2월 18일 전주 시내 모음식점에서 '다르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르마>는 제8호로 소설 3편, 수필 5편, 시 40여 편과 신행한담으로 대행스님의 '마음을 좀 툭 틔어놓고 편안하게 사세요!'가 실렸다. (063)275-4000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5-375-9986
대전충북지사:043-732-5560

재가 화엄학림, 열린 불교강좌

(사)자비신행회 부설 재가 화엄학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월 7일~9일 '희망을 담아가는 열린 불교강좌'를 개설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7일- 화엄학림 학장 재연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진행된다. (062)234-0090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개강일: 2006. 3. 10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도인 양생 비법	칠차원 생명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흥겨운 리듬에 맞춰 "우리는 한마음"



한마음선원-제3군수지원사령부 공동
호국삼마사 '한마음음악제' 성황


삼마부대장병들과 한마음선원 청년들의 한마음음악제는 군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 사진은 청년회 회원들의 빙고댄스 모습.

"불자님들과 우리는 둘이 아닌 한마음입니다."

호국 삼마부대 장병들의 뜨거운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대불교신문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과 제3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 김문조)가 장병들을 위한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생명 사랑 나눔 보시 햇살마루 병영을 위한 호국삼마사 한마음음악제'가 2월 26일 젊은 불자 장병들과 한마음선원 청년회, 신도 등 800여명이 삼마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마음음악제는 상임법사가 없는 가운데 방문지도법사 역할을 해온 안양 한마음선원 청보 스님이 50탄약대대에서 매년 개최해온 선법가(노래를 통한 관법) 경연대회를 올해부터 사령부차원의 행사로 확대하면서 처음 열린 것.

청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손과 마음을 모아 만든 행사"라며 "음악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병들의 가장 큰 환영을 받았던 무대는 역시 '7공주'.

한마음선원 청년회 조서연씨를 비롯한 여법우 7명이 깜직한 '7공주'로 분장, 발랄한 율동으로 장병들의 가슴을 녹였다. 거사림회의 합창, 청년회의 빙고댄스, 난타공연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장병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도 빛났다.

50탄약대대 댄스동아리 '오도방정' 락밴드동아리 '배수로'는 이름부터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기발랄했다. 이날 음악제를 위해 한 달 동안 맹연습에 몰두했다는 이들은 젊은이다운 패기와 용기로 강당안을 뜨겁게 달궜다.

댄스팀 정영준 상병은"조금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긴 하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병들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한마음선원 신도회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공양을 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은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장병들의 흥을 돋구웠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군포교는 '사람방생'의 기회"

interview 제3군수지원사령관 김문조 장군



"젊은 장병들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김문조 장군(사진)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장병들과 함께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한마음음악제 개최에 큰 힘이 되어준 김 사령관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절을 찾아다녔을 만큼 불교와 깊은 인연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고 요즘도 매일 하루 일과를 삼마사 법당에서 예불과 108배로 시작 할 만큼 불심이 깊다.

김 사령관은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운 계기가 된 음악제였다. 불교가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더 좋았다. 그동안 보아왔던 평범한 사찰의 산사음악회보다 몇 배나 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동참 소감을 밝혔다.

또,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불교계의 군포교 활동과 관련한 평소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교구본사 같은 큰 절에서 많은 인원이 동참하는 '방생법회'의 기회가 전국의 군부대에 널려있다. 부모님 같은 보살님, 거사님들이 동참해 장병들이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있겠는가. 군포교는 고귀한 '사람방생'의 기회다. 젊은 장병들이 군에서도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법당에서 찬불가 부르며 군생활에 활력 찾았으면"

군법당에 노래방기기 보급 (주)금영 김홍영 전무



"장병들이 법당에 와서 찬불가를 부르며 군생활에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주관하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찬불가 노래방기기 보급에 동참하고 있는 (주)금영 CEO 김홍영 전무는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찬불가가 일상에서 많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지난해 창작 찬불가를 보급하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와 찬불가 대중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찬불가의 음원을 받아 사내의 음향연구소에서 찬불가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원 변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회 의식곡과 창작 찬불가 등 120여편의 찬불가를 반주 음악으로 변환했다.

"신나는 노래로 신심배가 군생활의 또다른 힘"

"노래방기기에는 엠프와 스피커, 마이크 등이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동이 쉬워서 법회시나 사찰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외에도 신도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찰 노래방을 운영해도 좋을 듯 합니다."

김 전무는 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있었던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풍경소리와 함께 1년여 동안 작업한 120여곡의 찬불가가 (재)보덕학회의 후원으로 6대의 노래방기기에 삽입되어 군법당에 보내지는 뜻 깊은 자리였는데 회사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법당에 웬 노래방기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불자들이 찬불가를 많이 불러야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종교시간만이라도 흥겨운 찬불가를 부르며 신심을 배가하면 힘이 절로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대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장병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군법당에 우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김 전무가 군법당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원찰이 바로 특전사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이기 때문.

천주교 신자였던 김 전무는 우연한 기회에 호국 사자사 군법사였던 김민재 3군단 법사와의 인연으로 지난해부터 매주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호국 사자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 금일봉을 보시하는 등 군법당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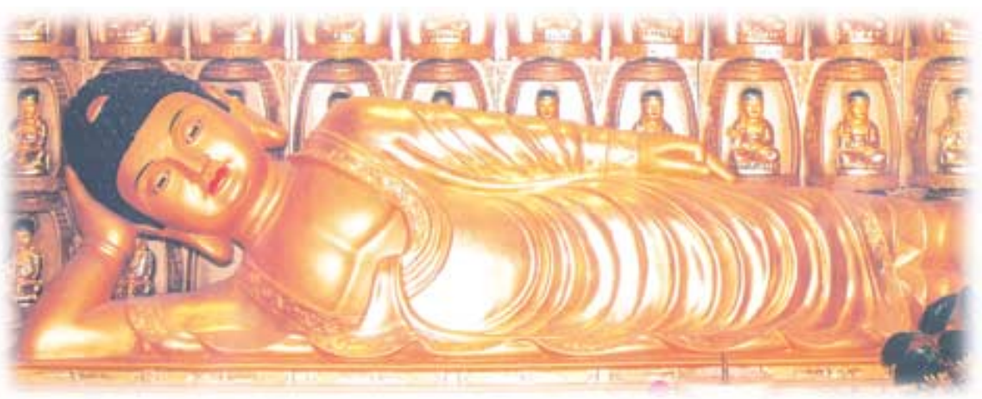
"주말에 법당 가는 것 이외에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서를 구입해 시간나는 대로 읽고 가까운 대원불교대학 같은 교양대학에 등록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김 전무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해서 일반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찬불가를 최대한 반주기기에 삽입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노래방에 찬불가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주)금영은 국내 노래방 반주기기 분야 1위 기업. 현재 전국 노래방 음원제공 뿐만 아니라 CJ 케이블넷 및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다 쉽게 간편하게 노래방을 체험할 수 있는 등 음악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면 되겠죠?”

동국대 불교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미래 동국 100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2006년 동국대 불교대 새내기들이 학부 선배들과 함께 백담사 일주문에서 힘찬 미래를 다짐하며 환호하고 있다.


서로간의 어색함을 털어버린 ‘윤회담’ 놀이.


와선(臥禪). 혹시 너 자고 있니?


어떤게 내 발우야? 어디한번 찾아볼까!


만해 마을 범종앞에서 기념촬영 한 컷.

새내기.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대학 신입생들이 공식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기에 앞서 선배들에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배우는 자리다.

올해 5월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 그래서 올해 신입생들의 의미는 특별하다. 앞으로 동국 100년을 이끌고 나갈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불교대 새내기 50여명이 재학생 40여명과 함께 만해 한용운의 청년 정신과 기개가 살아 숨쉬는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다. 바로 새터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2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불교대 새터 현장에서 만난 새내기들은 어떤 꿈을 꾸며 대학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입학 동기는 달라도 꿈은 같아

새터에 참가하기 위해 2월 24일 이른 아침 동국대 정각원 앞에 모인 새내기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다시 불교대에 입학한 명효 스님은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배워 보고자 올라왔다”고 말했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속에 스님의 각오가 느껴진다. 화엄사에서 출가해 행자 교육원을 마친 우견 스님은 “강원(講院)도 좋지만 종립대에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원했다”고 한다. 은사 스님의 권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머리를 긁적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요가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연이는 “요가와 불교학을 함께 배우기 위해 불교대에 왔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부모님까지 열렬한 불교신자인 범준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불교대에 왔다”며 웃어 보였다.

새터를 위해 급조된 밴드 ‘지방간’을 이끌고 3일 동안 ‘노익장’을 과시한 김승식(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씨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새내기들의 불교대 입학 동기가 더 다양해진 것 같다”며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충분히 동국 100년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견해 한다.

낯선 것에 말 걸기!

약관(弱冠)의 청춘들에게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새터 첫 날도 마찬가지였다. 말 걸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서부터 같이 차를 타고 왔지만 아직도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불교대 학생회 집행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바로 ‘윤회담’. 만해학교 강당에 두 개의 커다란 원을 그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시간이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합장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기 무섭게 다시 징이 울린다. 다른 사람과 또 인사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윤회담 시간이 계속되자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불교대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불교대 최성민(선학3) 학생회장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새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만해마을로 왔는데, 새내기들이 쉽게 선배들과 어우러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숨을 돌렸다.

첫날의 서먹함이 사라지자 둘째 날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만해마을을 깨우는 새벽예불과 명상. 눈은 자꾸 감기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집중해본다. 계속되는 발우공양. 사찰생활에 익숙한 ‘동기 스님’들이 직접 지도해주니 쉽게 이해가 된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는 함께 차를 마시며 피곤함을 물리쳤다.

만 하루가 지나면서 불교에 대한 감(感)을 잡은 새내기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한경이는 “불교의 핵심수행은 선(禪)이라고 하는데, 새벽 참선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중석이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 예불이나 발우공양이 너무 낯설다”며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세희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면 되겠죠?”라며 밝게 웃었다.

불교 미래 우리가 이끈다

차담을 마친 학생들이 만해마을 광장에 다시 모였다. 백담사를 참배하기 위해서다. 만해마을에서 백담사까지는 약 10㎞.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았지만,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은 설악산에는 한기가 남아 있다. 설악산 계곡을 따라 난 비포장길을 3시간 동안 걷고 또 걸으며 학생들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쯤 백담사에 도착했다. 만해마을 공양주 보살과 비구니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학생들은 불교대 불교유적답사회 회원들의 안내로 백담사 구석구석을 돌아본다. 일주문과 수심교, 금강문을 지나 범종루, 극락보전, 나한전까지 둘러봤다.

그리고 경내 곳곳에 남아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흔적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만해 스님의 흉상 앞에서 동기들과 포즈를 취하던 승길이는 “만해 스님이 머물던 곳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동국대가 종립대인 만큼 열심히 불교학을 공부해 만해 스님과 같은 일꾼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백담사를 둘러보고 만해마을로 돌아온 새내기들은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선배들의 공연을 보며 숨어 있던 끼를 맘껏 발산했다.

그리고 3월 초 개강 즈음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보다 더 멀리 뛰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비는 동국대 불교대 새내기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인제/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새내기 50명 선배 40명 참가… ‘윤회담’으로 서먹함 와르르
백담사까지 10㎞ 걸어, “만해 스님 같은 일꾼 되겠다” 다짐


만해기념관을 둘러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새내기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문화원형은 디지털 콘텐츠 보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가칭)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3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한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세미나'에서 전 신씨네 마케팅 담당 박성우씨가 이같이 주장해 화제다.

박씨는 '불교전통문화 콘텐츠 마케팅 & 산업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왕의 남자의 경우 원작이 있지만 영화로 제작될 때는 프로듀서가 재가공해 역대 관객 동원 2위를 기록하게 됐다"며 "불교의 문화원형이 재가공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이 중요한 만큼 가칭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연구원을 설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씨는 또 불교문화원형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 프로그램 구축, 불교계 내부와 외부전문인력 네트워크화, 불교문화의 상업적 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콘텐츠 개발, 산업화 추진 초기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유동환 겸임교수도 '문화산업시대의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불교문화는 1700년을 이어온 우리문화의 보고이자 불교라는 종교의 신앙대상이지만 21세기에는 첨단 문화산업의 디지털콘텐츠로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이라며 "그동안은 불교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해 영구보존을 위한 보존 가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콘텐츠화해 대중화, 산업화를 통하여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문화경제시대 한국불교전통문화의 자산적 가치와 보존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은 저작권법적으로 볼때 관리자에 의한 독점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공재지만 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가공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원형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장

박성우 "개발연구원 설립" 주장 눈길
유동환 "원형 대중화로 가치 높여야"
김재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김봉석 "불교계 참여 제도적장치 절실"

를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스님들의 실연 또는 초상권 및 법문 등은 저작권이 발생함으로 불교계에서도 향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원형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이 가져오는 고용 및 경제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 경영학부 김재범 교수는 "미국은 역사가 짧고 문화원형의 자원도 없지만 허리우드가 성공하는 이유는 세계인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재 가공되기 때문"이라며 "불교를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세계화석호 겸임교수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서비스'라는 주제 논문에서 '선 U-City'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고 광운대 이승현 교수가 '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3D및 4D 제작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불교문화원형이 어떻게 디지털콘텐츠화가 되는지를 보여주어 화제를 모았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봉석 조계종 법무전문팀장이 "완성된 디지털콘텐츠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스토리텔링이 정확해야 하고 관련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는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원형 사업에서 불교관련 콘텐츠의 경우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문화관광위 이미경 위원장, 열린우리당 윤원호, 김재윤, 이영호, 김춘진, 한나라당 정병국, 박찬숙, 박형준 의원, 신임 문화관광부 김장실 종무실장 등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교문화원형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불교의원 모임인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 인사말에서 "문화원형사업이 2002년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불교문화원형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내년부터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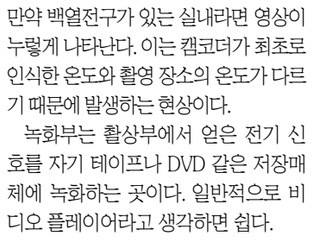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 현고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불교계 입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는 물질과 경제 중심에서 정신과 문화중심시대, 자본과 기술 중심 산업시대에서 지식 · 정보 · 감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다"며 "조계종에서는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제공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불교문화 대중화를 통해 단절된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3

렌즈가 좋아야 화질 선명

디지털 캠코더의 구조 바로 알기



좋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캠코더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캠코더는 크게 렌즈부(Lens), 촬상부(Prism), 녹화부(Record) 등 세부분으로 나뉜다. 렌즈부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렌즈는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로 구분된다. 표준렌즈는 촬영 각도가 46도인 렌즈로 피사체를 육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광각렌즈는 촬영 각도가 60도로 표준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다. 넓은 시야를 촬영할 때나 원경에서 근경에 이르는 모든 범위를 선명하게 묘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망원렌즈는 촬영 각도가 15도 이하로 멀리 있는 사물을 좀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렌즈의 안쪽에는 조리개라는 것이 있는데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여 렌즈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리개를 제어하는 조리개 조절 양은 단계적으로 숫자 앞에 F를 붙여 F1.4, 4, F2, F5, 6, F8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많은 빛을 받아들려 셔터와 함께 노출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촬영하려는 피사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셔터 스피드는 빛이 필름에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동작이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높을수록 정확한 촬영이 가능하다.

촬상부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형상을 촬상판(CCD, Charge Coupled Device)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영상 신호가 녹화부로 이동하기 전단계로 화질을 결정하게 된다. 촬상부는 촬상판, 게인(Gain), 색온도(White Balance)로 구성된다.

촬상판은 렌즈에서 얻은 피사체의 형상을 모아두는 곳이다. 따라서 촬상판에서 지원하는 화소수에 따라 영상의 화질이 달라진다.

게인은 렌즈로 들어온 피사체 밝기를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db로 표기되는 게인의 수치가 높을수록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게인의 수치를 높여 영상을 강제로 밝게 만들면 화질이 다소 거칠어질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색온도는 캠코더가 피사체의 색상을 빛의 온도로 인식하는 장치다. 예를들어 캠코더의 색온도를 3000캘빈도에 맞춰놓고 형광등이 있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 영상이 대체로 파란색을 띄게 된다. 만약 백열전구가 있는 실내라면 영상이 누렇게 나타난다. 이는 캠코더가 최초로 인식한 온도와 촬영 장소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녹화부는 촬상부에서 얻은 전기 신호를 자기 테이프나 DVD 같은 저장매체에 녹화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쉽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자단향

오랜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인 고급 선향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 규격: 85×160×32
- 무게: 130g
- 주재료: 자단, 백단, 천연솔향

가격: 8000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부채,병풍
▶각종 보시용 선물용 봉안식용
▶전화주문(작업후 등기속달)
안동하회마을입구
연꽃화가 018-588-5698

사랑골 절 금용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011-261-4405

포교당할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50~60대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이나 법사로서 불사를 꼭 하고 싶은 분
◆ 지방의 포교당을 운영상 서울로 이전하고 싶은 50~60대의 비구니스님이나 불 보살님
장소 : 구로디지털공단역 주변
문의처 019-321-3954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합니다
02)917-3363(서울정릉)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스님)
052)298-9911

천년고찰 선원에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비슬산
053)614-9167

사찰(女)사무원 모십니다
(45세 이하)
041)673-2333
대한불교조계종사찰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355-9290

50세이상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부전스님 구합니다
(조계종스님에 한함)
051)635-3743
011-9517-5017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한 분.보시80만원)
▷위치 : 강남구청역
010-5541-656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불심돈독하고 PC가능한 45세 이하 女경리보살 구합니다
▷숙식가능
경북 경주 왕릉사원
017-531-7770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0-2505-7492

양봉하는 스님입니다. 빈 토굴이나 빈 사찰, 인연 기다립니다.
(부전도 가능)
010-6399-75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김포 위치
011-688-6625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60대)
011-259-5989

천년고찰 선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2)282-9270
042)282-7188

공양주 보조할분 구합니다
마음 착하고 각오가 되 있는분 전화주세요
▷월보시 60만원. 50~68세
054)452-0845
011-539-0845

출가21년 비구승입니다
도심사찰이나 포교당 주지 원합니다
성심껏 운영하겠습니다
010-8364-0408

사찰을 운영하실 수 있는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010-3138-48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금해 무척산
055)337-9488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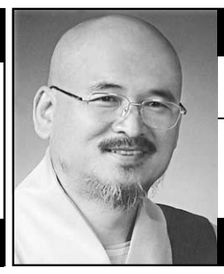
프로폴리스 (세계적인 명물)
프로폴리스는 모든 인체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승이 직접 벌에서 채취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뛰어난 항균 항산화를 작용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건강기능 양봉원 성구 합장 010-2779-2237

실버타운 소원성취 기도처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
저렴한 보시금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십니다
주지 법사 010-9367-5982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법화의식 무료로 배우실분
- 대 상 : 스님 (예비스님)
- 기 간 : 3월6일 - 4월30일까지 5명 선착순, 숙식제공
- 지참물 : 가사, 장삼(일용품등)
- 장 소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대한불교 묘법연화종 총무원 묘법정사(연화불교대학)
055)263-4984, 010-8009-1020
묘법연화경강의중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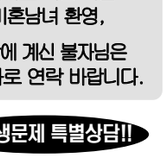
봉은불교미술원 - 탱화·벽화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관음탱(천수천안) 감로탱 지옥탱 오백나한탱
산신탱 독성탱 종합탱 홍탱화 먹탱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번지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불모 오 재 택
(300여개의 작품사진이 전시되 있습니다)

학인 모집
불광사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통도소리 · 작법무 교육본산
전통의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통도사 작법무(바라춤 · 나비춤)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 과		내 용	교 수 진	강의일시
경전교리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교수 : 선과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통의식	작법무과 (1년과정)	통도바라춤 통도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영선 무용단 단장) 조교 : 무혜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범패학과 (2년과정)	시련 · 삼신이운 헌공 · 49재 및 전통교육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교 : 지오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특전
-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분은 장학생(무료)으로 지원하여 줍니다.
- 본교생이 만약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숙식과 교육에 전액무료임.

◆개강식 일시: 2006년 3월 16일 오후2시
※행자 수시 모집
◆문 의 : ☎ 055)364-4747, 4848
◆장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통도소리 · 작법무교육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계
● 법당 : 19평
● 요사 : 50평
● 부지 : 약20,000평
● 가액 : 15억
● 전통사찰 가능 대상 지역으로 (즉시법회가능)

● 위치 : 경남 울산
● 법당및요사 : 160평
● 부지 : 97평
● 가액 : 9억 (융자2억5천포함)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76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방10개)
● 저수지 부근, 계곡 좋음
● 가액: 3억5천5백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5백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016-9301-3575
042)585-3573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있음
●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적합

010-5631-8439
017-401-493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시장 대형마트 2층, 교통 최요지 지하철2분, 버스2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평수 60평
● 시설A급 방2개, 시설비 無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물세포함) 시설비 답사후절충

051)507-7555

● 위치 : 수원시내
● 종교부지 : 130평
● 법당 : 18평(목조)
● 요사 : 25평
● 가액 : 2억9천 (융자 1억6천 별도)

● 위치 : 부산
● 대지 : 50평
● 법당 : 4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억 8천 (융자 1억5천 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급)밀양사찰 얼음골 부근

● 대지: 512평, 건평 100평 법당 뒤 대밭있고
●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대지전체 둘레 돌담 황토방처럼 전체 수리되있음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실내 목욕탕 실외화장실2개 황토집 2채, 옛날 독 100점 포함
● 마을 앞뒤가 트여서 전망좋음
※ 비구니, 보살님, 노스님 아주 적합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 011-9512-5118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 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국립공원내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내 소재
● 부지 : 52,000평
● 가액 : 5억
● 내용 : 제1월광폭포, 제2월광폭포가 52,000평 안에 소재함

연락처 010-7559-255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진면
● 법당 30평,대지 202평
● 산신각: 10평 창고8평, 요사채26평 조립식 건물
● 가액: 7천5백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31)534-1158
019-335-082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 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도심속의 포교원

● 60평의 포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 비구, 비구니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 위치 최상, 교통최상(남포동)
● 평수 : 60평, 법당24평, 방3개, 접견실 2개 (옥상전체 사용)
한옥식, 게르마늄 온돌방
● 가액 : 보증금 3천5백만원 (시설비 별도 협의)

011-9193-2351
010-8678-544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은행 백화점 부근
● 2,3층 전형 평수40~50평, 기타 생활 가능
● 가액:보증금 2천9백만원 월 20만원

010-7135-4030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부근
● 2층, 건물 40평 중 법당 20평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500만원 35만원

010-6433-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사찰)
● 대지: 150평
● 건물: 30평(건물2동)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 가액: 6500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터안내

● 위치: 남안동IC 5분
● 임야: 13만평
● 평당: 4000원
● 관리지역 8400평, 농림지역
● 평지다수 산중도로양호 골재석 매장 다수

011-351-3264(주.야)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선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 40평
● 시설: 법당 삼존불, 탱화4점 방2칸 부엌1칸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542-105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11-827-819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범어사 입구 3층
● 평수: 50평
● 삼존불 산신 용궁후불 신중후불,큰방2, 작은방1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1-9556-8413

암자안내

● 위치:포천 대진대학교 10분거리
● 대지 200평중 55~60평은 법당 공양간 요사채 방5개
● 가액:전세 3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주차장 有

010-5575-3900
031)536-1578

토굴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 평수: 412평
● 시설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주차시설있음
● 가액: 9천만원

055)673-5234

사찰안내

● 위치: 동해안 명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 사찰부지: 종교부지등 2300평 사용중
● 대중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삼포건물
● 1층건물: 현대식 스라브건물 요사채 방4
● 2층건물: 1층 황토방3 공양간, 2층회관
● 사찰도로 포장된 진입로 2 주차장 완비
● 공익법인 부임관계로 장기전세 가능함

010-3660-2867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전원주택 스틸하우스, 신축 1년
● 대지 105평 건평 17평
● 방2개, 거실, 욕실, 부엌 다용도실
● 공기좋고 조용함 토굴, 휴양적합
● 가액: 3960만원

010-6483-5609

암자안내

● 위치: 경남지역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2500만원
● 사주 볼 수있는 비구스님 50~60세초

010-6771-1748

사찰이나 별장(터) 안내

● 위치 : 합천 항내산 부근 도로옆 야산
● 평수 : 840평
● 가액 : 2천5백만원

055)933-9996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내 ● 법당: 약 40평
● 삼존불: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 보현 ● 탱화
● 요사: 대형방 주방 창고 기타편의시설
● 가액: 일억일천만원. 월세인경우: 보증금 오백만원. 시설비 오백만원, 월세 사십만원
● 특징: 인근 대형 재래시장 및 백화점이 있고 인구 밀집지역임, 교통편리지역 버스터미널 5분 거리등 포교당으로서 최적지임

사찰정보센터 금강기획
※영업안내 : 사찰 양도 양수, 법회 법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알선
02)736-3578~9/011-789-2255/011-279-3538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250평, 건평75평
구조 : 법당,요사,창고
ㄱ자 형, 현대식 건물
● 산좌 수려,기도도량 최적지 아파트개발 예정지 근처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 가액 : 2억 2천만원
※女행자 모집합니다

011-606-1976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내 도로변
● 법당 : 2층중2층 22평
요사채: 옥상 9평
삼존불, 집기류 일체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절충

052)292-3131
017-841-4869

사찰안내

● 위치: 성북구 장위동
● 삼존불 108부처,영단 인등 방2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888-0130

포교원 안내

● 위치: 성남시 모란시장 상가지역
● 평수: 약 40평 4층 (옥상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상담후결정

031)756-2032~3
011-9637-453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019-503-795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2~3층 각 35평
● 모든시설 완비
● 가액: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167-177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내당동 아파트밀집지역
● 4층건물 3층
● 평수: 법당 40평 요사채 방2개 부엌 주방 욕실 창고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2757-2342

토굴안내

● 위치: 강원 영월 중동면 녹전리
● 대지 100평, 전 800평 건평 23평, 3월 준공한 신축건물
● 심야전기보일러, 현대식시설, 조경완료
● 산세 수려한 천하절경으로 수행터 또는 별장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33-398-0327
010-3464-03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면적 : 45평(1층)
● 법당 : 22평 (삼존불,단청,각단탱화)
● 특징 : 서구청대로변, 냉난방, 친견실, 방
●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월60만원

053)535-4963
010-3153-94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관음동
● 건물 : 상가 150평 (2층 주택20평)
● 인구밀접지역으로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100만원
매매도 가능 4억(융자2억포함)

053)981-8889
011-507-77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 동아백화점 네오시티스포츠센터 칠곡 3지구 700m
●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중
지하 60평 2천만원/월60만원
2층 60평 2천만원/월100만원
5층 57평 2천만원/월60만원

053)751-8982
011-528-287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앞
● 평수: 40평
● 시설 일체완비 각단탱화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4846-519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찰(급)안내

49재 등 각종 행사 해 드립니다.
(의식전문,부전스님,공양주,사찰사찰터,토지,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계양, 상가2층 38평
● 법당: 18평, 요사: 2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전국 어디든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삼보전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삼 보 불 사
011-9769-8868
02)736-4589

“원문 충실 · 이해도 높아야 좋은 번역”

이해 쉬운 역경체 개발 가치 높아

 # 중국의 경전 번역 체계

박상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중국의 역경사는 번역가를 중심으로 구분되며 구마라습 이전의 고역, 구마라습 이후부터 현장 이전까지를 구역, 현장 이후의 신역으로 나뉜다. 특히 신역(수 · 당 · 송나라)시기는 역경사업의 전성기로 양 ·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때라고 볼 수 있다.

<개원석교록>에 의하면 이 시기 동안에 경전 272부 2159여권이 번역됐으며 이로써 경율론의 번역이 거의 완성되었다. 당대의 번역가로는 현장 · 의정 · 불공을 들 수 있다.

남북조 시대에는 역경원 제도가 만들어졌고 9가지 번역관(필수: 범어와 한문에 능통한 역경사, 윤필: 한역본 문장을 부드럽게 손질하는 번역사, 교감: 번역 경전의 감수 등)의 직위가 마련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전번역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번역문의 충실성과 외래어 음역 규칙, 역자의 수양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총 정리했으며 중국어와 범문을 결합하고 운문과 산문을 혼용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역경체를 개발한 점은 번역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경전硏 ‘세계 각국의 경전 번역 실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요지

‘가장 이상적인 경전번역은 어떤 것인가?’ ‘널리 읽히기 위한 경전번역인가 역경사업을 위한 번역인가?’ 경전연구소(이사장 돈연)는 우리나라의 경전번역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2월 25일 ‘세계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를 파악해 우리의 역경시스템을 점검하고 역경사업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학술발표회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발표자들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해도가 높은 번역이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붓다자얀띠판, 학문적 용도로 활용

 # 스리랑카의 경전번역 실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스리랑카 경전번역의 출발점은 <팔리 삼장>의 싱할리 번역과 출판을 목적으로 1965년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스리랑카 불자회의’의 설립부터다.

스리랑카 불자회의는 <팔리 삼장>의 역경작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역경분량을 설정하면 개별번역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다시 편집위원회와 편집대표가 심의 한 후 최고 편집위원회에 보고 후 출판하는 시스템으로 번역작업은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팔리어에 능통한 스님들이 <팔리 삼장>을 싱할리로 번역하는데 33년 이라는 긴 경전번역 시간이 소요됐다.

<팔리 삼장>의 번역본인 붓다자얀띠판은 한쪽 면에는 팔리 원전을 다른 한쪽 면에는 싱할리 번역본을 동시에 담고 있어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번역의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왕실 지지 속 엘리트 중심으로 전개

 # 티베트의 경전번역 체계

안성두 (금강대학교 국제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티베트의 경전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엘리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학문적 번역이다.

티베트에서의 범어불전 번역은 약 700년 이후로 보며 13세기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범어불전의 번역과정은 크게 초기전기파시기(8세기 말~9세기 중순)와 후기전기파시기(11세기 초~14세기), 고전적 체계화시기(14~16세기), 후기고전파시기(16세기 이후)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전번역의 전성기는 초기전기파기와 후기전기파기로 보는 것이 유력설이며 초기전기파(8세기 말~9세기 중순)시기는 주로 유가행 중관파와 자립행 중관파의 논서가 번역됐고 후기전기파시기(11세기 초~14세기)는 자립행파와 귀류파 문헌의 번역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티베트어 구문의 특성상 범어의 티베트어 번역은 비교적 원문에 가깝께 역경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티베트 경전번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영어권 국가 불교연구의 기초자료

 # 영국의 경전번역 실태

황순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영국의 불교경전 번역사업의 핵은 1881년 리즈 데이비스에 의해 창립된 ‘팔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다.

1914년까지 23판을 찍은 그의 저서 <불교>는 영국에서 최초로 팔리어 경전들을 근거로 쓰여 졌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이 협회는 팔리어 경전, 논서류, 주석서류, 역사서를 포함해 거의 모든 팔리어 문헌을 모으고 편집해 로마자와 특수문자를 조합하는 형태로 출판하고 각각의 출판물에 대한 영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팔리 경전의 편집과 번역 작업은 개인에 의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조지 터너의 <마하밤사>, 로버트 실더스의 <대반열반경> 등이 그것. 이 협회의 출판물은 연구용 자료로 초점이 맞춰서 출간됐다는데 한계가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다.

현재 이 협회는 그 동안 출간했던 책들을 개정 · 증보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중서와 전문서 명확히 구분

 # 미국의 경전번역 실태

심재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경전 번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번역의 다양성, 실용성, 실험성이다. 즉 일반인을 위한 경전번역 출판물과 학자를 위한 경전번역 출판물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

미국의 번역사는 1950년대를 전후한 젠붐(Zen Boom)과 1960년대 티베트 승려들에 의한 티베트 불교 경전의 번역기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전번역협회는 ‘BDK(Bukkyo Dendo Kyokai, 불교전도협회)’로 <대정신수대장경> 번역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 협회는 1992년까지 역자들로부터 1차분 139권 가운데 45권의 번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책명이나 한역자의 명칭을 영자로만 표기해 원래의 한문경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불교전문용어를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협회 못지않게 개인이나 출판사들도 활발한 경전 번역을 하고 있다. 토마스 클러리의 <화엄경>, 스키즈의 <유마경>, 프란시스 쿡의 <유식론서> 등이 그것이다.

정리=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2>

골프와 명상

현대불교신문 제565호에는 타이거 우즈의 탁월한 골프실력의 비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그 비결은 명상 습관에 있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 어머니가 태국 태생이고, 태국이 불교 국가이므로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리라는 짐작은 가능했지만 명상이 습관화 돼 있다는 것은 다소 놀라웠다.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운동경기인 경우 불교에서 배운 명상이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 골프계의 성장은 눈부시다. 골프장과 골프인구의 증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관련분야 시장규모가 커졌다.

또한 한국 여성 프로골퍼들은 세계대회를 휩쓸고 있다. 5년전만 하더라도 사치로 여겨지던 운동이 서서히 대중화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프의 인기는 대단하다.

‘골프과학’의 발전도 눈부시다. 공기의 저항을 뚫고 안정된 탄도를 가지기 위해서 공의 표면을 보조개(이를 딤플이라고 한다)처럼 만드는 데 이것이 공기분자에 충돌하면서 골프공만이 가지는 놀라운 거리와 궤도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공을 일정하게 맞추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골퍼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프 헤드는 원 운동(스윙)을 해야 하고, 손과 몸은 이 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마치 줄에 포환을 매어 돌릴 때처럼, 골프 클럽의 스윙은 클럽헤드가 가장 큰 원운동으로 공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골프가 어려운 운동인 이유이다.

가만히 있는 공을 맞추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아니 밥 먹듯이 골프만 치는 타이거 우즈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골프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다. 보통 공을 치기 전, 2~3회 연습 스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연습 스윙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막상 공 앞에서

공치기 전 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은 큰 차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 다른 것은 탐진치 때문

자신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호랑이에게 쫓기듯 서두르는 사람, 너무 힘을 주어서 공을 친 후 비틀거리는 사람, 땅을 쳐버리는 사람 등 수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골프 스윙에 인생이 담겨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를 했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치면 탐 · 진 · 치에 의해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불교의 선이 우리의 업(경향성)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듯이, 골프라는 운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아니 골프의 스윙에서 오래된 자신의 업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야 말로 골프를 즐기는 불자의 모습이여야 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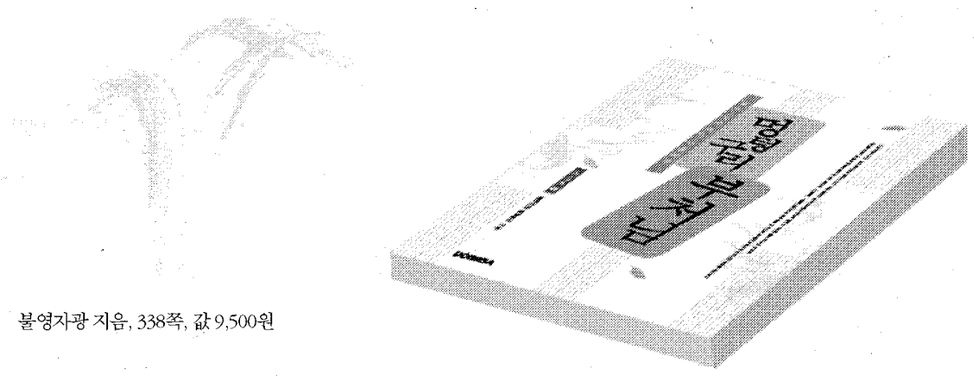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멍텅구리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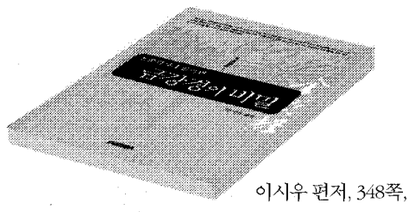


불영자광 지음, 338쪽, 값 9,500원

스승이 군대 가라 한다고 이미 제대하고도 또 입대한 멍텅구리 자광스님!
그 멍텅구리 스님은 말한다.
“나만 멍텅구리인가? 아름다운 비빈들과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은 부처님도 멍텅구리다. 또 엄청난 재물을 보시하고 탑과 절을 지어주겠다는 양무제를 물리치고 도적 떼가 들끓는 숭산 골짜기로 들어가 9년 간 면벽한 달마조사도 멍텅구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묻는다. “내가 멍텅구리인가, 그대들이 멍텅구리인가?”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금강경을 금강경으로 보지말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금강경을 보라!



이시우 편저, 348쪽, 값 13,000원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낸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의 정회원인 이시우 박사가 세존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신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금강경 안에 비장(秘藏)된 연기의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금강경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天之道]를 설한 불교를 대표하는 경이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인간의 도만 설명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하늘의 도[天文學]와 인간의 도를 최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내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 뿌리라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한시 바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마 인류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티베트금강경

까 말 라 쉴 라 의 金 剛 經 廣 釋

저 거대한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고도 마음놓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물리적인 힘보다 앞선 것은 정신력이고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붓다 세존의 정안(正眼)이며 불법의 핵심이다. 북전(北傳) 대장경 가운데서 금강경만큼 널리 읽히는 경도 없다.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인도 나란다 대학의 뛰어난 학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까말라쉴라 존자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본다.
(그동안 「티베트대장경」 속에 은밀히 간직돼 있던 이 책을 티베트불교학자 양승규 박사가 오랜 노력 끝에 처음으로 완역하였고, 책이름은 티베트대장경 안에 있는 금강경이라는 뜻을 줄여 '티베트금강경'이라고 했습니다.)

• · 양승규 역 225쪽 값 9,000원

“독서는 깨달음의 길”의 도서출판
DOPIANSA 도피안사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 Homepage | http://dopiansa.or.kr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다원본도량, 도서출판 도피안사에서 펴낸 이 책들을 30권 이상 구입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일 주 문



백고좌법회서 법문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3월 15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 백고좌법회에서 법문한다.(033)661-5736



불교와 상담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은 2월 25~26일 봉은사 시민선원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진행으로 제1회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 부총장에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택 교수가 3월 1일자로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임명됐다.



'참 나를 찾아…' 강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3월 6일 광주 덕림사에서 개최되는 명사 초청법회에 참석해 '참 나를 찾아가는 길'을 주제로 강의했다.



'…봄 문학 그림전' 개최

오세영 시인은 동명의 오세영 화백과 '바이러스로 침투하는 봄 문학 그림전'을 3월 1~7일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전국여성위원장에 선출

열린우리당 불자모임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이 2월 27일 전국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재추대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2월 28일 크라운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정기총회에서 9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제21대 부산불교신도회장에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2월 27일 코리아나부페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21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창회장 취임

불교미술원 김성호 대표는 3월 16일 오후 5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02)733-4800



첫시집 발간 출판기념 모임

<불교문예> 편집위원 문숙 시인은 첫 시집 '단추'를 내고 3월 11일 오후 7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판 기념모임을 갖는다. (02)720-1991

"나의 전생은 항일독립군이었습니다"

현각 스님 도피안사 3·1절 기념법회서 강연
애국가와의 인연, 숭산 스님 가르침 등 회고



<만행>으로 널리 알려진 현각 스님의 전생은 어땠을까?

현각 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 · 사진) 자신은 '항일 독립군'이었다고 믿는다. 스승인 숭산 스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월 1일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마련한 '제87주년 3·1국경절, 스님의 날 기념법회'에 초청된 현각 스님은 300여명의 불자들 앞에서 애국가에 얽힌 경험담을 풀어 놓았다.

"출가하기 전, 불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나는 한국불교와 중국 일본불교가 같은 것으로 알았어요. 어느 날 선에 대한 책을 읽다가 수행체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가까운(승용차로 20분 거리) 곳에 있는 선 센터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선 센터 앞에서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 갈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어 괴로워 하다가 더 먼 곳(승용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선 센터를 찾아 갔는데 거기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열심히 했습니다.

1991년 2월이었습니다. 재가자의 몸으로 계룡산 신원사에서 결제를 마친 뒤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는 스님의 방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억제할 수 없이 많이.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출가한 후 서울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지도를 하며 지낼 때였어요. 학교 식당에서 TV를 봤는데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국립박물관을 반드시 가는데 나는 그 건물에 들어갈 기회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또 음악이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려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경주 남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100일 정진을 했는데 식사는 근처 농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밥을 해 주시던 할머니는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 건넌방에서 TV를 보곤 했는데 가끔 TV에서 또 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다말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지요. 나중에 스승이신 숭산 스님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나는 왜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여쭈었습니다. 스승께서는 '너는 항일독립군이었는데 일본인들에게 총을 맞으면서 부강한 나라에 태어나 한국을 돕길 발원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처음 일본인이 운영하는 선 센터에 들어갈 수 없었고 조선총독부였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들어가기 싫었던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안성=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만해 NGO교육센터 개관



NGO 단체를 위한 교육센터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 회관 내에 최첨단 미디어 시설을 갖춘 만해 NGO 교육센터를 2월 25일 개관했다.

교육센터는 총 139평으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교육장과 숙식 시설을 갖춘 콘도형 소교육장, 휴게 공간 및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최신형 빔 프로젝트, 실물화상기, 핀보드, 슬라이딩 그린보드 등 교육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와 대형 PDP, 실시간 DVD녹화 시스템 등을 갖춰 실무교육과 기자회견이 가능하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앞으로 교육센터를 통해 NGO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NGO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중앙신도회 조불련에 물품지원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24일 중국 단동에서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소속 조불련 전국신도회에 물품을 지원했다. 남한 불교계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물품지원에서는 방한복 2000벌, 온풍기 3대, 냉동냉장고 1대 등의 생필품이 전달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3·1절 행사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2월 28일 100여 명의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과 함께 3·1절 행사를 거행했다.

오전 10시에 태극기 게양식과 함께 시작한 이날 행사는 실향민합창단의 3·1절 기념노래공연과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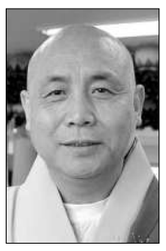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졸업법회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는 3월 1일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과 공군사관생도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범불자생도상에 현인선 구태희 서학삼 생도 등이 선정됐으며, 보문회와 천태종 관문사 금불회 등이 불자생도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초전법륜지 자긍심 문화 콘텐츠로…"

김해불교사암련 7대 회장 성남 스님



"김해가 불교의 초전법륜지라는 자긍심이 높고 민중불교의 저력이 살아 숨쉬는 곳인 만큼 불교의 풍성한 문화 컨텐츠로 시민과 불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23일 김해 가야불교문화원에서 가야불교문화원 2대 이사장과 김해불교사암연합회 7대 회장에 취임한 성남 스님(김해 자인사 주지 · 사진)은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가락문화제전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가야불교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쏟아왔던 스님은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지역에서만 포교활동을 해온 김해 토박이.

평소 복지와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갖고 가야대학교 복지학과, 아동학과를 전공한 스님은 가야불교문화원내 어린이집 운영, 산악회, 봉사단, 합창단 등 조직을 통한 포교와 봉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달마도 바른 이해의 공간 마련

달마도 전문 갤러리 '선화원' 연 황신규 교수



"선(禪) 미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달마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달마도 전문 갤러리 선화원(禪畵院)을 개원한 황신규(56 · 금산 · 사진) 동의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달마도에 대한 몰이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안타까워 갤러리를 열었다"고 한다.

황교수는 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달마도를 그려왔고 또 달마도를 일반인들에게 보시해온 장본인이다. 그러나 황교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달마도이고 달마도는 곧 선의 목적을 담고 있는 그림임에도 선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마도를 '기'가 나오는 그림쯤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달마도를 통해 선에 대한 이해와 수행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마도를 통한 선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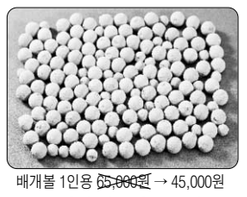
황교수는 4월 21~30일 금정문화회관에서 달마도 전시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051)516-7848 **천미희 기자**

건국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범음 · 범패 (梵音 · 梵唄) 평염불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까지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간단한 불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3시 ◆ 입학식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수업시간 : 첫째주 토요일 – 2학년 (오후 3시부터 – 5시 30분까지)
둘째주 토요일 – 1학년 (오후 3시부터 – 6시까지), 통신생 포함
특수 상좌들 각배, 영상반 목요일 (오후 3시 부터 – 5시 30분까지)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 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모집 교육
● 내용 : 오후 2시 : 입회식 및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 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징, 목탁, 요령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전편)교육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 준비물 : 가사장삼(스님일 경우), 필기도구, 녹음기, 일반 불자 평상복
▷ 숙식제공 포함 교육비 2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 대학에 있음 (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한국불교 광주 · 전남 종무원 의전국장으로서 이번 교육을 태고종 스님들에 한해서 특별 무료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영 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성문화와 여성인권

1994년 1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증가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끊임없는 대책요구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제정은 여성들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여성의 국회참여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및 집행은 거의 남성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제정에 대한 남성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그들의 평등의식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연희 국회의원 여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은 그 가해자가 바로 국회의원이자 국가의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법사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지위의 경중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나 이번 사건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가해자의 가부장적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이중적인 편견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중(醉中)의 일로 여기면서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름다운 꽃만지고 싶은 것이 순리이며 또한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일탈적 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성들 간에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노골적인 성적 행동도 지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이번 사건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알고 실수했다'는 그의 변명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덕녀/악녀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찍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정숙한 여성을 덕녀로 놓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악녀로 여기면서 놀이의 상대로 삼았다. 남성중심의 잣대에 의한 여성들의 구분/ 분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낡은 과거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즉 21세기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모토가 무색하게 남성의식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보호와 함께 일부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비하의식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남성들의 성문화는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 뉴스의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피해여성의 삶에 가해진 폭력성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지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성희롱예방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여성인권과 여성평등,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인간이여, 이를 알아라.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 죄악이니 탐욕과 바르지 못함(不正)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탑에 웬 십자형 문양인가. 불탑과 십자가는 촌수가 맞지 않아도 한참 거리가 먼 관계이다. 전국 도처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들, 정부는 그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철책과 같은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관심 있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예컨대 안동 신세동7층 전탑을 가 보라. 많지도 않은 우리의 전탑 가운데 하나인 그 탑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의 문양은 바로 십자형이 아닌가.

문화재 보호정책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족 유산이자 인류 유산인 문화재는 한 점의 훼손 없이 후세로 물려주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의 제일 원칙은 조성 당시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상이 사찰을 떠나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서 전시품으로 성격 전환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문화재는 그 자신만이 아닌 놓여져 있는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호각이나 보호대 때문에 시각현실을 변형시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문화재 보호장치 '체계화' 필요

보호장치는 차선책이다. 그렇다면 규모의 최소화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문화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보호장치 때문에 사진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문화재와 너무 가까이 서 있거나, 위압적으로 장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을 가리고 있어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을 수 없다면, 이는 문화재 사랑하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어차피 있어야 할 문화재 보호장치라면 보다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절실하다. 문화재 보존의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에 보호장치와 연관되어 특정 규정이나 예산 혹은 담당자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무부처에서조차 보호장치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소홀히 하다 보니 불탑에 십자가 모양의 철책이 범람하는 것이다. 성보문화재의 보호 장치를 시공할 때는 불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화재의 안내판을 보다 현대감각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문화재 해설의 내용도 문제점이 많다고 늘 지적 받는 사항의 하나로 되었었는데, 차제에 보호장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 윤범모(미술평론가)

이렇게 들었다 지도층의 '예의'

세상 사람들 들어 아는 것이 없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하필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가. 〈법구경〉

정치권이 시끄럽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으로 떠들썩하더니 이제는 이해찬 총리의 3 · 1절 골프파동으로 소란스럽다. 철도파업 첫날인 3월 1일, 지방까지 내려가 골프를 즐긴 것이 화근이다.

이 총리의 골프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때 희생자 조문 직전에 골프 모임을 가져 논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때도 그는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국가 중대사가 발발할 때마다 그는 골프장에 있었고, 국정을 총괄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쯤이면 도가 지나치다.

두 사건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더욱 국민들이 분개하는 까닭은 이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행태다. 여당과 야당에게 진지한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전투구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 대한 존경심, 두려움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자〉 '덕경'에는 도(道)가 사라지면, 덕(德)이 강조되고 덕마저 힘을 잃으면 인(仁)이, 인이 무력해지면 의(義)가, 다음에는 예(禮)가 등장한다는 통찰이 제시돼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지도층'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사회가 기대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지방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정치인들에게 인과법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을까.

■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중요

각 종단이 복지의 전문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이지 못했던 불교사회복지활동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을 복지현장으로 끌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다. 현재 불교복지시설은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계종 복지시설 종사자만 1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리 높지 않다. 노동시간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훨씬 많지만, 급여는 턱없이 적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종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불교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김용환(서울시 중구 장충동)

종교부터 상생과 화합 이룰 때

나는 요즘 서울시내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진풍경(?)을 본다.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것. 그들은 왜 상대방의 종교, 또는 교파를 존중하지 않고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걸까? 이런 행위는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인들에게 종교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종의 공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간이 선택한 종교는 진리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다. 종교 자체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가끔 이 원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교계가 적극적인 포교보다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랑과 마음의 포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서로 종교가 다른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가 종교와 종파를 떠나 불교 원불교 개신교의 국내외 성지를 순례하고 왔다. 진정한 종교 화합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장열(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종성문고, 합리적인 운영 기대

종성문고가 현대불교신문사내에 문을 연다니 개원이 기다려진다. 보도에 의하면 종성문고는 2004년 12월 21일 입적한 종성 스님이 불자들의 교리공부와 스님 불교학자들의 불학 연구를 위해 기증한 장서 가운데 1만5천여권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비교적 큰 규모인 것 같다.

특히 각 나라의 불교대장경과 선학 관련 자료들중에는 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고 하니 불자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종성문고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성문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불교신문 측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했으니 일단 합리적인 종성문고의 운영을 기대한다.

또한 종성 스님의 유훈에 맞게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언제든지 찾아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아울러 지방에 있는 불자들도 빌려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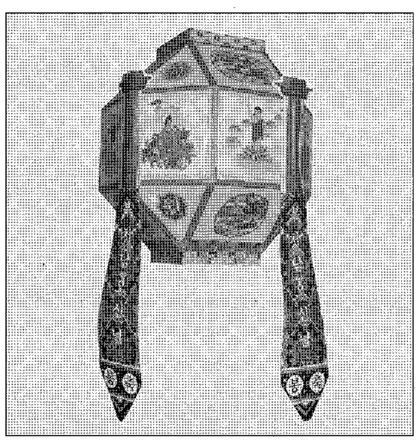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각종 기증 도서관에 가면 책을 훼손한다는 명분아래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종성문고만큼은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해 본다. 물론 그러려면 종성문고를 찾는 이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야 함은 물론이다.

김종국(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현대'만평

심 민 섭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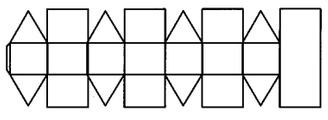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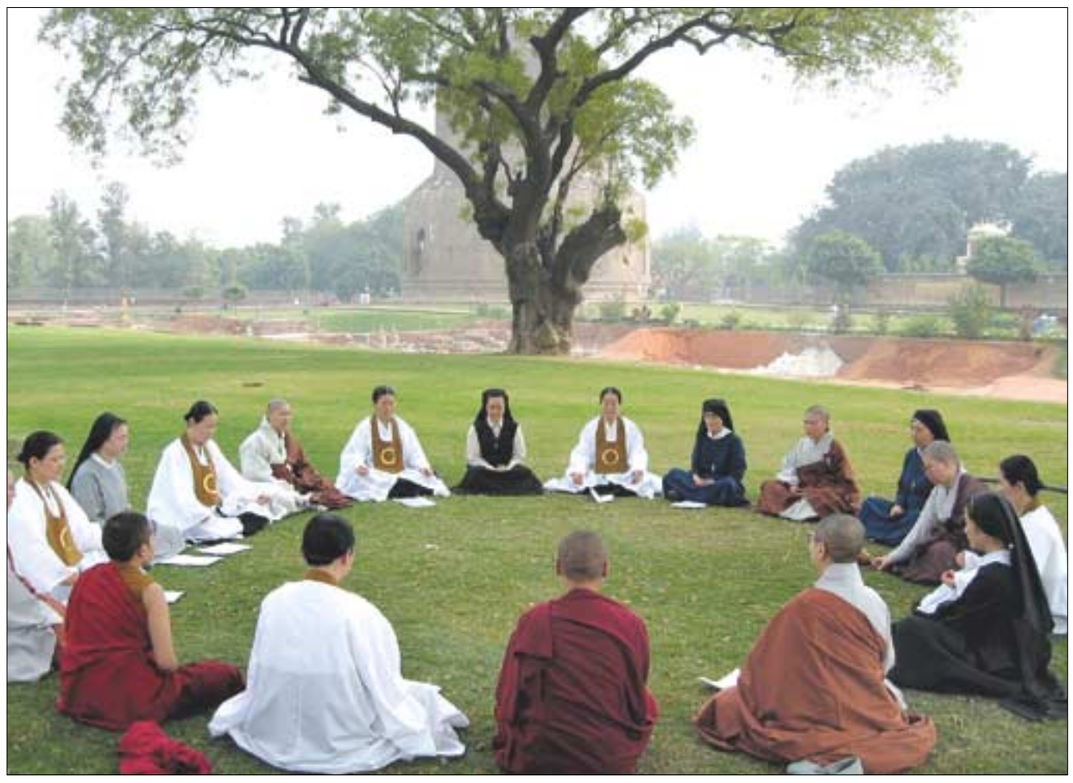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나와 다름 인정하니 화해와 평화 넘치네

진명 스님의 삼소회 성지순례기


인도 녹야원에서 평화명상에 든 삼소회 순례단. 이들은 세계 성지순례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자리를 넓히며 하나가 됐다.


티벳대학에서 달라이라마(가운데) 친견후 기념 촬영.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진명 스님.


로마 성프란치스꼬 성당의 종교대표자모임 조각상 아래서.


런던 무슬림 사원서 영국 무슬림 대표격인 두 바얀 사무총장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 동산에서 삼소회 기도문을 읽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각기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인 삼소회 일원으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 톨의 씨앗이 되자고 염원하며 기도한지 어언 5년. 시절인연이 도래했는지 그토록 염원하던 세계 성지순례 일정을 계획하며 지난 동안거 내내 바쁜 시간을 보냈다.

2월 5일 드디어 원불교 성지인 영광 영산성지 순례를 시작으로 삼소회 일행은 18박19일 일정의 성지순례 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불가촉천민을 위해 준비한 문구와 약품 상자를 화물로 부치고 나니 피로가 겹쳐왔다.

인천 공항을 출발한지 10시간만인 새벽 2시반경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다. 이어 다시 공항대합실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 첫 해외순례지인 바라나시행 비행기를 탔다. 첫 순례지 일정에서부터 이번 순례 여정이 고행 중에 고행임을 실감하게 했다.

순례단은 인도 바라나시 싸르나트 부처님 초전법륜지 근처에 위치한 한국 사찰 녹야원에 여장을 풀었다. 만공 스님이 주지인 한국 사찰 녹야원에는 공양주 보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행인 선재 스님과 수녀 · 교무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공양을 준비했다. 이 시간은 종교를 초월해 어떤 이견도 없는 화합 그 자체였다.

이번 순례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종교를 존중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생생한 화합의 시간이었다. 언제 또다시 수녀 신분으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할 것이며, 또한 부처님 제자로 예수님 성지를 언제 순례할 수 있을까. 다시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한 일행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방생" 외치며 물고기 팔던 청년

이튿날 새벽 갠지스강가에 도착했지만 자욱한 안개는 한치 앞도 허락하지 않았다. 빨래하는 가트(Ghat)에서 빨래감을 두드리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욕하는 사람들이 뒤섞인 가트를 바라보며 화장터로 향하는데 계속 작은 쪽배를 타고 따라오며 또렷한 발음으로 "방생! 방생!"이라 외친다. 작은 봉지에 담긴 물고기를 내미는 젊은이에게 내 옆에 앉아 생소하게 바라보던 수녀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영어로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그 생선을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사 줄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고요하게 화장터로 향하던 우리 일행은 파안대소 할 수밖에 없었다.

갠지스강가에 흩어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안개도 걷히고 우리는 배에서 내려 화장터로 이동했다. 시신이 한 구 갠지스강물에 적셔지고 화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교의 다름을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숙연해졌다.

달라이 라마의 깊고 환한 미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초전법륜지 대탑 앞에서 칠정례에 이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탑돌이를 하는 동안 등 뒤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진지하긴 했지만 대열 선두에 선 나는 참으로 궁금했다.

중간 중간에서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스님과 교무님들의 발걸음을 따르는 수녀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파란 잔디 위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춰 큰 나무아래에 자리했다. 품이 넓은 나무 그늘 아래 자리해 깊은 침묵명상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외국인 순례자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찬탄했다.

우리 순례자 일행중 스님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린 2월 9일,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는 날이다.

달라이 라마를 만나 삼소회와 성지순례에 나선 뜻을 소개하자 달라이 라마는 서슴없이 말했다. "세계평화는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평화 없이 전쟁만 있다면 인간 생명은 끝입니다. (중략) 모든 종교인들은 평화를 지키도록 기여해야 한다." 고 하시면서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1975년경 화합 운동을 시작하셨다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머릿속을 시원하게 했다.

첫째는 학문적으로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서로 교환해야 하며, 둘째는 다른 전통을 가진 수행자들이 만나서 깊고 내면적인 영혼의 체험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삼소회처럼 단체로 다른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당신도 수차례 개신교의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과 파티마를 방문했을 당시의 일화를 들려줬다. 넷째는 과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모임처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은 입장에서 한 가지(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삼소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을 보니 고맙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전통과 철학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념과 존경이라고 강조했다. 신앙은 자신의 것,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존경은 모든 다른 전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종교적 평화를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신앙은 자신의 것이고 자기 종교 안에 전통은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만 존경은 모든 다른 종교와 전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종교에 빠져 잊기 쉬운 중요한 말이다. 깊고 힘찬 목소리로 들려준 달라이 라마의 말씀은 우리 삼소회가 성지 순례하는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큰 가르침이 됐다. 자기 종교의 교의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단단한 벽을 순례 길에서도 허물지 못하는 몇 몇 일행은 또 다른 동행의 의견을 마치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의 무기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만들었다.

왜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나와 다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안다면 다름은 감사함의 대상이지 않을까.

하지만 순례의 여정이 더해갈수록 서로 다른 의식과 생활관습에서 비롯되는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고 그 작은 감정의 골은 타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며 가져야만 될 마음 자세와 예의를 잃어가게 했다.

울고 웃고 투닥거린 19일

달라이 라마의 그 깊은 영혼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드가야 대탑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를 거부한 어느 일행의 모습에서 자기 것 외에 어느 것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좁은 마음자리를 발견하며 과연 내 자신은 어떤지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 부처님의 성지에서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영국 성공회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13일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버밍엄에 위치한 무교회 주의자 퀘이커 공동체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침묵명상에 들기도 했고, 캔터베리 대성당과 런던 중심가에 자리한 웨스트 민스트 사원이며 세인트 폴 성당에서 성공회에 대해 알려고 귀를 열었다. 그 어마어마한 사원 안에 역사 속에 묻힌 무덤들을 돌아보며 부처님 성지나 법당에서 느끼지 못한 무거움을 느꼈고, 리젠트 파크 옆에 크고 웅장함으로 위엄을 떨치는 성공회 성당에 못지않게 당당하게 자리한 무슬림 사원에서 영국에서 무슬림 대표격인 두바얀 사무총장을 만나 무슬림 신자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거의 순례 막바지인 2월 20일 로마에 도착했다. 그 다음날 성프란치스꼬 성인이 나고 자란 아시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부처님 성지에서 그렇게도 넉넉함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이 프란치스꼬 성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긴 설명을 하는 동안 다시 갈등이 수위를 높였다. 뭔가 터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편치 않던 일행의 기운은 프란치스꼬 성인의 성소에서 그의 정신과 가르침에서 다 녹아 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는지도 모른다. 동물과 자연에게까지도 경계 없는 사랑을 나누었고, 철저히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성인이다.

갈등은 수행의 거울이 되고

아시시에서 돌아와 순례 여정 마지막 밤이 이슥하도록 우리는 울고 웃고 투닥거리며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마음자리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이번 삼소회 세계 성지순례 여정은 생생한 공부의 현장이었으며 종교화합을 위해 우리 종교인들이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크게 작게 부딪쳤던 갈등이 오히려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수행에 좋은 거울이 되어주었다.

종교는 아집과 편견, 갈등과 독선으로 무장된 무기가 아니라 인류 사회에 이해와 용서 자비와 사랑을 펼쳐가는 든든한 도구임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前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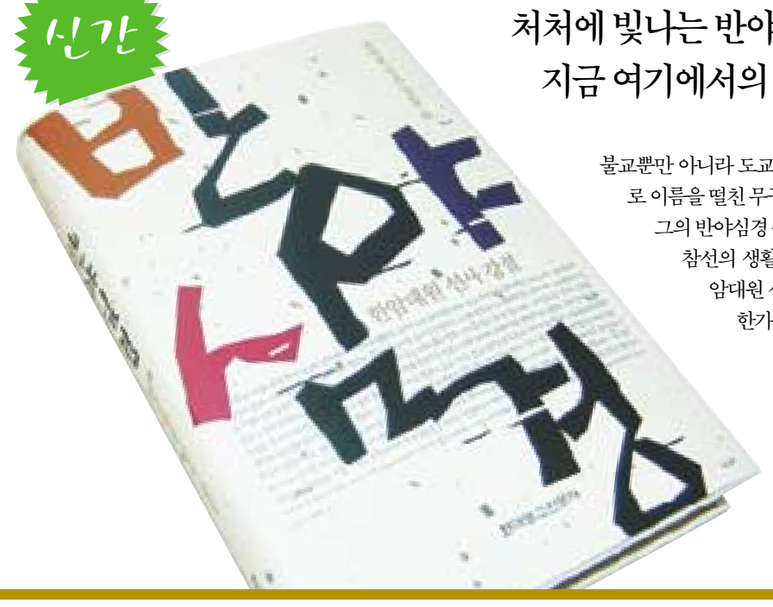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신간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아·름·다·운 삶·사람

/category/bosal.asp



이기성 법사 가족은 매주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에서 민간성직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2월 26일 일요법회 이후 장병들과 함께한 모습.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기성 법사, 어머니 임양식 보살, 군종병 이상호 상병, 최주식 이등병, 강정기 법사, 서창욱 돌격대대장, 아버지 이도훈 거사, 이기승 주임 원사, 뒷줄 왼쪽 네번째가 아들 병철군, 다섯번째가 딸 주영양.



강정기 법사는 법회때마다 집전을 맡는다.

향기도반의

일요일, 3代가 군법당 가요

군포교 앞장 이기성 법사 가족

누님 가족과 교대로 충절사 찾아 법회 주관
부모님 · 자녀도 봉사, 장병들에 가족애 전해
새 법당 건립이 과제 … 권선문 들고 전국 누벼

"장병들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할 때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에 부치지만 장병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 더욱 신이 납니다."

2월 26일 경기도 문산 전진부대 돌격대대 위병소. 봉고를 타고 온 이기성(45) 법사 가족들은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다.

"한주동안 잘 지냈니? 오늘은 얼굴이 좋아보인다."

"법사님 오셨습니까?"

민간인들이 군 주둔지 안에 들어갈 때 까다로운 신분 검사를 하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기성 법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에서 법회를 주관하는 재가 포교사다. 2월 15일에는 전진부대장으로부터 민간 성직자로 임명받았다.

법당 앞에 주차하자마자 아들 병철(17)군과 딸 주영(22)양이 위문품 박스를 법당으로 옮긴다. 아버지 이두호(77), 어머니(69)는 노구를 이끌고 법당으로 향한다.

이날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위문품은 김밥과 오뎅국, 귤. 이기성 법사는 새벽 3시부터 아내 김명식 보살과 함께 무려 6시간 동안 김밥을 말았다. 10인용 밥솥에 밥만 12번을 해 152줄의 김밥을 준비했다. 전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재료만 준비하고 새벽부터 김밥을 싸기 시작한 것은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따뜻한 김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6시간동안 김밥을 말았으면 피곤도 하겠건만 이기성 법사의 얼굴에는 웃음뿐이다.

잠시후 이기성 법사의 누나 미자(50)씨와 매부 강정기(58)법사가 도착했다. 강정기 법사도 민간성직자로 위촉된 호국 충절사 법사로 이기성 법사와 번갈아 가며 매월 두 차례씩 법회를 주관한다.

강 법사는 이외에도 매월 1, 3째주에는 고양 국군병제병원 군법당에서 2년째 법회를 주관하며 군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서창욱 돌격대대장 내외, 이기승 주임원사 내외를 비롯해 장병 70여명이 동참했다. 강정기 법사는 법회에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불자"라며 "짜증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더 참고 주위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 줄수 있는 병사가 되자"고 법문했다.

법회가 끝나자 이기성 법사의 어머니 임양식 보살이 김밥을 썰고 이미자 보살이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오뎅국을 병사들에게 나눠준다. 이기성 법사와 강정기 법사도 불전에 올려진 밀감을 내려 병사들에게 나눠주며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이기성 법사가 법회가 끝난 이후 장병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성엽 상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기승 주임원사가 법문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으로 법회를 대신했는데 법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 주어 좋다"며 "법사님이 오신 이후에 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두배로 늘 정도로 법회가 재미있어졌고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기성 법사 가족이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큰누나인 이연옥 보살이 친구로부터 충절사에서 힘들게 법회를 보고 있다는 이기승 주임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회의에서 법회 위문을 가자고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법회보다는 매주 장병들에게 줄 위문품이 걱정이었다. 떡볶이, 자장면, 떡국, 카레 등 장병들이 부대내에서 자주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려면 주당 20만원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가족이 돌아가면서 대중공양을 내자는 것. 지금은 이기성 법사와 부모님, 강정기 법사, 큰 누나 가족, 큰 형 가족이 번갈아 가며 후원을 하고 있다.

이기성 법사의 가족이 모두 군포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원동력은 다름아닌 부모님의 불심이다.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에서 매일 새벽 예불과 108배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부모님은 지역 군법당이 어렵다면 항상 찾아가 위문하곤 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섭다고나 할까? 이기성 법사도 고등학교때부터 불광 법회에 나가 광덕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매일 수행을 거르지 않고 있다. 누나인 이미자 보살을 만나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한 강정기 법사도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논문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 이기성 법사의 딸인 이주영양도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3학년이며 가족 전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데 똘똘 뭉쳐 있다.

이기성 법사의 아들 병철군은 "일요일날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따라 법당에 나오는 것이 훨씬 좋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크면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기성 법사의 가족들에게는 최근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 내무반을 개조한 호국충절사가 3월말 군 병영 개선 사업으로 허물어져 새로운 법당을 건립하는 것. 매일 아침 예불과 108배를 할 때면 가족 전체가 마음을 모아 서원을 하고 있는 등 작지만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강정기 법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들을 중심으로 새 법당 건립을 위해 권선을 하고 있고 시간을 내서 전국을 다니며 화주를 해 법당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기성 법사와 강정기 법사의 발걸음은 무겁다. 돌격대대가 위치한 구릉에 법당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주에 또다시 활짝 웃으며 법회에 참석할 병사들을 떠올리며 집으로 향했다.

문산/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8〉 신라

경주토박이들의 자존심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절집에서도 경주출신 승려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들이 여럿이다. 경상도라는 지명이 경주와 상주에서 나왔으니 TK문화코드가 그전만큼은 못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불교문화는 PK와 더불어 부동의 주류이다.

선어록에서 '경주'는 '신라'로 대체된다. 그런 신라 역시 중화에서 본다면 변방이 된다. '전과신라(箭過新羅:화살이 신라를 지나가버렸다)'라는 말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유로 자주 쓰였다. 비슷한 표현으로 '새매가 신라를 지나쳤다'거나 '눈먼 노새의 일행을 따라 신라를 지났거늘'이라는 말에서 보듯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동쪽에 떨어져있는 신라는 중국과 더불어 '이쪽과 저쪽'이라는 양변을 동시에 가리킬 때도 등장한다. '당나라에서 북을 치면 신라에서 활을 쏘고'(蔣山 川)라고 하였고, 원오극근 선사는 '당나라에서 북을 치니 신라에서 춤을 추고'라고 한 바 있다. '불은 신라에서 났는데 발은 여기(중국)에서 데었다(海印 信)' 내지 '호남에서 발우를 폈는데 신라에서 씹으니(慈明 圓)'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사실 중원에서도 신라촌놈이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때로는 버거움까지 묻어나온다. 당 태종이 화살을 신라에 맞추어두고는 "유연(幽燕:요녕성에 있던 부족이름)은 오히려 쉽지만 가장 수고로운 것은 신라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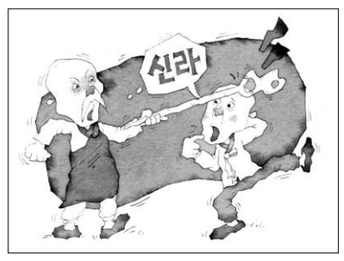
만주를 무대로 설치던 민족은 별것 아닌데 아랫쪽의 동이족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향산 량(香山 良)이 육조대사를 평하면서 "죽은 뒤에 땅굴 속에 묻혔다가 신라 사람에게 머리가 깨지지 않았을 것이려니"라고 하여 신라승려에 의한 '육조정상동래설(六祖頂相東來說)'을 언급한 내용도 보인다.

육조선사가 열반하신 이후 등신불로 모셨는데 그 머리를 신라의 승려가 가지려 왔다는 기록이 양국에서 다 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측 기록은 '시도했으나 들켜서 실패했다'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하고, 신라쪽 기록은 '거사에 성공해 쌍계사로 모시고 왔다'라고 하여 육조단경 덕이본의 부록으로 단단히 붙여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라 승려는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선문염송〉1082칙에서는 '점파(占波)사람을 끌어다가 신라 사람과 박치기를 시키라'고 했고, 고상한 설두중현 선사마저도 "신라승려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돌기둥에 부딪친 눈먼 첨지일 따름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수행자들의 안목은 선종을 빛낼 만큼 두드러지게 눈부셨다.

대혜종고 선사는 "신라에는 밤중에도 해가 밝다"고 하였고 해인 청(海印 淸)은 "신라에는 한낮에 삼경(三更)종을 친다"고 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밤에 북을 친다" 고도 하여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밝음 가운데 어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덕산선사가 시중(示衆)하여 말했다.

"오늘저녁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질문하는 놈은 삼십방을 때리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납자가 나와서 절을 하니 선사가 바로 때렸다. 그러자 그 납자는 물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때립니까?"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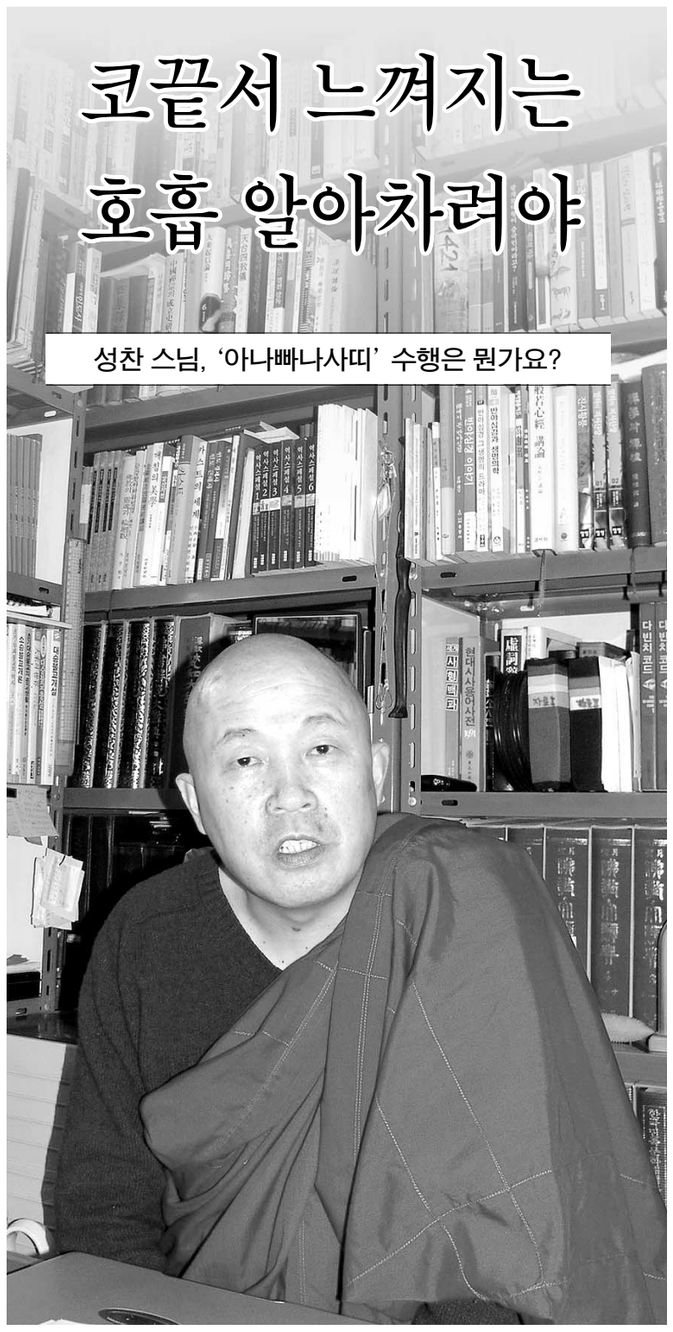
"신라입니다."

"그렇다면 뱃전을 밟기 전에 삼십방을 때렸어야 하는 건데."

이 말을 들은 대위 철(大潙 喆)이 이렇게 찬탄했다나 어쨌다나. "신라의 그 납자가 아니었다면 천고의 맑은 바람 어떻게 떨쳤으리."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선종사 곳곳에 '만만치 않은' 신라 수행자 등장
온갖 혹평 속에서도 안목 두드러지게 눈부셔



코끝서 느껴지는 호흡 알아차려야

성찬 스님, '아나빠나사띠' 수행은 뭔가요?

'아나빠나사띠.'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에게도 생소한 말이다. 이 단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삶과 죽음을 한 숨에 움켜쥐는 호흡에 관한 수행법이다. 숨이 거친지 세밀한지, 가는지 굵은지 등 '숨길을 따라 숨결을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숨쉬기 수행법이다. 그럼 아나빠나사띠는 숨을 어떻게 쉬라고 할까?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을 30년 넘게 병행해온 성남 여래향사 법사 성찬 스님(사진)에게 그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 물었다. 스님은 1996년 미얀마에서 우 자틸라 사야도에게 비구계를 받았으며, 찬미예수도원에서 우 자나카 사야도에게 아나빠나사띠를 지도받았다.

▲'아나빠나사띠'는 무엇인가요?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아나(Ana)'는 들숨을, '빠나(pana)'는 날숨을, 그리고 '사띠(sati)'란 관찰,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뜻하지요. 들숨과 날숨,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해 관찰하는 것이 아나빠나사띠 수행입니다. 경전적 근원은 〈초전법륜경〉에서 확인돼죠.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이 죽음 일보직전까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호흡법을 했다"고 전해 아나빠나사띠가 분명한 부처님의 수행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수행의 기초가 됩니까?

-생명체는 모두 숨을 쉬죠. 호흡이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떠나서 수행의 대상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호흡 따로 있고, 중생의 호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 직결됐기 때문에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좇아가기' 기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코끝에서 시작해 아랫배에서 끝나고,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에서 시작해 코끝에서 끝나는 공기의 흐름을 주시합니다. 코끝에서 아랫배까지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관찰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의도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 초심자는 인위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거칠게 크게 빨리'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코끝에 스치는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고 아나빠나사띠를 할 수 있어요. 초심자들은 거칠게라도 5~10분간 아나빠나사띠를 하면, 코끝에서 느껴지는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들숨과 날숨은 알아차림의 한 형태입니다. 걸을 때에도 발바닥이 '붙었다' '떼어짐'을 알아차리면 되요. 아나빠나사띠는 반드시 코끝으로 들숨과 날숨만을 통해 알아차림을 강조하지 않아요.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사념처(四念處), 즉 몸 마음 느낌 대상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분명 몸에 있어요. 신념처(身念處)죠. 가령 담배를 입에 물고 한 손에 커피를 들며,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눈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한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책을 보는 눈, 음악을 듣는 귀,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는 입, 음악에 맞춰 춤추는 발 등으로 빠르게 대상을 옮겨가며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리가 아프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그 대상이 느낌으로 옮겨진 거죠. 수념처(受念處)로 옮겨간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으로 가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다리를 고쳐 앉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죠.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心念處)에요. 또 몸과 마음, 느낌, 그것을 알아차리는 대상, 즉 법도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법념처(法念處)에요. 이처럼 아나빠나사띠는 사념처를 모두 아우르기에 종합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을 모두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호흡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간화선 자체에는 호흡법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대상에 호흡을 두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위빠사나에서는 주목적이 호흡관찰에 있어요. 위빠사나는 분명한 대상을 두고 호흡을 하기에 호흡법이 명확합니다.

간화선에서는 마음이란 대상 하나에만 둡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의심을 향해 하나로 그 의심을 응축하고 최대한 압축해서 한 방에 툭 깨어버리는 수행법이죠. 반면 위빠사나는 풀고 푸는 수행법이에요. 생기는 대로 풀고 알아차리는 거죠. 더 이상 풀 것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호흡법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나빠사사띠 호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상을 옮기면 됩니다. 아나빠나사띠는 '순간 삼매'며 '찰나 삼매'입니다. 찰나 찰나에 대상을 옮겨 즉시 돌아가는 삼매지요. 사실 마음은 잘 움직이고 잘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마음을 다시 잡아다가 코끝이든 배든 마음을 가져다 놓아야 해요.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하든 알아차릴 수 있죠. 이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알고 조절하며 자유롭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초심자 '크고 거칠게 빨리' 숨쉬어야 효과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핵심
"순간순간 도망가는 마음 잡아다 놓아야"

▲걷거나 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움직이는 자신의 팔 다리를 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호흡이 기본이지만, 순간의 행동에서 강한 것을 알아차리면 되죠. 아나빠나사띠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여법한 수행강당 | 공부하는 청정강원
동화사 전통강원
불기 2550년 신입/편입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논강식 강론

태극권 수련

저녁 좌선 정진
1.모집대상 : 치문반 00명 사집반 00명
사교반 00명 대교반 00명
2.모집기간 : 신입방부 3월 1일 ~ 3월 25일(치문반)
편입방부 3월 1일 ~ 3월 31일
(입방 1차: 3월 20일, 2차: 3월 25/31일)
3.구비서류 : 1.입방원서1,2(방문 작성)
2.은사스님 추천서
3.건강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각1부
4.승려증 (수계증명서/행자교육필증)
: 사본 각 1부
5.사진 (3×4) 3장 /법명도장
(편입자는 수료증 또는 전학증 지참)
4.준 비 물 : 가사(만의), 장삼, 발우
5.전 형 : 서류심사 및 면접
6.문 의 처 : 동화사 강원
053)985-1984
053)983-2500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한
장례 문화 학과 학인 모집
한국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원은 서기 2005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주최 제1회 장사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한국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번 서기 2006년 7월경 실시 예정인 제4회 장례, 지도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 2006년 3월 25일
2. 강의일시 : 매우 토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강의)
3. 교 과 목

	1학기	2학기
1학년	장례지도사자격시험준비반 장례학 개론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I 실습	장사관련법규 II 의학용어 제의례학 해부학 병원미생물학 실습
2학년	장례기획 사체화학 종교별 장례의식 Embalming 시신 Makc-up 실습	호스피스 실버매니지먼트 장제용품 및 유통 집단장 연구 장례식장 경영론 실습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매
5. 문 의 : 02)741-0495~6
해동 장례문화 연구소 해동 불교 대학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출가·열반절 이렇게 정진하세요”

조계종 포교원·중신회 ‘지침서’ 내놔

발원문 쓰고 점검표 작성
오후불식·자비회향 실천을
각사찰 특별·수계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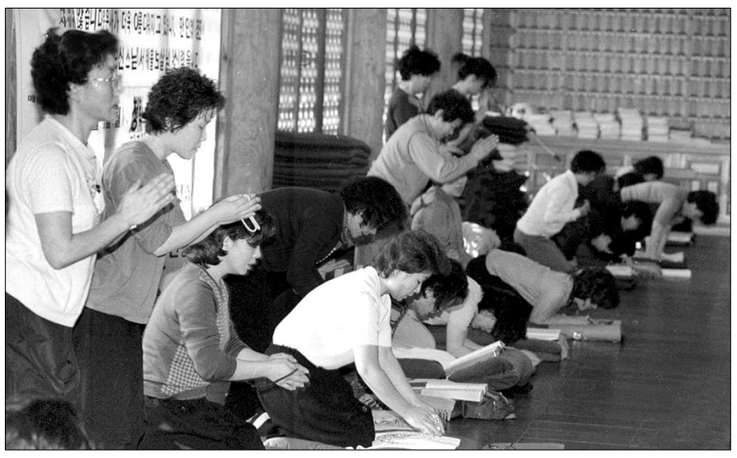
출가와 열반은 불자가 걸어야 하는 길의 시작과 끝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이 출가한 날과 열반한 날을 각각 큰 명절로 기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가열반절 특별정진 기간’은 3월 7일~14일이다. 이 기간동안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침서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펴낸 ‘불기 2550년도 출가·열반절 정진법회 종합지침서’다.

올 출가열반절 지침서는 예년과 달리 불자들의 참여 확대, 사찰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안으로 내놓았다. 예전에는 획일화된 방법으로 신도단체의 출가열반절 참여를 독려했다면 올해부터는 철저히 ‘참 불자’ 양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불자들이 지금까지 ‘무늬만 불자’였다는데서 벗어나 출가열반절을 계기로 각각의 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신행 풍토를 진작토록 하는 것이다.

지침서는 개인적 신행과 사찰 신도단체의 신행활동뿐만 아니라 직장직능 불자회의 출가열반절 안내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불자들이 출가열반절에 ‘신행’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해, 지도법사가 있는 신행단체라면 어디서나 출가열반절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꾸렸다. 총 8일의 기간동안 108참회발원 등의 정진 법회를 통해 출가자들은 물론 불자들도 스스로를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침서는 불자들에게 정진기간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 정진 △계율, 발원문 등 작성하고 수행점검표 만들기 △신도 5계를 지키고 가족들과 경건한 시간 보내기 △오후불식 시행 △이웃과 나누는 자비회향 △‘1일 1선행’ 약속 등을 ‘제대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표참조)



부처님 출가열반절은 불자들의 신행풍토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명절이다. 사진은 2003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출가열반절 정진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그러나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수행을 처음 해보는 불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법한 것인지도 의문 사항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도선사를 시범 사찰로 선정, 출가열반절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조계사(02-732-2115)는 출가열반절 대법회, 봉은사(02-545-1448)는 사시기도와 1만 배 정진,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93-3161)는 바라밀 특별 정진 출가열반절 정진법회와 참회법회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산 반야사(051-646-6237)는 ‘자비도량참법’을, 통도사부산포교원(051-816-2241)은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니르바나 정진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또 강남포교원(02-539-2631)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경건주간’을,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발심정진기도법회’를 각각 실시한다.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정진 기간의 의미는 평소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신행’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보고 신행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있다”면서 “포교당 중심의 갖가지 행사가 마련돼 있으므로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출가열반절 정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출가열반 정진주간 일일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첫째날(출가일, 참회 발원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정진주간 동안 실천할 발원문 작성, 수행정진, 사경지, 수행일지 작성, 입제 법회 참석
둘째 날(참회 보시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사경방법 공부 후, 사경지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종단홈페이지: 반야심경)으로 다운로드
셋째 날(참회 지계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 발원문 봉독, 경전독송, 계율암송, 사경지 수행일자 작성, 부처님이 정한 계율 살피고 지키기
넷째 날(참회 인욕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정진 중간 점검
다섯째 날(참회 정진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수행 방법 연구-지속적인 수행으로
여섯째 날(참회 선정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선행 실천 1가지 더하기
일곱째 날(참회 지혜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회향 준비, 지금까지의 수행 태도 반성
여덟째 날(열반일, 찬탄 회향의 날)	예불, 반야심경, 공동발원문 봉독(각종 발원문 중 택일), 경전독송, 계율암송, 108참회, 물질보시, 기도 공덕 회향, 사찰 회향법회 참석

※ 문의:조계종 중앙신도회 (02)733-7277

“패기 넘치는 국회불자회 만들터”

interview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 허태수 회장



“불자회원 배가 운동과 기초교리 공부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국회불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를 새롭게 이끌어나가고 있는 허태수(50·국회 운영위원회 심의관·사진) 회장은 외적 팽창과 내실화를 통해 국회불자회의 기반을 다져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허 회장은 올해 ‘젊은 불자 모집’을 통해 불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신입 직원 불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불자회는 ‘나이 많고 고루한 모임’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신도회는 현재 14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신도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잠재적 신도와 소극적 신도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허 회장은 특히 ‘늘 공부하는 불자’, ‘법당을 가까이 하는 불자’ 회원 양성에도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국회 법당에서 명선스님(동국대 박사과정)을 초청해 8개월 과정의 기초교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자회가 활성화되려면 선지식의 가르침과 기초교리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기 동안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와 불자국회의원 모임 정각회 의원 등 30여명은 2월 27일 여의도 유가원에서 신년 모임을 갖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신행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김강진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어르신들이 제겐 부처님이죠”

물리치료사 박재수씨

“아이구, 우리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루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그 안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다. 바로 2층에 마련된 물리치료실이다. 뼈가 약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부딪쳐서 생긴 ‘골병’부터 시작해서 선천적 장애어르신들의 재활치료까지 돕는 곳.

하루를 밝게 여는 물리치료사 박재수(38·법명 근행·사진)씨가 있어 어르신들의 얼굴도 웃음으로 물든다.

2003년 8월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씨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 소위 잘 나가는 큰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박씨. 2003년 대장장애로 인해 다니던 병원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몸이 아프고 보니, 박씨 자신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됐다. 환자들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 등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항상 ‘소극적 불자’에 머물러 있던 그가 ‘활기찬 불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 때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돌아가시는 분,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뵈었어요. 그러다 저와 같은 병실을 쓰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불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박씨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 ‘사람이 태어나서 마음 편하게, 신념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높은 보수를 받는 일 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퇴원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당시 센터보다 2배의 보수를 주겠다는 병원이 있었지만 박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택했다.

이렇게 인연 맺게 된 불교집안 직장인데다 불교 안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박씨를 벅차게 했다. 내친걸음,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학과 수업까지 듣고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교공부는 박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의 10가지 중 8가지는 행복하다는 박씨.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박씨에게 떼를 쓰고 화를 내는 어르신들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생활 속 모든 것은 박씨가 ‘진정한 불교인’이 된 후부터 일상을 반추하는 거울이 됐다.

“어르신들이 제겐 부처님 같은 분들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서 나갈 때는 웃는 얼굴이 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무척 기쁩니다. 오롯이 불자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 내용	강의내용	강의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 예수재,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서예(범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추가모집 : 2006년 3월 31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 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우승가대학학장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1>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

선(禪)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찾아가고 교(敎)란 팔만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차근차근 그 자리를 찾아간다. 부처님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 바탕을 찾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선과 교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임시 방편이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이 방편은 쓸모가 없어진다.

아플 때 약을 써서 병이 나으면 치료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방편은 부처님의 실상(實相)을 드러내기 위하여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임시로 쓰는 약과도 같다. 실상이 드러나면 이 약은 필요 없고, 이 약이 필요 없기에 모든 방편이 사라지는 자리를 우리는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필경공에서 실상의 이치가 드러나고, 실상의 이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필경공이 된다. 이런 내용을 <선가귀감> 9장에서는 말한다.

然 諸佛說經 先分別諸法 後說畢竟空
祖師示句 迹絶於意地 理顯於心源

그러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고 있지만 맨 뒤에 가서는 필경공을 말한다. 조사 스님들이 베푸신 짤막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자리에서는 그 자취가 끊어지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서는 실상의 이치가 드러난다.

이 내용에 대한 풀이는 규봉(780-841) 스님의 <도서>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따와서 소개해 보겠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가르침을 펼치는 것과 조사 스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은 그 일의 바탕이 제각기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야 함으로써 '실상의 이치'를 자세히 드러내야 했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곧바로 제도해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실상에 깊이 통하게 해야 했다. 그들의 마음을 깊이 통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말을 잊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말끝에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중생들의 마음에서 조사 스님들의 말 자취가 사라지면 마음의 근원에서 '실상의 이치'가 나타나니 신(信)·해(解)·수(修)·증(證)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되고, 부처님의 경전이나 율장(律藏)과 논(論) 소(疏)들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저절로 그 뜻이 다 통한다."

서산 스님은 <도서>에서 인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야 함으로써 '실상(實相)의 이치'를 자세히 드러내야 했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곧바로 제도해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실상에 깊이 통하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따와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였다.

필경공,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
말자취 끊어질때 실상 드러나

부처님은 근기가 다양한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온갖 법을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모든 법을 부정한다.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이 온갖 법문을 설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한 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예들이다. 모든 법은 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실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법이 부정되는 자리, 모든 방편이 부정되어 비어 버리는 자리를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이 필경공이야말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이 나타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로서 실상을 드러내는 이치이다.

실상의 이치는 말자취가 끊어진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 조사 스님들이 던지는 짤막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온갖 시비 분별을 끊어주는 도구이자 화두이지만, 이 말의 자취가 중생들의 마음자리에서 사라질 때 실상의 이치가 그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말의 자취가 중생들의 마음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지인 필경공, 이것은 마침내 도를 증득한다는 뜻의 '필경증(畢竟證)'과도 같은 말인데, <돈오입도요문>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도를 닦는 이는 무엇으로 증득을 삼습니까?" "궁극적인 증득으로써 증득을 삼는다."

"어떤 것이 궁극적인 증득입니까?"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을 '궁극적인 증득'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며, 어떤 것이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입니까?"

"밖으로는 색과 소리들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경계를 얻은 이를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한다. 깨달음을 증득할 때에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을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을 얻을 때에 또한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라는 그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을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胡亂指注 臂不外曲
제멋대로 꿰맞추어서 말을 하더라도
너의 팔이 밖으로 굽지는 않으리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스님'이라 부르는 까닭은?

우스개 소리부터 할까요? 언젠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목사님과 신부님에서 '님'자를 빼면 목사·신부인데, 스님은 '스'냐?"며 스님 호칭에 대한 실없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지의 소치라며 혀를 찰 불자님들도 있겠지만, 정작 스님을 '스님'으로 부르는 까닭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스님'은 원래 자기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스님들을 부르는 보통명사로 정착됐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님에서 가운데 '승'이 떨어져 '스님'이 됐다"는 설과 "승님(僧任)이 변해 스님이 됐다"는 설이 있지요. 두 가지 설 모두 다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 '승(僧)'자에 높임말 '님'자를 붙여 '승님' '승님' 하던 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승'의 받침 'ㅇ'이 탈락해 '스님'으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님'이 '스님'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문 전용시대에 스님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승님이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2강 무지의 양상에 따라 생명을 분류하는 혜능

멸도(滅度), 얻은 바 없다

혜능이 중생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독창적이다. 인도식 전통은 무시한다. 예컨대 그는 태생이며 난생을 동물들의 수태방식으로 읽지 않고 인간들의 무지의 양상으로 읽는다. 기실 생명을 뜻하는 불교식 용어 '중생'은 깨치지 못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 한가운데 인간이 있다는 것을 혜능은 알고 있었다.

혜능은 불교 본래의 정신인 래디칼한 도구주의(radical pragmatism)에 철저했다.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보살이라도 그렇지, 해바라기나 달팽이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길은 없지 않은가. 혜능은 뛰어난 교사답게 법을 깨치는데 있어 수없이 다양한 근기가 있고 아울러 각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 철저했다.

무지의 양상에 따른 생명 분류

그는 '중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난생: 미성(迷性)이라, 어둠 속을 헤매면서 '여러 업장(業障)을 짓는' 유형을 가리킨다.

2) 태생: 습성(濕性)이라, 묵은 습성에 따라 살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류를 가리킨다.

3) 습생: 수사성(隨邪性)이라, 잘못된 길을 좇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의 안정이 없는 유형이다.

4) 화생: 견취성(見趣性)이라, 자아의식이 강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5) 유색: '조작적 마음으로 함부로 시비(是非)를 판단하여, 안으로 무상(無相)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불교 밖의 세속인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6) 무색: '안으로 곧은 마음을 지키나, 타인을 공경 공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단지, 돌아보지 않고 화살처럼 뻗는 직심(直心)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으되, 복덕(福德)을 닦지 않는 이기적 유형이다. (여기서부터는 자신만을 구원하려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소승의 유형들을 적고 있는 것 같다)

7) 유상: '중도(中道)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지각하고 사유하여, 법상(法相)을 애착(愛著)하여, 입으로 붓다의 삶을 말하나, 마음은 그를 본받아 행치 않는' 유형이다.

8) 무상: '오직 좌선을 통해 망상만 제거하려 할 뿐, 자비희사(慈悲喜捨)와 지혜의 방편을 배우려 하지 않는, 목석이나 식은 재 같은 이들'이다. (전형적인 소승의 부류들이다.)

9) 비유상비무상: '고정된 진리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이 아직 남아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가장 성숙한 유형이나 아직 근본적 장애 하나인 유위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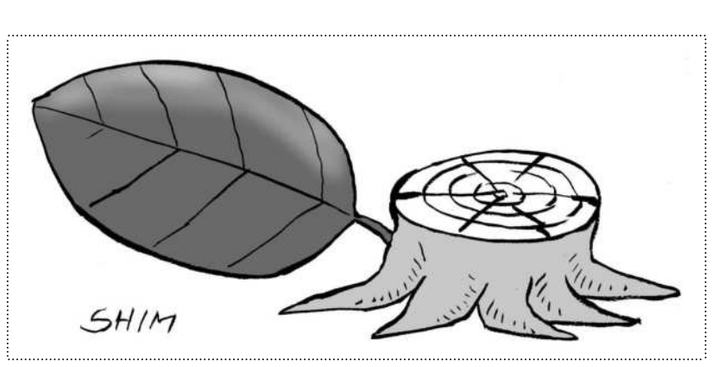
혜능은 중생들을 수태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도의 수준과 그에 따르는 장애물의 유형'으로 번역해 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와 번뇌가 있지만, 그 마음의 때(垢)는 한 가지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중생이기 때문이다. 여래는 대비(大悲)로 이들을 보화(普化)하여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삼계(三界) 구지(九地)의 모든 중생들은 모두 자신의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지니고 있으니, 결국 각자 자신 속의 무여열반으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보살은 누구도 건네준 바 없다.

이 겹겹의 장애를 어떡할 것인가. 엎애고 태워야지, 다른 수가 없다. 불교는 이 장애를 건너뛰어 '진정 자기로 살도록' 하는 풍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혜능은 멸도(滅度), 즉 위대한 자유(大解脫)란 "번뇌(煩惱)와 습기(習氣), 그리고 일체(一切)의 제업장(諸業障)이 멸진(滅盡)하여 다시 나머지가 없는 경지"라고 썼다.

여기 이르는 길이 있다. 팔만의 길이 있고, 그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다. 혜능은 그의 돈교(頓敎)로 유명하다. 돈교는 습기와 업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기 속의 본래의 힘과 광명을 믿고 따르는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다. 보살은 중생들이 자기 속의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이끄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대승기신(大乘起信)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보살은 아무 것도 해 준 바가 없다. 그는 다만 중생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울을 준비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도움을 주었으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역설을 혜능은 이렇게 적어주고 있다.



"헤매던 사람이 자성(自性)을 깨달으면, 마침내 알게 된다. 붓다가 자상(自相)을 내보이지 않았고, 자지(自智)를 가진 적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 언제 중생을 건네준 적이 있었겠는가. 다만 범부가 스스로 제 본심(本心)을 못 보고, 붓다의 뜻을 모르고, 제상(諸相)에 집착하고, 무위의 이치(無爲之理)에 도달하지 못해 아인(我人)의 구분을 없애지 못했으니, 이를 일러 중생(衆生)이라 한다. 이 병(病)을 떠난다면, 사실상 중생이 멸도를 얻은 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 '망심(妄心)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보리(菩提)라 하노니,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은 본시 평등(平等)하다!' 어디 다시 멸도(滅度)할 것이 있겠는가."

<금강경> 제 3장의 구결에 적힌 혜능의 이 말은 불교, 특히 돈교(頓敎)의 목표와 방법을 간결하게 선포하고 있는 대강령이다. 부연하자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건네준 바 없다"는 것은 보살이 혹 가질지 모를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금강경>의 원 문맥이 그렇고, 상식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듯이 "건네준 바 없다"는 것은, "중생들이 실제 멸도 된 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생사의 두 가지 의미

혜능은 "깨달음(菩提)은 다만, 망심(妄心)의 거처를 허용하지 않는 것(妄心無處卽菩提)"인데, 그때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은 본시 평등(平等)하다"고 썼다. 불교를 말할 때마다 언필칭 회자되는 말이고, 조지훈의 시 '승무'에도 인용되어 유명해진 이 말을 부연해 보자.

생사(生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인연(因緣)들이 화합하여 연기(緣起)하는 객관적 세계의 흐름'이다. 무상(無常)한 법계(法界)는 부단한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 속에 있다. 이 객관적 법(法)으로서의 생사 반대쪽에 주관적 의미의 생사(生死)가 있다. 즉, 그 법계의 변화를 "그냥 두지 못하고," 그 사태를 나의 관심과 충동에 따라 시비하는 마음 말이다. 우리 모두는 가는 것을 슬퍼하고, 오는 것을 기뻐한다. 혹은 어떤 것들은 가는 것에 환호하고,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렇게 여래여거(如來如去)의 법(法)에 대해 무심하지 못하고, 거기 탐착(貪着), 혹은 염오(厭惡)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주관적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비로소 생사(生死)가 있게 되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고 옴'이나, '살고 죽음'을 말할 수 없다. 혜능이 오랜 은둔을 마치고 나오면서,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고, 바람 또한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한 법문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요약하자면, 간택의 판도라를 엶으로써 우리는 중생이 되었다. 그것을 다시 닫았다면, 그는 부처이다. 혜능은 이 뜻을 이렇게 부연 한다: "중생(衆生)과 불성(佛性)은 본래 다름이 없다. 사상이 있으면 중생, 사상이 없으면 부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행복의 연금술 명상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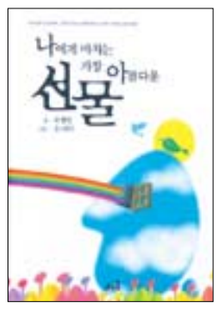
명상집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펴낸 유영일 씨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신음하던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눈 떠 보세요"

"명상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음하던 자기 자신에게 사면장을 주어 방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을 생애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고도산업사회의 정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웰빙주의 경향은 건강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근거한다. 이런 웰빙의 한가운데에는 명상의 열풍을 빼놓을 수 없다.

고도 산업사회를 살아가며 행복의 연금술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명상집을 선물한 출판인 유영일씨(현대불교 출판팀 실장 · 사진). "명상이란 뭇 존재를 떠받들어 주는 신성한 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그는 "자기 존재의 소중함에 눈뜨게 하는 명상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유영일 지음
푸르름|8500원

그는 이 책에서 "숨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잉태시킨 신성한 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명상이란 세상과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 속에 스며 있는 신성한 이와의 눈맞춤이며, 내 안의 거친 파도를 가라앉힘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나 들리는 섭리의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는 일"이라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그 힘을 잊고 지낼 때마다 불행해진다"는 그는 "자신은 딱딱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를 한정 짓지만 않는다면 엄청난 유산의 상속자로서 자유와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우리의 존재는 갇혀 있는 폐쇄 회로가 아니라 수조 개의 숨구멍으로 산천초목과 우주를 들이쉬고 내쉬는 열림 자체이니,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웅성거리는 두려움과 죄의식, 나와 세상에 대한 불만족을 이기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그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듯이, 내 존재를 떠받치는 신성한 빛을 의식하고 그 안에 몸과 마음을 담그는 것"이라고 답한다.

"더 '큰 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작은 나'의 욕망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는 우리를 위안하고 달래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눈뜨게 하는 책이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유영일씨는 1955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국문과에서 수학한 이후 줄곧 출판계에서 종사했다. 옮긴 책으로는 <내 안의 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법>등이 있으며, skyventure.co.kr의 전문가 블로그를 통해 '사통팔달 인생론'을 인기리에 연재중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카이사르는 독재자인가 창조자인가



카이사르의 내전기 사이, 김한영 옮김

원로원의 통보를 거부한 카이사르는 로마 민주정에 종식을 지은 독재자로 비판받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제국을 안정시킨 공을 보인 창조자로 칭송받기도 한다.

일반 시민의 의지는 반영되지 못하는 당대의 로마는 한계 상황에 달해가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눈에는 원로원이란 대지주와 채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과두제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반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루비콘 강을 넘는 것이 당장은 반역으로 치부될 것이지만 길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을 건는 것은 매우 적은 군대지만 상대의 의표를 찌른 기습이었기에 성과는 충분했다.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 그리스로 빠져나가버린 것이다.

그러면 객관적 여건에서 불리했던 카이사르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하나는 그의 군대가 규모는 적어도 전장 경험이 풍부한 정예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휘관으로서 카이사르가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선보였다.

이 책 내전기의 매력은 먼저 저자가 당대의 가장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은 카이사르 본인이었다는 점이다. (사마천, www.aladdin.co.kr/blog/mypaper/818967)

세상의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샘터사, 장영희 지음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한 기쁨보다는 살면서 위안이 되어 줄 책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크다.

책 속에 있는 많은 말들 중 보석 세공인이 솔로몬 왕자에게 물어서 새긴 글인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 물론 기억 속에 오래 남아 나를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각인되는 순간은 있지만 이미 지나간 순간이라는 것, 기억하고 싶다.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시간대의 다양한 인물과 문학이 담겨 있다. 사실 문자의 나열만큼 공허한 것은 없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순간 혹은 영원을 담고 있지만 문자화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부족하다.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눈과 뇌가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꺼내어 읽을 수 있는 반복성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당연히 책임이 뒤따른다. 하지만 가벼운 읽을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다 보니 읽는 행위에서 감동을 찾는 것에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어쩌면 예쁜 말들만 많아도 공허함을 느끼고 신랄한 말들만 많아도 마음이 건조해진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마음을 콕콕 쑤시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책은 드물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좋다. 예쁘고 지혜로운 책이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선물과도 같은 책이다.

(자명한 산책, yahoo.com/ysp/libro)

책속의 밑줄긋기



'나'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위빠사나 명상의 열쇠 빠빤차 냐냐난다 스님 지음 | 한언 | 1만900원

빠빤차?

쉽게 말하면 '망상(妄想, 이치에 어긋나는 헛된 생각)'이다.

실재에서 왜곡되어 확산된 개념의 족쇄를 말하는 빠빤차. 초기불교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빠빤차는 '나'라는 허구로 인해 조건지어지는 현상들에 대해, 갈망 아만 견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 책 <위빠사나 명상의 열쇠 빠빤차>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나'가 대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인식작용에 의해 실재로부터 왜곡되면서 '나'라는 착각을 일으키는지를 조망하는 것이다. 또한 실재에서 벗어난 마음의 소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나'라는 착각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위빠사나를 통한 해탈을 보여준다. 즉 깨달음은 신통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이다.

위빠사나에서 유도하는 상태는 '나'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는 것이다. 망상의 확산을 근절하고 실재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거나 무아에 대한 교조적이고도 틀에 박힌 설명에 식상했던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김원우 기자

○…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실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화경은 부처가 영원히 현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플럼빌리지의 위쪽 동네에는 2월말쯤 수선화가 피는 곳이 있다. 플럼빌리지를 세우러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수십만 송이의 수선화들이 초봄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궁극의 차원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이 땅을 인식했던 것이다. 1년 중 다른 때는 수선화가 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이 되면,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처럼 수십만 송이의 수선화가 모습을 드러낸다. 황금색의 꽃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는 그곳에 '보배로운 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101~102쪽, 틱낫한 지음, 명진출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엮고 / 지음

천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

경봉 스님 생애 소설로



구도 위해 온몸 던진 처절한 수행과 선풍 떨친 일화 '생생'

'정진을 쉬지 않던 그는 36살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벽이 무너지듯 시야가 툭 트이면서 오묘한 일원상만이 남는 경지를 체험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정진한지 20여일 뒤 새벽 두시반 문틈을 파고든 바람에 촛불이 '파파파팟' 소리를 내며 춤추는 모습을 본 순간 억겁의 의문이 찰나에 녹아버렸다.'

대도를 성취한 후 전국에서 찾아온 선승들을 지도하며 선풍을 크게 떨친 경봉(鏡峰) 스님(사진). 한국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선지식인 경봉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최초의 장편소설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가 발간됐다.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는 수행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으로 언제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한 경봉 스님에 대한 제반지식이 담겨 있다. 또 선이 무엇인지, 멋들어지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소설은 경봉 스님이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부터 깨달음을 이룬후 대중들에게 선풍을 크게 떨친 이야기로 전개된다.

23살에 통도사에서 출가한 경봉 스님은 스승몰래 도망쳐 해인사 선방에 찾아간다. 스님은 졸음과 망상이 들때마다 허벅지에 피가 나도록 못으로 찍고 계곡에서 얼음을 가져와 입에 물었다. 그리고 기둥에 머리를 박아 이마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집중이 안될 때는 뒷산에 올라가 엉엉 소리내 울었다. 처절한 싸움이었다.

스님은 82세부터 세수 91세로 열반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어 법상에 올랐다. 스님의 법문을 듣는 청법자는 언제나 1000여명을 밑도는 일이 없었고, 대다수의 선사들이 중국의 조사어록이나 염송등에서 차용해 설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당시 현실에서 법문이나 게송을 내림에 있어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냈다.

또 스님은 절밖에서도 법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장터에서 울긋불긋한 그림을 그려 주장자에 달고 요령을 흔들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스님은 구수하게 법문을 하다가도 지루할만 하면 창을 하며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했다.

이 소설의 저자 정찬주씨는 "경봉 스님은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수보살같은 분이셨고,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같은 분이셨고, 편안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지장보살같은 분이셨으며, 극락암을 찾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맑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권하시던 사람냄새 풍기는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정찬주 지음
김영사 | 각권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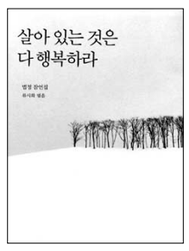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며칠 동안 펑펑 눈이 쏟아져 길이 막힐 때
오도 가도 못하고 혼자서 적막강산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새삼스럽고 홀로 살아 있음을 누리면서
순수한 내 자신이 되어
들레의 사물과 일체감을 나눈다.
그리고 눈이 멎어 달이 그 얼굴을 내보일 때
월백 설백 천지백의 그 황홀한 경계에
나는 숨을 죽인다.

살아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다 행복하라' 중에서*

행복을 내게 묻거든…

법정 스님 출가 50주년 기념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류시화 엮음
조화로운 삶 | 9800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시와 같은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가 발간됐다.

법정 스님은 항상 행복의 비결을 말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그 소중함마저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고.

법정 스님의 출가 5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된 이 책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한 스님의 글과 법문들에서 130여편의 대표적인 내용을 뽑은 것이다.

책을 엮은 류시화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산속 오두막에서 며칠 함께 지내던 어느날, 마침 보름달이 건너편 산 위로 떠올라 법정 스님과 나는 달을 보며 기도를 올렸다. 나중에 내가 스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책은 또 무소유, 자유, 단순과 간소, 홀로 있음, 침묵, 진리,에 이르는 길과 인간존재에 대한 성찰로 채워진 글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명상사진들로 장식돼 있다. 잠언집은 올 상반기중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5개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암자에서의 하룻밤' 설레네



암자를 찾아서
안직수 지음
운주사 | 1만1000원

왜 암자를 찾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마음의 휴식을 찾고 싶어서' 라고 답한다. 산새소리 일어나고, 풍경소리를 들으며 사찰을 청소하고, 인적이 끊어진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란다. 인연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며칠 머물며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암자이다.

일반인들이 찾아가 며칠 묵어가도 괜찮은 암자 27곳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불교신문 안직수 기자가 펴낸 <암자를 찾아서>는 복잡하고 답답한 콘크리트 더미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내려 놓고 쉴 수 있는 곳,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곳, 근심 걱정 훌훌 털어 버리고 스님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27곳 암자는 '누구나 찾아와도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방을 내주겠다' 마음을 낸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은 호남 제일의 비경 규봉암, 지리산의 소금강 구례 사성암, 바위병풍이 위용인 창녕 법화사, 속리산 절경이 한 눈에 잡히는 중사자암, 대웅전에 부처님이 안모셔진 천안 성불사, 오세암의 촬영지 제천 정방사, 조선조 왕족의 애환이 서린 성남 만경암등이다.

이밖에도 주5일제를 맞아 주말여행으로 다녀올 수 있는 암자를 소개하고, 찾아가는 교통편과 암자주변의 둘러볼 만한 곳 안내까지 빼놓지 않고 있다. 부록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홈페이지와 주소, 전화번호도 함께 소개한다.

김원우 기자

티베트에서 인도로 생사의 여정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여행을 해야한다. 그것은 5000~6000m의 히말라야를 넘어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병을 얻는다.

여행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정희재씨는 인도여행중 티베트 친구로부터 이 생사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위험 천만한 티베트 여행을 시도한다.

정씨가 세운 티베트 여행의 원칙은 2가지. 즉 편하고 쉬운길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과 티베트를 침략해 유린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당국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 정씨는 중국 당국의 여행 허가서도 없이 티베트 서부 오지로 들어가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 산을 순례한다.

마치 티베트인들처럼 여행을 하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의자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는 밀입국자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전기봉을 든 사원과 궁전의 경비를 맡은 중국군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꼼짝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평화로운 나라를 침략하고 지도자를 망명하게 만든 중국정부도 용서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느낀다. 그녀는 티베트와 카일라스 여행을 자기 자신과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순례였다고 말한다.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다
정희재 지음
샘터 | 1만2000원

새로나온 책

■ **대불정수능엄경**(서울역사박물관)=<대불정수능엄경>은 서울역사박물관이 간행한 소장유물자료집Ⅳ권으로 나온 것이다.



<능엄경>이라고도 불리는 이책은 중국 당나라때 천축국의 발랄밀제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송나라 때 계환 스님이 해설한 것을 조선시대 세종 15년에 10권 10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중인 <능엄경>은 2책 완질 목판본으로 조선초기에 간행된 같은 종류의 책들보다 시기가 앞서는 초각선인본으로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이 책에는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천혜봉 선생의 '성달생서 능엄경 초간본' 논문도 실려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민족사, 나무불 스님, 8500원
· 선학강좌	이른아침, 숭산 행원 스님, 1만5000원
· 영혼의 모음	샘터사, 법정 스님, 8500원
· 산은산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불교가 좋다	동아시아, 가와이 하야오, 1만2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목조 건축



◆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집 150년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 목조건축
- 육송,낙송,수입목 다량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읍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읍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6-773-8757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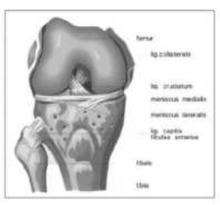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일연스님 탄생 800주년
'삼국유사' 특별展
서울역사박물관
24일까지

기술 · 상상력 결합된 또 하나의 '삼국유사'

책 속의 이야기 멀티 콘텐츠로 재구성

전설, 역사 그리고 상상. 특별한 유물 한 점 제대로 없는 상상으로 가득한 전시회가 역사기획 전시의 틀을 바꾸고 있다. 그 주인공은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주)현암사와 연세대 국학연구원이 개최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특별전(이하 삼국유사 특별전)'이다. 3월 24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삼국유사 특별전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적 상상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 평평한 지면 속 <삼국유사>는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되살아난다. '삼국유사 특별전'이 안내하는 상상 속 <삼국유사>의 세계로 떠나보자. (02) 724-0114

'+mixed media(혼합매체:Book with new idea of mixed media)'는 '삼국유사 특별전'의 근간이 되는 형식이다. 책을 읽는 방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멀티 콘텐츠로 제공하고자 했던 현암사의 노력이 '삼국유사 특별전'을 이러한 독특한 형식으로 꾸민 것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책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다. 책에 들어간 콘텐츠를 활용하고 그 안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획했다. 책이나 유물 전시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한 공간에서 책 속의 콘텐츠를 소개해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들이 기발하다.

<삼국유사>에 관한 유물은 별로 없는데 무엇을 전시할까? 책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던 <삼국유사>는 그래픽 아트 · 사진 · HD 동영상 · 영상 소품 · 컴퓨터 아트 · 일러스트레이션 · 연극 등 멀티 콘텐츠로 거듭났다.

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단군신화 이야기는 전시장에서 하늘나라 · 신시 · 동굴 · 결혼을 주제로 한 4개의 미로방으로 재탄생했다. 미로를 따라가며 단군신화 이야기를 다각도로 읽고 중간 중간 펼쳐지는 퀴즈를 통해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들을 풍부한 색감과 민화적 상상력으로 결합시킨 이만익 화백의 그림은 그래픽 아트로 변신했다. 전시장 한편은 벽면 전체를 이만익 화백의 그림으로 퍼즐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야기는 별자리를 탐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을 접목시켰는가 하면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 여행하며 설화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고안했다.

'삼국유사에 보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관람객 참여형태의 연극은 일연 스님, 삼국유사 전문가 고박사, 깝죽이(관람객)가 대화를 통해 <삼국유사>를 소개하고 묻고 답한다.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요석 공주와의 인연으로 <삼국유사>를 떠들썩하게 만든 원효 스님의 이야기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승방으로 꾸며 보여준다. 삼국유사 속 전통놀이 축국을 재현한 코너에서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시대의 화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사진작가 양진씨가 삼국유사의 배경지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과 영상, SBS 드라마 서동요의 방송 소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삼국유사 특별전'에서 ▲삼국유사가 왜 이처럼 오랜 세월의 장막을 거두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설 수 있었는가 ▲무엇이 삼국유사를 주목하게 하는가 ▲어떻게 한 권의 책이 한국학 전반에 두루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지니고 그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이번 전시를 보다 뜻깊게 즐기는 관람 포인트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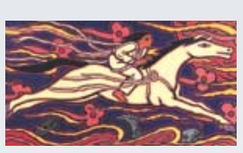
HD동영상 · 컴퓨터 아트 · 사진 등 전시장을 디지털화
단군신화 주제로 미로 구성, 퀴즈 풀며 역사 이해 '재미'
그림퍼즐 맞추기 · 전문가와 대화 등 관람객 참여 유도


다양한 멀티 콘텐츠로 무장한 '삼국유사 특별전'은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학습장이자 놀이터이다.



그림 퍼즐 앞에서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 관람객들.


성덕대왕신종을 담은 엽서.


이만익 화백의 그림 '주몽'.


이만익 화백의 '유화취적도'.

■ 800주년 이런 행사 있어요

●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종규) 부설 **삼성뮤지엄아카데미**가 <삼국유사>의 저자 보각국사 일연 탄생 800주년을 맞아 **'일연과 삼국유사'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가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3월 8~29일(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열린다. (02)394-6544

●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주석했던 **군위 인각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7월 20~21일 **'일연 탄신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해 7개국의 학자들이 참석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 일연 스님 열반일인 8월 1일에는 **보각국사비 복원 제막식**이 계획돼 있다. 금석문 연구자 박영돈씨와 군위군 · 한국불교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비 복원 사업은 현재 비문 복원안을 확정했다.

● 7월 1일~8월 6일 **인각사 · 은해사**는 일연 스님의 출생지인 경산 일원에서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연극**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일연 스님은

올해로 탄생 800주년을 맞는 일연 스님(1206~1289)은 고려 중기의 선승이자 <삼국유사>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북 경산에서 1206년 태어난 스님은 1214년(고종1) 9세에 전라도 해양(현 광주) 무량사에 들어가 대웅 스님 밑에서 수학하다가 1219년 출가했다. 1227년 승과에 급제하고 1237년 삼중대사, 1246년 선사, 1259년 대선사가 됐다. 1261년(원종2) 왕명으로 선월사 주지가 되어 목우 스님의 법을 이었다.

1268년 운해사에서 대덕 100여 명을 모아 대장경낙성회(大藏經落成會)를 조직해 맹주가 됐던 스님은 1277년 운문사 주지가 되어 왕에게 법을 강론했다. 1283년 국존(國尊)으로 추대되고 원경충조(圓經沖照)의 호를 받았다. 1284년 군위의 인각사를 중건하고 궁궐에서 구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여는 등 불법 홍포에 앞장섰던 일연 스님의 탑과 비는 인각사에, 행적비는 운문사에 남아있다.

저서에는 <삼국유사> 외에도 <어록(語錄)> <계승잡저(界乘雜著)>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등이 있다.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각종 설비공사 일체
◆석재, 부품 일체
◆석, 조각, 석물 일체
◆석, 불상, 좌상, 미륵
◆석, 탑, 마애불상조각
◆건설부문
◆석굴, 납골당 공사
◆석굴, 법당 조성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석 공사 일체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3. 6
월 · 화 반, 수 · 목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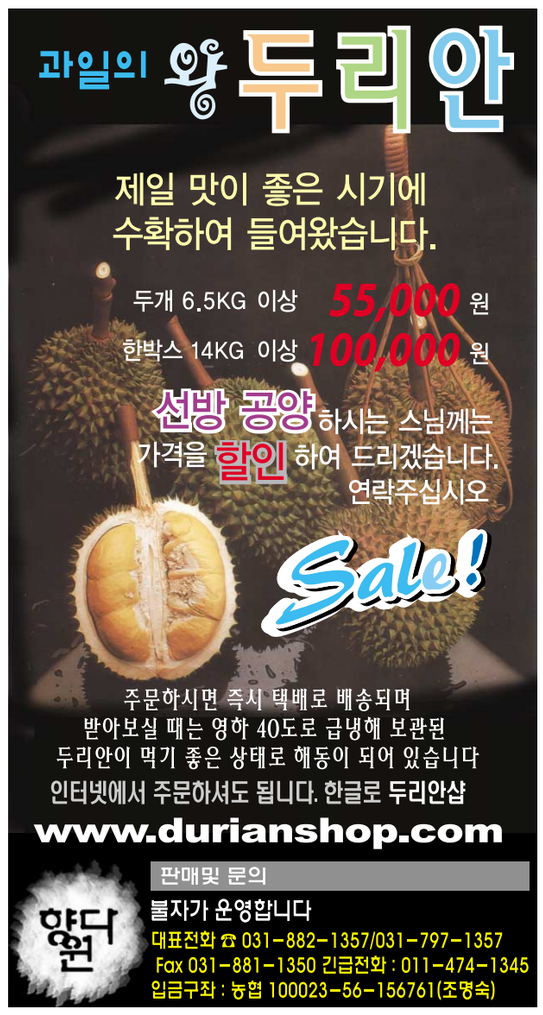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자기 부처에 의지하라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담월 스님 (제천 백련사 조실)



해발 850m 고지의 감악산 백련사에서 30년을 살아온 담월 스님. 절 주변을 포행하던 스님은 "산처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라"고 당부했다.

충북 제천시 감악산 백련사 가는 길.

명암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계곡을 끼고 오른다. 물맑은 계곡은 가도가도 끝이 없다. 며칠전 내린 비로 이제 봄소식을 전하려는 듯 생기가 돋은 수풀을 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힘이 난다.

한참 감상에 젖어 있는데 차가 감악산 밑의 작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난다. 가던 길에 문제가 생겼다.

계곡 끝무렵에서부터 시작된 감악산 정상(해발 950m)으로 오르는 길에는 눈이 아직도 녹지 않았다. 차는 더 이상 산으로 오르지 못하고, 길 한쪽에서 멈춰섰다.

급히 달려와 준 '우리는선우' 김연호 제천지부장의 도움으로 산밑 마을에 살고 있는 백련사 신도의 4륜구동차를 빌려타고 절에 오를 수 있었다.

직접 건축자재 날라 법당 건립

해발 850m 고지의 감악산 백련사. 경내에 도착하여 마루에 앉으니 여러개의 봉우리 사이로 윤곽만 보이는 고속도로가 아득하기만 하다.

백련사 조실인 담월(曇月 · 83) 스님의 처소로 들어가니 묵향이 코끝을 감싸온다.

큰붓을 들고 한획 한획 써내려가는 스님의 당당한 필치가 시원하다. '무심시도(無心是道)'라는 글귀가 보인다. 스님에게 뜻을 여쭈니 '번뇌망상 없애는 것이 도'라고 설명한다.

붓글씨를 다 쓴 스님은 한참동안 붓을 씻은 후 포행에 나섰다. 공양주 보살이 손수 짜준 모자를 쓴 스님은 "한 겨울에는 바람이 워낙 거세서 포행을 못했는데 이제 봄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우수를 지나 경칩이 코앞에 와 있지만 오후 4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영하 5~6도를 오르내리는 백련사. 낮에도 춥기는 다반사다.

"혼자 밥해먹으며 수행할때가 좋았지"

속초 신흥사, 간성 건봉사, 서울 칠보사등 13개 사찰의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한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온 이곳. 스님은 1976년 수해로 축대가 무너지고 인법당 한 채만 간신히 남게 되면서 젊은 스님이 떠나버리자 이곳에 들어왔다.

혼자서 산 아래에서부터 시멘트 등 자재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나르고 돌을 쌓아 2년만에 간신히 법당을 지었다.

3월 13일이면 햇수로 30년을 감악산에서 채우게 된다. 그동안 스님은 좀처럼 산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청년불자들의 요청으로 경전법회 법문과 지역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기 위한 것 빼고는.

스님은 "혼자 촛불켜고 나무해서 밥해 먹으며 수행할 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며 웃음지었다.

스님은 젊은시절 손수 쌓아올린 축대옆을 걸으며 산아래를 응시했다.

"욕심없는 산처럼 살아야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 괴로움도 없어"라고 말하며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후 스님이 사시불공(巳時佛供)을 위해 가사를 수하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목탁을 치며 천수경부터 정법계진언, 거불(擧佛) ·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 유치(由致) · 청사(請詞), 향화청(香花請), 가영(歌詠)등의 순으로 청(請)을 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음의 고저가 분명한 스님의 청을 듣고 있으니 웬지 엄숙해진다. 추녀끝에서 가끔씩 울리는 풍경소리가 조화롭다.

공양후 스님은 다시 법당으로 가서 1시간 동안 꼬박 정토발원 염불을 한 후 붓을 들었다.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연화불착수(如蓮華不着水)
심청정초어피(心淸靜超於彼)
계수예무상존(稽首禮無上尊)



스님이 직접 지은 법당에서 사시불공을 드리는 담월 스님.

세간생활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되거나 구애받지 않으니, 자기의 부처에게 의지하라.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이다. 스님은 마음의 근본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주장자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천지만물이 마음으로 좇아 성립되고 소멸되는 것이니 청정본연한 마음만 깨닫게 되면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지상과제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요즘은 포교와 수행의 방편으로 붓글씨를 많이 쓴다.

그래서 스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바로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0년간 매년 백련사를 찾아 100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해덕화 보살(80세)은 "항상 변함없이 올곧은 스님의 모습이 좋다"며 "평생을 수행에만 전념하신 스님께 법문을 들은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이라고 말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3개 사찰 중창불사 주관

담월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3년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45년 서울 대원사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50년 해인사 범어사 강원 강사와 속초 신흥사, 태백 흥복사 등 13개 사찰 주지를 거쳐 78년부터 제천 백련사에 주석하고 있다.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불경금책 반야심경(3.5×5cm 80.000원)를 무료 증정합니다.

金剛極樂往生염주

極樂往生의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금강극락왕생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 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함없이 남아있어 더욱 신비를 주고 있는 염주입니다

원효대사때부터 전래되는 녹색의 금강극락왕생염주는 강한氣의 북한산 금강석으로 신비와 영험으로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영가를 안정시키고 잡귀와 악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극락왕생하게 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입니다.

金剛(금강)이란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金剛의 강한 힘으로 번뇌를 끊고 잡귀와 악귀들도 물리칠수 있습니다. 極樂(극락)이란 (정토삼보경)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면 그곳에 極樂정토가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환희가 있고 근심걱정과 고통이 없으며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往生(왕생)이란 불교에서 사람이 입적 후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念珠(염주)란 부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45.000원

건강에도최고 소원성취척척 北韓産 금강염주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북한산 금강석과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옴이온,등을 이온 결합하여 1300℃이상의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기능성 금강염주는 불심의 노력으로 수년간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원도 꼭 이루어지고 건강에도 최고인 금강염주는 스님께 보시로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어 대중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25.000

건강에도 최고!
◆ 참선, 기도정진 하시는 분
◆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당뇨등으로 손발이 저신 분
◆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
◆ 갱년기 주부우울증

선물로도 최고!
◆ 뒷목이 뻐근한 분
◆ 혈압이 높으신 분
◆ 관절이 약하신 분
◆ 손발이 저리신분
◆ 오십견등

금강염주 상담문의 (02)723-0909

대리점 서울 : 이화불교 (02) 720-1700
대전 : 심 강 원 (042)256-3375

사용하시던 금강염주 염주끈이 끊어진 염주를 무상 수리하여 드립니다. (대리점모집)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살아가는 이 자체가 도예요”

담월 스님의 가르침

‘세상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도 젊어서부터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속세에서의 인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인생의 허망함과 무상함이 새삼 피부로 느껴집니다.

‘만유(萬有) 현상계(現象界)는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실상(實相,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고 옴이 없는 여래의 참모습을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실상이 아닌 환한 공상(空相, 모든 것이 공(空)인 그 모습)으로 보면 집착심이 생기지 않고, 집착심이 없으면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욕심이 없으면 죄악이 생기지 않아 육근(六根, 눈 · 귀 · 코 · 혀 · 몸 · 생각)이 청정하게 됩니다. 육근이 청정하면 저절로 육신이 밝아져서 거래와 생멸이 없는 여래의 경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꿈을 객이 해몽하고, 객의 꿈을 주인이 풀이하지만 지금 꿈을 얘기하는 두 사람도 역시 꿈속의 사람’이라는 도인의 말과 같이 세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좋고 궂은 일만사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0.1초만 지나도 꿈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란 지나간 꿈이요, 현재란 흘러가는 꿈이요, 미래란 다가오는 꿈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한방울의 물거품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과 별이 있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를 설명할 때 33천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로 설명합니다.

삼천대천세계는 초속 100㎞로 달릴 수 있는 로케트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켄타우로스자리의 ‘프록시마’라는 별까지 가는데 1만5000만년이나 걸리는 광대무변한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삼천대천세계 아래로 42억 항하사 세계를 지나 내려가면 인간이 살고 있는 오탁악세 곧 지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는 수천억개의 별중에 잠깐 쉬어가는 작은 별입니다.

180억년 우주의 기원중 지구는 45억세가 된다고 하니 이 무한한 시간속에 인생 70세는 ‘찰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인과 믿으면 겸허해지고 하루하루 즐거워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과 같고, 천자의 호걸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한 서산대사의 말과 같이 인생이란 공상에서 내려다보면 다락논 한떼기에 좁쌀 한통 심어놓고 대지가 타는날 동전 한푼에 습기로 목을 축이려다 황토밭에 고꾸라지는 굼속의 꼭두각시와 같고, 한 마리의 토룡(土龍, 지렁이)입니다.

<원각경>에 ‘일체중생은 음욕으로 생겨서 애욕으로 유전한다’고 했으나 무슨 일로 와서 부유같은 인생을 살다가 무슨 까닭으로 영원한 죽음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허망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목적없이 와서 지각없이 살다가 거처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살기위해 낮밤을 헛보내고 허송세월 하는가’라는 원효대사의 말씀이 귓전을 후려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이기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모두 참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사람이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믿으면 완전하고 고통없는 경지, 곧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뺏겨 무리에 휩쓸리고 인과를 지으면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보았자 헛 일입니다. 설사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지은 죄업은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과보를 어김없이 받게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과를 믿는 일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겸허한 생활인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참사람은 또 도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도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도를 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담월 스님은 인과를 믿으면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사람은 땅으로 인해 넘어졌다가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땅이 사람보고 넘어지라고 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난 것은 사람이 한 일이지 땅과 관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를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로 인해 깨닫는 것입니다. 위하는 것도 도요, 깨닫는 것도 도입니다. 도가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깨달을 것입니까? 금생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주의 대도와 진리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공부 해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등져버리고 누구를 위해 전전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가를 철저하게 느껴보십시요.

우리는 도 속에 살면서도 도를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너무 도 속에 살아서,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 하는 것이 전부다 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도의 작용입니다.

상(相)에만 집착하고 진리를 모르면 얼굴을 마주 대해도 천리같이 막히고, 마음을 비우고 도를 알면 천지가 한 집처럼 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에 의지해서 마음과 힘을 허비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밖의 마음을 전하는 깨달음의 비결은 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닦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뒤로 미뤄서는 수행을 못합니다. 젊었다고 생사를 장담 못하고, 건강하다고 생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젊어서 건강할 때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5>



성공하려면 넘어서야할 열 가지

싯다르타 태자는 인간의 괴로운 현실을 목격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성을 나섰습니다. 그는 6년 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인간은 왜 괴로운 것인가’하는 문제를 풀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땅에서 내로라하는 스승들로부터 배운 선정들과,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택하였던 고행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싯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가부좌하게 됩니다.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수행과 완성을 방해할 틈만 노리던 악마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부처되기 직전의 태자를 뒤흔들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악마에게 싯다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너에게는 열 가지 추종자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 열 가지란 바로 욕망, 혐오, 기갈, 집착, 피로와 수면, 공포심, 의혹, 위선과 고집,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과 명성, 자신을 높이고 남을 경멸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지혜의 힘으로 너의 추종자들을 쳐부수리라. 굽지 않은 질그릇을 돌로 쳐서 깨뜨리듯이.”<숫타니파타>

싯다르타는 이 열 가지를 쳐부수었습니다. 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는 일입니다.

넷째는 집착입니다. 작은 성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하게 겪어야 할 실패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슬한 성공과 실패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것이요,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듯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는 피로와 수면입니다. 잠을 줄이면서 노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만 맑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역시 충분한 휴식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공포심입니다. ‘내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 때 믿을 것은 오직 자기뿐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자기를 믿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일곱째는 의혹입니다. ‘이 일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하는 의구심과 망설임입니다. 이런 의혹을 넘어서려면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초발심의 순간을 끝까지 지닌다면 이 일의 진행이나 성공한 뒤의 막연함에 대한 의혹은

욕망·혐오·집착·피로·공포·의혹 등을 이겨내지 않고서야 성공신화가 있겠습니까

리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싯다르타의 성공을 ‘성불’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를 이루었다’는 뜻이지요.

싯다르타가 성을 나와서 ‘성불’이라는 성공신화를 이루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한 사람의 성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목적하는 바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과,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숫타니파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열 가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그릇된 욕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 정당의 사무총장에게 닥친 일을 보십시오. 취중이라고 하여도 그 한 순간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입니다.

둘째는 혐오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처럼 바라보는 것,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성공에 대해 집착이 지나치다보니 완성에 이르렀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노력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가장해서는 안됩니다. 작업 현장에 임하거나 고객을 만났을 때는 진실해야 하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과 명성입니다. 누구든 성공신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그릇되었다면 그것은 실패보다 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합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파국입니다. 이익과 명성이 따라오거든 그것이 바르고 선한 동기와 방법으로 찾아왔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째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경멸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있게 해준 인연들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경쟁상대라 해도 그는 나를 살아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열 가지 장애를 넘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성공을 이룬 부처님, 그 분이 성불 직전에 넘어선 이 열 가지를 잘 기억해둔다면 분명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경전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색 · 향 · 맛에서 氣 얻는다

茶 제조법에 따른 분류 오행법과 동일
수행자 녹차 마시는 것도 오행의 이치
자기 체질과 환경에 맞는 차 선택해야

오행으로 풀어본 차

"차라는 마실거리도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제각각의 맛과 향, 색을 가지고 있는 차를 음양오행 사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한국학연구소 박현 소장은 "흔히 차를 6대 다류, 7대 다류로 분류하지만 사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운동방향이라 할 수 있는 오행의 기운에 의한 분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박 소장은 차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인은 찻잎의 종류와 차가 만들어지는 환경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차를 제조하는 기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차의 제조법에 따라 차 에너지의 운동방향이 결정되며, 이러한 운동성을 토대로 차를 분류한 것이 오행법에 따른 분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차는 기본적으로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다섯 가지 성질을 고루 갖추고 있지만 그 중 각 차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내림의 성질을 대표하지만 올림이나 풀림, 움츠림의 성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차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박 소장에 따르면 흑차는 내림을, 홍차는 올림을, 녹차는 자라남을, 황차는 풀림을, 백차는 어울림을 주된 성질로 한다고 한다. 청차의 경우는 차의 색으로 규정되기보다 차 만드는 기법 자체가 다른 것으로, 오행으로 보는 차의 분류법과는 그 범주를 달리한다. 때문에 청차는 빛깔로 오행을 판단할 수 없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홍차를 마시고 몸의 기운과 정신의 작용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 수행자가 녹차를 마시는 것도 오행의 이치에 맞춘 것입니다. 차의 성질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바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차가 갖는 성질은 어떨까?



왼쪽부터 흑차 황차 녹차 홍차 백차 청차. 현대불교 자료사진

흑차 찻잎을 발효를 시키고 오래 묵힘으로써 자라남의 성질을 최대한 누그러뜨린 흑차는 내림(水)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찻잎을 단단하게 뭉쳐 놓음으로써 차에 내재된 자람의 성질이 풀림의 성질로 바뀌도록 했다. 덩어리를 짓지 못한 산차가 온전한 흑차로 대접받지 못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다.

좋은 보이차에서는 검은빛과 누런빛이 함께 우러난다. 그 가운데 사람의 몸에서 화기(火氣)를 내려주는 것은 검은빛의 효능이며, 독기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잘 풀려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런빛의 효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에 열기를 일게 해 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누런빛이 가진 풀림의 효능이며, 술기운을 거두고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검은빛이 가진 내림의 효능이다. 다만 내림의 성질이 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보이차를 흑차로 보는 것이다.

황차 황차는 두껍고 큰 찻잎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찻잎에는 자람의 기운이 많다. 때문에 수분을 많이 빼서 내림의 기운을 많이 줄이고, 불을 강하게 쬐어 자라남의 기운도 크게 줄임으로써 충분히 자란 찻잎에서 나오는 풀림(土)의 기운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황차다.

그래서 좋은 황차는 금빛에 가까운 누런빛을 띤다. 황차는 중단전 부위의 막힘을 열어 하단전과 상단전의 교통이 수월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소화를 돕고 숨길이 편하고 느려지도록 해주는 것이 누런빛이 가진 풀림의 효능이라 할 수 있다.

녹차 나무(木)의 기운에 해당하는 녹차는 대개 어린 찻잎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찻잎의 원래 성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불기운을 적게 쐬고 물의 기운은 더하지 않는다.

또한 자라남의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효도 아주 가볍게 한다. 이러한 자라남의 성질은 몸의 기운과 정신의 작용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부질없는 걱정과 욕심을 줄이게 하며 피의 흐름을 맑게 한다. 수행자들이 녹차를 즐기는 이유다.

홍차 화학적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홍차는 불(火)의 기운을 지닌다. 찻잎을 최대한 발효시켜 물의 성질을 극소화한 차는 올림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즐겁게 하며, 정신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감을 덜어준다. 예술적인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단전(下丹田)의 기운을 허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수행자들에게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

백차 불을 통한 강한 살청으로 올림의 기운을 극대화한 것이 홍차라면, 물 기운을 통해 살청을 강하게 함으로써 움츠림(金)의 기운을 극대화한 것이 백차다. 찻잎의 기운이 발산되기 전인 싹 상태에서 딴 후 약한 불기운을 가해 만든 백차는 사람의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며,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숨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청차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청차는 그 색과 무관하게 차의 성질만 가지고 보면 기운을 발산하는 황차의 성질을 가진다. 하지만 찻잎의 종류와 찻잎을 딴 시기, 발효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실제로 타이완 고산 지대에서 나는 우롱차의 하나인 사계춘은 겨울에 만든 것인가 봄에 만든 것인가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며, 금훤 역시 살청과 유념의 정도에 따라 오행상의 성질이 나눠진다.

※차 마실 때 주의하세요

차의 성질과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마시기에 적합한 차도 다르다. 몸이 냉하고 내성적인 사람, 신체활동이 적은 사람은 황차가 적합하다. 몸이 비대하고 호흡이 잦은 사람은 백차가,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녹차, 의욕부진인 사람에게는 홍차가 적합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흑차가 무난하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어울린다고 해서 보이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비장에 무리가 생기고, 황차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 지나치게 마시면 대장과 소장에 무리가 온다. 또한 녹차는 위에 홍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마시지 않도록 한다.

한편 청차와 황차를 섞어 마시면 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위가 약한 사람이 진년(해마다 홍배를 해서 묵힘)이 오래된 청차를 계속 마시면 치아가 상할 수 있다. 그리고 흑차 가운데 산차를 자차법으로 끓여 마시면 눈이 약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8. 보이차 속의 광운공병

예로부터 중국 내의 보이차 소비시장은 티베트, 몽고, 위구르 등 서부소수민족지역이었으며, 해외의 주요시장은 홍콩과 마카오였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홍콩과 마카오는 자유무역과 항만기능을 이용하여 세계의 물류중심지로 각광을 받은 것은 50년대의 일이었다. 당시 이곳은 수많은 보세창고가 있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하역 인부의 수는 상당했다. 이들이 해갈용으로 마시는 차는 대부분 부담없이 주전자에 끓여 마실 수 있는 값싼 육보차(六堡茶)와 보이차였다.



홍콩영기차장

공산중국 초기의 차 수출에 관한 업무는 주로 상해시와 복건성의 하문(厦門) 그리고 광동성의 광주(廣州)의 수출입공사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운남에는 세관의 검사를 거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면장을 발급받는 통관허가증이 없어 보이차에 관한 수출은 모두 중국광동성차엽진출구공사(中國廣東省茶葉進出口公司)에서 도맡아 대행해주었다. 기록에 의하면 소위 인자보이차의 수출은 대부분 이 경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로 갔다.

광동에 있는 차엽진출구공사는 운남보이차에 관한 수출 건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운남에서 보이차 원료를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 기관은 수출통관을 무기로 삼아 운남에 보이차 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운남에서는 부득이 매년 수 백톤의 보이모차(普洱毛茶, 1차 가공으로 된 반제품 잎차)를 이곳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달관계는 1973년 운남 자체에서 자영(自營)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광동지역은 예로부터 자체적으로 차를 만들었다. 물론 주 판매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였다. 그들은 광동의 찻잎 심지어 월남의 찻잎을 가져와 차를 만들었으나 반응이 좋지 않자, 운남 찻잎의 가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잎차인 산차(散茶) 그리고 보이원차와 같은 병차(餠茶)를 만들어 홍콩 등지에 팔았다. 시장에서 이 병차를 가리켜 광동병(廣東餠)이라 한다.

광동병의 내비(內飛)는 인자보이차의 '팔중차(八中茶)'를 본떴으나 포장지 없이 7편을 쌓은 형식은 골동보이차와 같다. 죽순껍질로 포장하여 홍콩 등지에 팔았는데, 반응은 꽤 괜찮았다고 한다. 금속틀로 압제해 운남의 것 보다 단단했으나, 운남 찻잎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광동·운남 찻잎 이용 병차 만들어 판매
운남에서 수출업무, '광운공병' 짝퉁늘어

일정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물론 운남이 아닌 광동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기에 운남보이차보다는 몇 갑절 싸게 유통되었다.

오늘날 시장에서 연도 있는 보이차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차가 바로 이 '광동병'이다. 광동병은 1990년대에 들어와 상인들의 각색으로 '광운공병'이라는 이름으로 환골탈퇴하게 된다. '광(廣)'은 광동지역에 만들었다는 뜻, 운(雲)은 원료가 운남의 것, 공병(貢餠)은 조공으로 바칠 만큼 질이 좋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운공병의 '짝퉁'이 많다는 것이다. 1973년, 운남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업무의 기능이 생기자 광동이란 지역적 이용가치가 떨어져 보이차의 원료공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73년 이후 만든 모든 '광운공병'의 원료는 운남의 것이 아니기에 전부 짝퉁으로 분류된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이차는 어느 지역의 찻잎으로 만들어졌는가? 운남인가 아니면 광동 또는 동남아의 찻잎인가. 그 판단의 가름선이 바로 1973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한서대학교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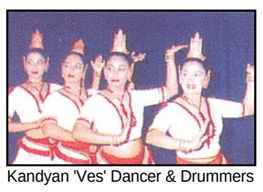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의회가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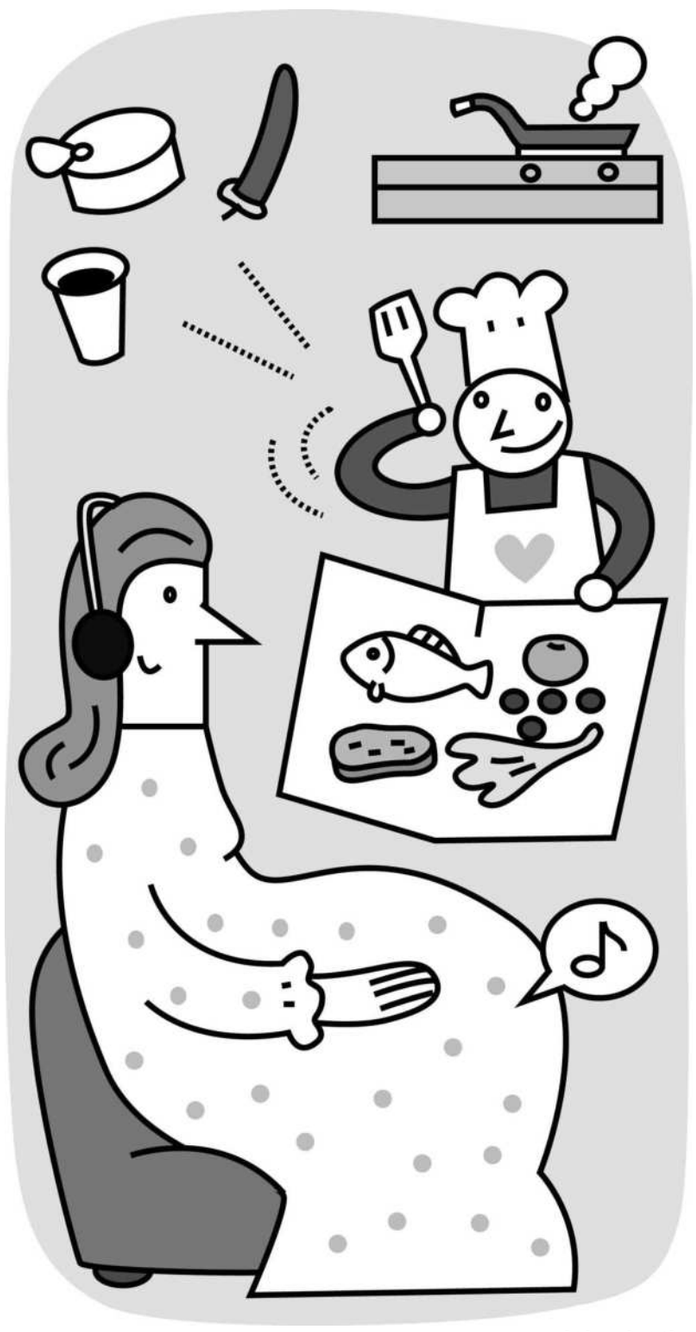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손영기 한의사에게 듣는 '태교비전'

태교 당사자는 '부부' 임신 전부터 준비를

〈태교신기〉를 쓴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는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임신한 어머니가 열 달 기름만 못하다"고 했다.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인용되는 이 문구의 다음 말은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가 하루 낳는 것만 못하다"이다. '어머니'의 것만으로 인식됐던 태교가 사실은 부부가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말이다.

일명 '먹지마 건강법'으로 음식을 통한 자연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손영기 한의사(손영기한의원장)가 최근 자신과 부인의 출산경험을 토대로 태교법을 정리한 〈태교비전〉(북라인)을 펴냈다. 〈태교신기〉의 근간을 이루는 '삼가 함(謹)'을 기본 정신으로 오늘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실천해야 할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아내의 식욕을 절제하는 '음식 태교', 남편의 욕망을 절제하는 '씨앗 태교', 부모 될 이의 생각을 단속하는 '영(靈)맞이 태교' 등 손 원장이 말하는 '태교비전'을 알아본다.



삽화 · 박구원

▷ 음식 태교

"가장 확실한 건강법은 바로 태교로 건강을 타고나는 것"이라는 손 원장은 임신부가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음식태교'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손 원장은 특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 △항생제가 포함된 육류 및 유가공품 △농약이 과다하게 살포된 농산물 △순산을 막는 매운 음식 △파인애플이나 두리안 등의 열성과일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삼백(三白)으로 불리는 설탕 · 밀가루 · 소금 또한 임신부가 절제해야 할 음식이다.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인스턴트 · 항생제 든 육류 설탕 · 열성과일 등 피해야

음식태교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식욕을 절제하는 것은 태아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산모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특히 순산(順産)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손 원장은 부인이 최근 딸아이를 출산하며 가진통까지 포함해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것이 바로 음식태교의 힘이라고 말한다. 육식을 금하고 인스턴트 음식과 설탕을 멀리하는 음식태교는 출산의 고통까지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 씨앗 태교

임신부가 식욕을 절제하는 음식태교를 해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음식태교를 돕는 한편, 임신 3개월 전부터 금주와 금연, 금욕하는 '씨앗태교'를 실천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담배는 임신부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손 원장은 "성욕의 억제로 인한 울증(鬱症) 또한 병이 되므로, 운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욕구를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를 잉태할 집의 환경을 살피는 것도 남편의

임신 3개월 전부터 남편, 금주 금연 금욕을

몫이다. 이른바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훌륭한 태교가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태담(胎談)도 빼놓을 수 없다. 임신이 확인되고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초기부터 태아와 대화를 나누면 태교에 대한 실천 의지를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아를 인격체로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영(靈)맞이 태교

영맞이 태교는 곧 생각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윤회의 수레바퀴와 환생이라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영맞이 태교는 임신부의 생각과 감정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전통 태교와 맥을 같이 한다.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써 훌륭한 영이 찾아들기에 적합한 자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손 원장은 영맞이를 준비하는 임신부가 생각을 다스리는 한 방법으로 염(念)을 권한다.

대상 정해 마음 집중 재주있는 영혼 맞게 돼

생각할 대상을 만든 뒤 여기에 집중해 망상이 붙을 자리를 없애는 것인데 염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임신부라면 어느 특정 분야에 일심(一心)하면 그 방면에 재주 있는 영혼을 맞이하게 된다고 손 원장은 말한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영맞이 태교의 기본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9〉

도토리수제비와 선인죽





생각해보면 저는 사찰음식을 배운답시고 공양간을 들락거리면서도 "음식을 만들기 전에 노동보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던 스님의 말씀도 깊이 새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참 가르침을 알지 못했기에 노동보시가 힘들고 짜증만 나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토리를 따러 스님과 보살님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딴 도토리를 껍질을 까고 잘 말려 산사의 좋은 먹을거리로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뵈었을 때 "저 모습 속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게 하는 원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던 도토리 가루가 도토리 전으로, 도토리묵으로 혹은 수제비로 만들어져 신도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노동보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저의 가방 속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도토리 가루를 넣어주시던 보살님. 제가 한 일이라고 해봐야 사찰에서 맛있는 것 먹고 스님들께 차 공양도 받고 이른 아침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과분한 선물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찮다 할 수 있는 도토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스님과 보살님. 자연의 열매를 먹기 전에 노동의 의미를 배우게 해주신, 제게는 큰 스승님이시랍니다.

■만드는 법



〈도토리 수제비(4인분)〉 재료: 도토리가루 6 큰술, 밀가루 4 큰술, 죽염, 녹차기름 1큰술, 고명(느타리버섯 1줌, 애호박 1/4쪽, 김가루, 녹차기름, 죽염), 국물(유부 4장, 참기름, 채수 9컵)

① 분량의 도토리가루와 밀가루를 미지근한 물로 익반죽한 후 숙성시킨다.(이때 반죽을 한 후 녹차기름을 넣어 반죽을 계속해주면 찰기가 생긴다) ② 느타리버섯을 손으로 찢어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녹차기름에 죽염을 넣어 볶아준다. ③ 애호박은 껍질만 곱게 채 썰어 살짝 볶아준다. ④ 유부는 곱게 채 썰어 참기름에 볶아주다 채수를 넣어 물이 8컵이 나올 때까지 끓여준다. ⑤ 채수가 끓어오르면 유부는 건져내고 수제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넣고 끓여준다. ⑥ 느타리버섯과 볶음 애호박, 김가루를 고명으로 올려 완성한다.



〈선인죽(4인분)〉 재료: 흰밥 2공기, 수삼 1뿌리, 어린 취나물 1줌, 팽이버섯 1봉, 검정깨 1큰술, 채수 8컵, 죽염

① 채수에 어린 취나물 잎만 넣어 함께 끓여준 후 잎은 건져낸다.(돌미나리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② 어린 취나물 줄기와 팽이버섯 그리고 수삼은 송송 썰어준다. ③ 끓여진 채수에 흰밥을 넣어 팔팔 끓인다. ④ 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수삼과 팽이버섯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준 후 불을 끈다. ⑤ 불을 끈 상태에서 취나물 줄기와 검정깨를 넣어서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씀바귀 김치를 만들어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수련생.모집

무공이라함은 동작 의식호흡의 절묘한조화가 어우려지고 동중정의 경계를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무공수행이라 생각하는 수좌입니다. 6세에 출가해서 36년간 수행도중 부족하지만 수행체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려 충분한 수행도량이 되도록 3만6천평의 연화지에 수행전문관 법당 길이(64미터)내공정진동굴(84미터)대웅전 요사채 자연산행수행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진정한 각성을 여시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행시간표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 연화심관법

새벽 3시기상	예불
새벽 4시	좌선(연화기공 : 관법수행)
아침 7시	공양
아침 9시	불교예절교육; 초발심자경문 강의
10시	태극선공(외공;내공수련)
12시	점심공양
휴 식	
오후 2시	연화심관법(심수심법의 통찰수행의실체)
오후 3시	도량정비 : 울력(일체대중동참)
오후 4시30분	차담(수행도중일어나는현상토론)
오후 5시	저녁예불
오후 6시	저녁공양
오후 7시30분	연화기공 수행
오후 9시	저녁점검 취침 및 개인수행

●수련보시금 : 1일 2만원, 7일10만원, 한달 40만원 숙식제공

(부전스님 2명, 공양주보살 1명 모십니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진위면 동천 1리 산651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종. 경기도 총괄본찰 대각정사

주지 정관 합장

문의처010-9508-6330/종무소031)663-9066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찰 연기설화 · 고승의 생애 · 사하촌 이야기 등

영화 · 게임 소재 '무궁무진'

역사에서 문화코드를 찾아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양산해 인기몰이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월 21일 개최한 2006 문화원형 콘퍼런스에서 '문화원형 소재의 역사 드라마 콘텐츠로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KBS 드라마 '해신'의 연출자 강일수 PD는 "우리 역사는 문화 콘텐츠 소재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며 "드라마 대장금이 문화원형을 드라마 콘텐츠로 개발해 성공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완 대표,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제작한 마고21의 이정호 대표, 한국만화가협회 이현세 회장 등도 우리 역사 안에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와 개척분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00만 관객을 모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를 살펴보자. '왕의 남자'는 <연산군일기>에 단 한 줄 거론됐을 뿐인 광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배우 이준기가 연기한 광대 '공길'은 <연산군일기>에서 " 공길 이라는 광대가 왕에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은들 먹을 수가 있으랴"(60권 22장)'는 말을 하였다가 참형을 당했다"는 기록에 의해 되살려진 캐릭터다. 역사 속 인물인 연산군과 녹수, 거기에 허구의 인물 '장생'이 드라마틱한 광대놀이를 재현해내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2002~2003년 전국민의 반수를 TV 앞에 붙잡았던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의녀 장금이가 보양식에 강하다'는 기록에서 궁중음식과 의학을 접목시킨 드라마로 태어났다.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오세암에 전해오는 5세 동자 이야기를 만화화했다. 이미 영화로도 선보인 적 있지만 원 설화를 그대로 살린 것은 애니메이션 '오세암' 쪽이 월등했다. 그 결과 2001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특별상 만화부문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듯 다양한 역사 속 작은 사실들이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을 밑받침으로 문화콘텐츠로 탈바꿈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서들이다.


애니메이션 '오세암'.

불교설화 상상력 · 허구성 풍부
멀티시대 문화 원천 소스로 주목
'오세암' '심청전' 등 활용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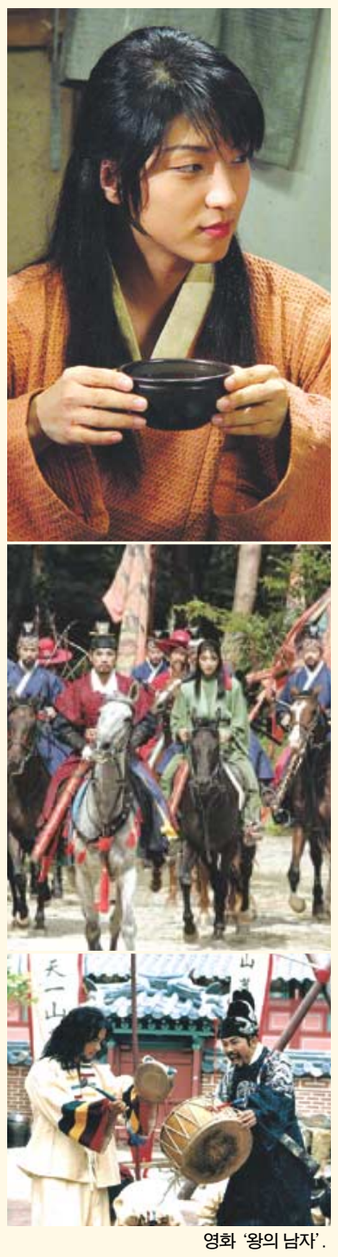
불교에는 무엇이 있을까? <삼국유사> 등 일반 사서에도 불교관련 소재는 많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찰연기설화이다. 이미 고문학의 원형으로 연구돼 왔던 사찰연기설화는 다양한 얘깃거리들을 담고 있다. 곡성 관음사의 창건 설화는 원홍장이라는 여인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중국에 팔려갔다가 황후가 돼 관음사 창건의 주역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전'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를 펴낸 동국대 김승호 교수(국어교육과)는 "사찰연기설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용 관련 소재들을 만화 · 영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눈썰미있는 젊은 작가들이 사찰연기설화를 원천 소스로 역사적 상상력과 환상을 보탠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찰연기설화 외에도 고승들의 생애나 스님들의 수행생활, 사찰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민담, 사하촌에 전해오는 이야기, 전설 속에 숨어있는 불교소재 등도 주목해야 할 문화 콘텐츠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드라마 '대장금'.


영화 '왕의 남자'.

생명력 가득한 유화 22점 - 박명순 작품展

"이제 자연인이 되어 느리게 걸어가렵니다. 채워지지 않은 빛바랜 욕망 다 던져 버리고 허허로운 미소로 오늘조차 잊겠습니다." -작가 노트 중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자연과 대지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담은 박명순씨의 전시회가 열린다.

경운동 장은선갤러리에서 3월 11일까지 열리는 '내 마음의 여백, 옐로우오커-박명순' 전시회는 동국대 사대부속여고를 2월 27일 정년퇴임한 박명순 교장의 정년 기념전이다.

전시장에 걸린 22점의 그림뿐만 아니라 도록에도 주목해보자. 정혜옥 수필가협회 회장의 글에서부터 승산 스님이 보내온 엽서에 이르기까지 박명순 교장의 한 평생을 엿볼 수 있다. (02)730-3533


불심을 담은 작품 '念'.

강지연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탁본 전시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의 아름다운 문양들이 탁본으로 관람객을 찾아간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은 2월부터 1년 간 성덕대왕신종 탁본(사진)을 미술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이번 탁본전에는 종의 상 · 하대를 장식한 보상당초문, 하대에 속하는 구연대의 연꽃문양,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비천상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비천상은 바람에 너울거리는 얇은 옷자락을 걸치고 연꽃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모아 향로를 받들고 공양을 드리고 있는 4개의 공양천인상과 2개의 연꽃 모양 당좌, 보상당초무늬와 연꽃으로 이루어진 띠가 양각돼 있어 국내 최고의 걸작품으로 칭송된다. (054)740-7518

강지연 기자

황지우 시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취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53 · 시인 · 사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제5대 총장으로 3월 9일 취임한다. 3월 2일 임명장을 받은 황지우 신임 총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연혁'으로 입선했고 <문학과 지성>에 수필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게 눈 속의 연꽃> 등은 불교적인 사상을 녹인 시들로 호평을 받았다.

황지우 신임총장은 "앞으로 기초예술과 CT의 상호작용 증대, 예술교육의 국제네트워킹 강화, 6개원 전공교육 심화 등을 꾀하며 '지속과 도약'을 화두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연 기자

강좌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구일회)이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주제로 제5회 박물관 문화강좌를 개강한다. 3월 24일~6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 · 중 · 일 3국이 전통미술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교류가 어떻게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했는지를 분석한다.

강의는 불교조각 불화 벽화 금속공예 도자기 건축 서화 등 미술사의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특징은 물론 우리나라 미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장 쉽게 배우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정희(홍익대) 정우택(동국대) 이상해(성균관대)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064)720-8100

강지연 기자

여성 · 어르신들 위한 강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이 여성과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문화강좌를 잇달아 개강한다.

3월 8일~4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은하문화학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강좌다. 상반기 주제는 '동서문화 교류와 한국문화'. **▲고대의 동서문화 교류(3월 8일)**-권영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근세 동서양 문화의 만남(15일)**-문정희(서울대)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만남(22일)**-정수일 前 단국대 교수 **▲고구려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29일)**-최종택 교수(고려대) **▲백제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4월 5일)**-권오영 교수(한신대) **▲통일신라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12일)**-김리나 교수(홍익대) **▲문화유적 답사(19일)** **▲고려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26일)**-정우택 교수(동국대) 등의 강의가 준비된다.

2006년 상반기 여성문화교실은 '여성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3월 10일~4월 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는 개최한다. 8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윤범모 교수(경원대)의 '시대를 앞서간 근대미술의 선각자, 나혜석' 등을 비롯해 조각보, 조선회화 속 여성 등을 들을 수 있다. (02)2077-9294

강지연 기자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언' 中에서

글쓴이 | 차 차 석
신국판 | 양장본 286쪽 | 값 10,000원

I.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 · · · ·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비롯된 불교발달사 및 핵심교리
II.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 · · · · · · · · · · ·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사상의 변천사
III. 계율 이야기 · · ·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발달사
IV. 수행과 삶의 이야기 · · · · · · · · ·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V. 부처님, 여성을 보다 · · · · · · · · · · · · · · ·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선 부처님의 여성관

차 차 석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 위원, 한신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출강 하는 등 불교 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woribook@chol.com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68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3월 8일(음력 2월 9일) 수요일

내 한생각 넓으면 둘 아니게 이끌어 갈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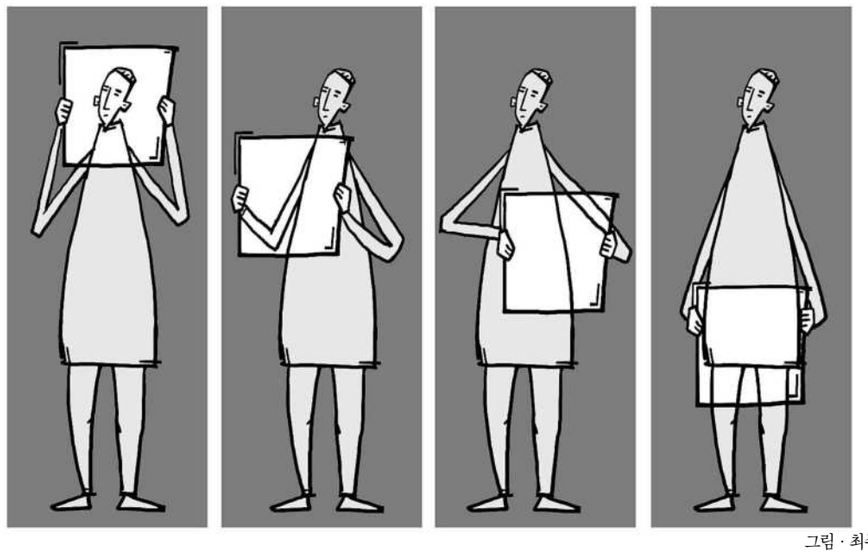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고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쓸 수 있으니 마음놀이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니 마음으로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 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섰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놓지를

관습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뛰어넘으세요

능하게 좀 한 발짝 떼어놓으세요!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놨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쯥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요?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뚱이가 집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허….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뭐라고 물었는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뭐라고 물었나?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궁합을 볼 게 아니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궁합이지 무슨 궁합을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날짜에 궁합이 붙고 윤회에 궁합이 붙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북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에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는,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아!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다가 그냥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밑이든 물이 질척하든, 그 자리를 파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좌우를 봐서 '야, 이거는 참 좋겠구나. 볕이 들고 아래로 물이 흐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게 참 좋구나. 앞은 산에 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옆으로는 둘러싸여 올타리가 지고, 참 좋구나.' 이런 거뿐만

> "
>
> 어떤 일이 있어도
>
>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
> 너그럽게
>
> 한번 믿고
>
> 뛰어 넘을 수 있는
>
>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
> "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그 용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 그 풍수 보는 사람들, 뭐 역학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떼로 죽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가 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리고 귤왕신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허, 귤왕신이 들기는 무슨 귤왕신이 들어? 내 마음이 귤왕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귤왕신이 따로 있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대중 웃음) 허허허….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자꾸 재밌어서 쫓아가고 허, 귀신이 오는 거를 그냥 탁 집어서 집어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지. 하하하…. (대중 웃음)

산골이나 밤중이나 그믐밤에 가다 보면 누구든지 꼭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허, 그런데 저는요, 깊은 산속, 그 수십리 밖의 산골이라도 늠름했던 것에 북어 하나가 꿰어 있어요. 하하하…. (대중 웃음, 박수) 그 북어 꼬랑지를 잡고 턱턱 돌로다가 쳐서 옆구리에다가 쓱 끼고선 이제 가는 거죠, 또. 그러면 산신 모시는 산당이 있죠? 그런 데로 들어가죠. 거기에 위패도 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오룡 기와집 같아요. 또 상 차려 놓은 널판지에 단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위패를 베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상천지가 전부 내 자리 같아요. (대중 웃음) 정말입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도 내가 좋았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큰 집에서 자고 하면서도 지나가다가 다리 밑 구멍만 봐도요, '어휴, 저기서도 잘 만한데….' 하하하…. (대중 웃음, 박수) 습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움막이나 뭐 창고라든가, 짚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도 살 만한데.' 이래요. 여기 삼막사 올라가는 데 저 위로 빈 움막집이 있는데 '저긴 저렇게 살 만한데 왜 비워 놨을까?' 하하하. 아, 이러다가 한편 '참, 습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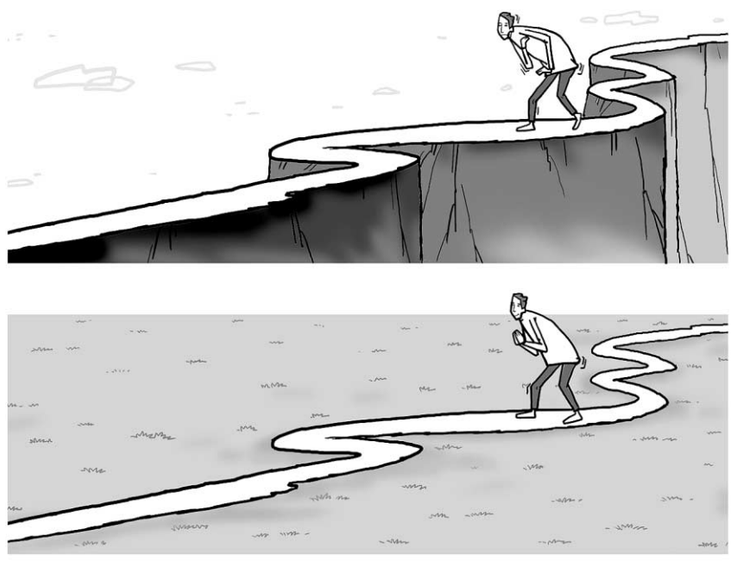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윤회라는 것이 알고본다면 모두 공했으니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은 뭐냐,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십리 안팎으로 모두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말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걷다가도 낭떠러지가 되면 '아이구,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하다못해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다니는 뱀도 도와주고 그냥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는 건 둘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며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 하하하…. 또 공양도 제공하고 말입니다. 무슨 공양이냐고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라." 그러거든요. 돌아가면 영락없이 새끼오락지

☞30면으로 계속

고정된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살아야 집을 잘 단속하고 썩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여러분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참사람이라고 봅니다. 또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큰스님: 제대로나 대답을 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자1(남): 아닙니다. 궁합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육도윤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생활 가운데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스님: 아까 말 해 놓고 또 딴 말 하시네요. 그거 증명할 수가 있죠, 허허허….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전체를 알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육도윤회에 끄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른 거죠. '그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가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마음 턱 놓고, 그 사람 집과 양면 모두, 신랑 색시 모두 그 마음을 잘 봐서, 그냥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맞는 겁니다.

또 현재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이 땅이 좁아서 산이든지 땅이든지 어느 때에 묘지를 파 가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탑으로 하나만 딱 해 놓고 그냥 세세생생에, 삼대(三代)가 다 들어가고 사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해 놓는다면, 아주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 아무 데나 내가 좋다 하는 자리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법입니다.

참법은 그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귀신 하나도 범접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저 부처든 중생이든 귀신이든 뭐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불바퀴에다가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니까 타 버리더라고도 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 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릿떠릿하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자1(남): 또 있습니다.

▲큰스님: 네, 하하하…. 오늘 재밌네요.

▲질문자1(남): 오늘 윤회 얘기가 나온 김에 아주, 의문이 나는 점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스님: 그런 것 같아요. 하하하….

▲질문자1(남):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뭐, 지금 질문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죠, 뭐. 그대로! 그대로 바로 우리가…, 뭐라고 물었죠? 하하하….

▲질문자1(남): 불가에서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한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돌아가지 않는다면, 움쭉거리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놨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느니 한마음이니, 왜 그랬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공!' 하면 바로 고정됨이 없이, 『반야심경』에도 '공했다, 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이끌어 가는 영원! 자기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하여튼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차안에서 넘지 못하든 넘든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얽매여서 수없이 그렇게 끝없이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리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저 어느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법이 있으니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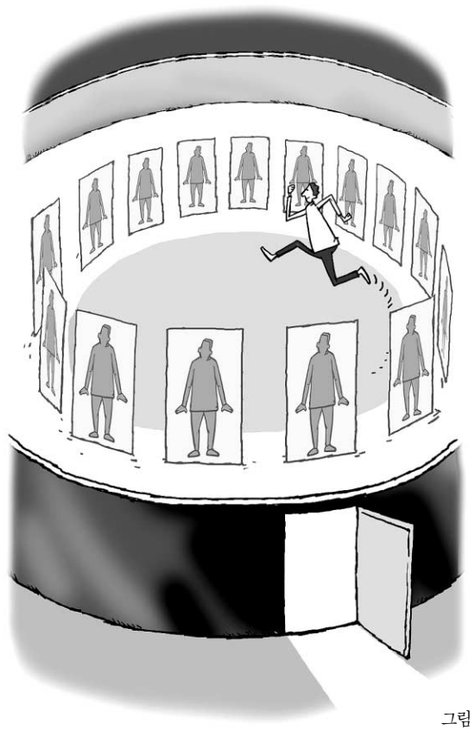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영원히, 세세생생에 그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뀌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냥 긍정적으로 '잘한 것도 너고 못한 것도 너니까' 하고 그냥 놓고 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입력으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다 없어짐으로써 새 입력을 넣는 대로 또 나오니까 우리가 살 만하죠. 살 만한 겁니다, 진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아주 만가지 맛이 나면서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신다면 나를 만날 때, 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고선 그냥 똥즐이 빠지게 가세요, 그냥! '이러이러합니다.' 이런다면 그 마음과 이 마음이 그냥 동시에 불어서 불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 줄을 가지고 불였다 떼었다 불였다 떼었다 하면 그냥 망가지고 말아버려요, 오히려 그냥!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부여잡고는 집을 살려 달라느니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느니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켓트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딱 끼워 놓곤 그냥그냥 가시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원주에서 서울로 오려고 차를 타고 오다가 막 내리는데, 손이 갈라지고 문둥 환자처럼 더더기가 붙고 한 어떤 사람이 "이런 병이 들어서, 내쫓긴 거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문둥 환자 사는 데로 가라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차를 막아서서 가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막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나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좔나에 자꾸 바뀌니까. 그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 달래요. "알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요. '그거 참 이상하다. 알았다고 한마디 들으려고 저렇게…. 저 사람네들이 나의 뭘 보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았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와서 그렇게 길을 막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내 꼬락서니를 보고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믿고 그 말을 듣고 가네.' 이러고선 그냥 돌아서서 왔어요.

며칠 서울에서 지내고 상원사엘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서울을 오게 되었는데, 누가 두 팔을 벌리면서 날아오듯이 그냥 차로 달려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누가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짱하게 나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해 준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기가 낫게 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고개가 안 돌아가는데 절을 아주 그냥 공손하게 삼 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휴! 저렇게 젊은 남자가 나의 뭘 보고 삼 배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스 타고 돌아가다가 그게 나았대요. 허허허….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본인들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로 하심(下心)하고, 진짜로 돌을 보고도 정성을 들이고, 저 형상 부처님을 보고도 막 살려 달라고 애를 쓰는 판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보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하하….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산 사람을 귀중하게 안다면 저 형상적인 부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한 손으로 꿰뚫었다는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또 하세요.

▲질문자1(남): 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뭐 비슷한 질문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하셔도 좋아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잘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계,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중송 등 예불 : 향수해계, 사성례 참회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법,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삼귀의, 합장계, 고향계,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중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삼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회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시다리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회청, 축원회향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6년 3월 9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접수기간 : 2006년 3월 9일까지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수련회의 기억 (상)

곽기섭 (서울 중랑구 면목동)

때는 불기 2548년, 그러니까 2004년 7월 여름 수련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간을 회고한다. 그때 느꼈던 내 감동을 도반들과 나누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 다녔다. 그곳에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수련회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수련회는 언제나 참석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참가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니 일상에서 잠시나마 나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조차 그랬다. 일상에 밀리듯 시간은 벌써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 열심이었는데….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데….

내가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불자집안에서 자랐다는 점도 있었지만 불교라는 것 자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나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것,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산을 오르려면 내 자신이 움직여서 발을 딛고 올라가야 정상을 밟듯, 불교는 늘 내 곁에 함께 하고 있었다. 산 · 도심 어느 사찰에 가던지 잠시라도 법당에 앉아 향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노라면 목욕을 하고 나온 듯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 탓만 하고 지내던 어느 날 다시 마음을 다잡고서 주변을 살피던 중 회사에서 가까운 도심 속 사찰 서울 봉은사와 인연이 닿았다. 그 후부터는 청년회 법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금요일 저녁,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 다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짐을 들고 봉은사로 향했다. 그런데 창 밖에선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무렵 경남 진주에서 열렸던 '제23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때 법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태풍 '민들레'도 이겨냈던 모습이 떠올라서다.

봉은사 경내 법왕루에 도착해보니 벌써 몇몇 법우들이 도착해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바라보면서 운치도 느끼며 아직 도착하지 못한 법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와서인지 예정된 시간보다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었다.

강요하지 않고 집착 않는 불교에 매력
내안의 '그 무엇' 찾기 위해 수련회 참가
1080배 통해 마음의 중요성 깨달아

수련회에 타고 갈 버스는 이미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다. 법회는 참석했지만 수련회는 처음 참가하는 법우들도 있었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법우들도 있어서 잠시나마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된 도반으로 인사를 나눴다. 설렘과 긴장을 안고 있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천으로 인해 예상보다는 많은 법우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버스는 힘차게 출발했다. 이윽고 일반도로를 지나 톨게이트 진입, 고속도로를 거쳐 수련회 장소인 종남산 송광사를 얼마두지 않은 곳에서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탑승하고 있던 버스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뿔싸! 도반들 모두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처해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이라서 차량이 별로 없기는 했지만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했다. 도착 직전, 마음을 느슨히 하지 말라고 되새겨주는 암시인 듯했다.

수련회에 앞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초심을 재가동하여 내안의 나를 찾아서 되새겨보고 내면에 있는 자신과의 시간 및 대화 그리고 좋고 나쁨을 떠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 부딪치는 모든 것, 관련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수련회 장소인 전북 완주의 종남산 송광사. 고요한 새벽에 우리는 관음전으로 이동했다, 짐을 내려두고 나니 도량석 도는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예불을 보기위해 대웅전에 들어서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웅장함과 자태가 말로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장엄스러운 삼불좌상이 모셔져 있었다. 가운데 석가모니불, 오른쪽 아미타불, 왼쪽이 약사불로 기억된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쉬고 있던 대지와 만물, 작은 풀벌레들까지 일으키고 있었다. 세 부처님과 함께, 깨어나는 만물과 함께 편안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예불이 끝나고 수련회 기간 동안 지도 법사를 맡아주실 송광사 총무 각진 스님의 소개와 앞으로의 일정을 듣고 바로 참선에 들었다. 온갖 새소리와 맑은 공기, 풀냄새와 함께하는 <금강경> 독경. 그렇게 수련회는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수련회 내내 사회와 집전을 맡게 됐다. 따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고 싶었기에 더 진지하게 임했다.

새벽예불을 보고 나서 입제식을 할 수 있었다. 아침공양, 도량 청소 등도 모두 마쳤다. 어느덧 모두가 약간의 긴장과 설렘임을 안고 기다렸던 대망의 1080배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한 번에 절을 많이 하는 것은 좀 오랜만의 일이어서 걱정했지만 모두가 자신을 너무나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절을 하는 횟수가 한배, 한배 늘어날 때 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절을 시작 할 때의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땀은 쉼 없이 흐르고 옷까지 적시고 있어 짜증 한 번 날만한데도 오히려 편해지는 마음. 이것이 육체와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고 말 그대로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이기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절을 하면서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상대와 통하고 상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알았다.

드디어 마지막 108배를 남기고는 108참회기도문으로서 마무리. 1080배 참회가 끝났다. 법우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가 되었던 큰 시간을 보내고 나니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워하고 있었다. 절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과정 보다는 그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였던 것 같다.(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입니다.

파워풀 & 클린 포항을 위한 우리의 선언

"하나 되면 희망이 보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

"하나 되면 희망이 보입니다."

힘 있는 포항, 깨끗한 포항, 상생의 길을 가는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하여 우리는 성직자로서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포항 지역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자발적 희생 운동을 전개한다.

둘 5.31 지방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정 선거 감시 운동을 전개한다.

셋 5.31 지방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종교 편향적 지원을 금지 한다.

넷 종교 편향적 정치 신념으로 지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후보자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

다섯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공천하는 정당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운동은 상생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한 50만 포항 시민의 염원을 담은 천주교 · 불교 성직자들의 양심적 선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희 성직자들의 성심 어린 선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6년 2월 28일

포항 천주교·불교 성직자 모임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신부·포항불교사암연합회 스님 일동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소서

봉축행사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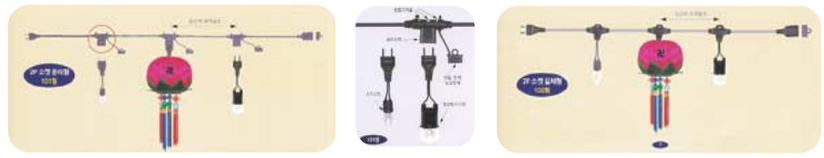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8Cm(大) /24cm(中) /18cm(小)
색상 : 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1Box20개입/8cm:1Box16개입/10.5cm:1Box12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 주문제작가능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종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출시기념 특판보급!!)

- 구성 :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종류 (여성용, 남성용)
- 가격 : ~~78,000원~~ → 48,000원(출시기념)

※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의 특징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 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연실백팔염주



- 가격 : ~~60,000원~~ → 40,000원

연실단주



- 가격 : ~~20,000원~~ → 15,000원

고급연실차걸이



- 가격 : ~~20,000원~~ → 15,000원

연실합장주(고급)



- 가격 : 20,000원

연꽃핸드폰걸이(고급)



- 가격 : 8,000원

연꽃목걸이(고급)



- 가격 : ~~14,000원~~ → 12,000원

연실열쇠고리



- 가격 : 6,000원

해인사 종(고급틀)



- 가격 : ~~250,000원~~ → 200,000원
- 특징 : 한국의 종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조선종중 가장 아름다운 해인사 대적광전종(보물 제1253호)을 그대로 축소 제작한 제품으로 조선종 특유의 둥근 종형과 섬세한 문양이 특징입니다. (색상: 갈색)
- 포장 : 오동나무 BOX • 재질 : 청동
- 전체 규격 : 폭 230×높이 265

한국의 종



- 가격 : 180,000원
- 특징 : 본 제품의 특징은 원목을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조각한 종각 모양의 종틀로 본사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최고급 모형종입니다.
- 포장 : 오동나무 BOX • 재질 : 청동
- 종 규격 : 100mm×175mm
- 전체 규격 : 폭 230×높이 265

에밀레종



- 가격 : 100,000원
- 특징 :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을 컴퓨터 조각에 의해 그대로 축소 제작한 2004년도 신제품으로 섬세한 문양이 특징입니다.
- 포장 : 오동나무 BOX
- 전체 규격 : 폭 220×높이 265

종각종 (에밀레종)



- 가격 : 220,000원
- 특징 : 본 제품은 전통 양식의 종각모형에 단청 채색을 한 종틀과 에밀레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제품.
- 포장 : 오동나무 BOX • 재질 : 청동
- 종 규격 : 190mm×330mm
- 전체 규격 : 폭 230×높이 265

나무틀 종



- 특징 : 집안 장식장에 올려 놓으시면 품격있는 장식품이 됩니다. 케이스가 나무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며 각종 라벨을 부착할수 있어 기업 판촉물 및 선물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 大(300×150×295) : 60,000원
- 中(220×120×220) : 45,000원
- 小(190×175×190) : 30,000원

스텐물고기 풍경



- 特大 : 180,000원, 大 : 130,000원 中 : 100,000원
- 재질 : 청동+스테인레스(물고기)
- 크기 : 지름 11cm×높이 17.5cm
- 특징 : 기존 풍경의 물고기 재질은 쉽게 녹슬고 구부러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스텐 풍경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물고기를 만들어 쉽게 녹슬지 않으며 풍경의 표면도 밝고 정교하게 제작하여 한층 고급스러 보인다.

용무늬 풍경 세트



- 가격 : 30,000원
- 2개 한세트
- 종크기 : 83mm×57mm
- 재질 : 청동

알마시카 담채조각 불전함



- 大 (70×46×71cm) : 1,500,000원 → 1,200,000원
- 中 (62×40×60cm) : 1,300,000원 → 975,000원
- 小 (45×30×50cm) : 500,000원 → 380,000원

알마시카 용조각 불전함



- 가격 : ~~1,400,000원~~ → 1,050,000원
- 규격 : 70×46×71cm

알마시카 불전함



- 가격 : 225,000원
- 규격 : 48×35×61cm

향나무 불전함



- 가격 : 180,000원
- 규격 : 43×33×49m

연 국 수





- 1개 3,500원 : 3인분(300g)
- 1박스150,000원 : 50개 (150인분)
- 연(蓮)국수에는 전남 무안의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 번 덖고 찌고 비벼서 말려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마시카 조각경상(大)



- 가격 : 600,000원
- 규격 : 120×42×55cm

알마시카 담채연꽃경상



- 가격 : ~~800,000원~~ → 598,000원
- 규격 : 93×36×37cm

알마시카 담채 조각경상



- 가격 : 520,000원
- 규격 : 93×36×37cm

알마시카 담채경상



- 가격 : 225,000원
- 규격 : 75×33×30cm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